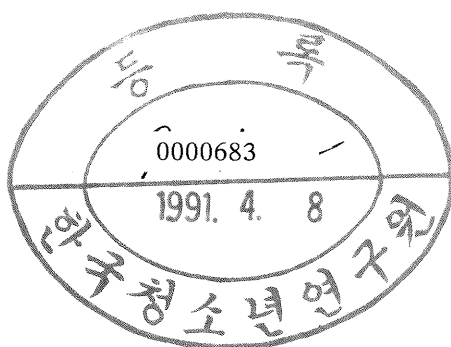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책임자 : 한 승 회
연구자 : 이 용 교
이 혜 연
맹 영 임



한국청소년연구원

이 연구는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머 리 말

어른들은 흔히 지난날 자기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즉, 옛 그때의 사회 문화 환경,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그런 전제에서 청소년의 삶을 해석, 판단, 대 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 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 들이 “요새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하는 정형화된 인식을 보 여주는 것 같다. 정형화된 성인의 인식이란 청소년들을 어른의 관점 즉 어른 의 안경을 끼고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바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른의 안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왔다. 이러 한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 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법칙이나 지식 보다는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 으로 이해하려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과 그들이 겪는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 들과 기성 세대인 어른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성인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청소년들에 대한 실재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아이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

고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는 그들의 문제 의식과 사고 태도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성인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만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주게 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 장 이 윤 구

차 례

I. 서 언.....	1
II. 어른들은 청소년의 어떤 문제를 이해하여야 하는가	5
1. 청소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5
2.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20
3. 어른과 청소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35
*연구의 방법	
III. 우리의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55
1. 전반적인 인식정도	56
2. 학교생활	57
3. 가정생활	61
4. 취미·오락 및 적성	64
IV. 우리의 부모는 청소년들의 주요관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69
1. 가정교육	69
2. 학습과 진로	115
3. 성과 이성교제	154
4. 문제행동	199
5. 정신건강	236
V. 어른이 풀어야 할 청소년 문제	263

[부록1] 부모의 청소년 인식조사 설문지

표 차례

[표Ⅲ- 1]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 수준	57
[표Ⅲ- 2]	성별에 따른 자녀인식 정도	57
[표Ⅲ- 3]	자녀의 학급 석차를 알고 있습니까?	58
[표Ⅲ- 4]	자녀의 교과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59
[표Ⅲ- 5]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60
[표Ⅲ- 6]	자녀의 담임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60
[표Ⅲ- 7]	자녀가 사용하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61
[표Ⅲ- 8]	자녀의 특기나 취미를 알고 있습니까?	63
[표Ⅲ- 9]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64
[표Ⅲ-10]	자녀와 함께 전자오락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65
[표Ⅲ-11]	자녀가 즐겨보는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66
[표Ⅲ-12]	자녀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67
[표Ⅲ-13]	자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	67
[표Ⅲ-14]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Ⅳ- 1]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	73
[표Ⅳ- 2]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76
[표Ⅳ- 3]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9
[표Ⅳ- 4]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82
[표Ⅳ- 5]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85
[표Ⅳ- 6]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88

[표Ⅳ- 7]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	91
[표Ⅳ- 8]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94
[표Ⅳ- 9]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다.	97
[표Ⅳ-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100
[표Ⅳ-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	103
[표Ⅳ-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한다.	106
[표Ⅳ-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다.	109
[표Ⅳ-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한다.	112
[표Ⅳ-15]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 ...	118
[표Ⅳ-16]	자녀의 진로선택은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	121
[표Ⅳ-17]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하다.	124
[표Ⅳ-18]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127
[표Ⅳ-19]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130
[표Ⅳ-20]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133
[표Ⅳ-21]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136
[표Ⅳ-22]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	139
[표Ⅳ-23]	자녀의 특기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142
[표Ⅳ-24]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145
[표Ⅳ-25]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148
[표Ⅳ-26]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151
[표Ⅳ-27]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158
[표Ⅳ-28]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된다.	161
[표Ⅳ-29]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164
[표Ⅳ-30]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167
[표Ⅳ-31]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	169
[표Ⅳ-32]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172

[표Ⅳ-33]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대 이해할 수 없다.	175
[표Ⅳ-34]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178
[표Ⅳ-35]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니다.	181
[표Ⅳ-36]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럽다.	184
[표Ⅳ-37]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187
[표Ⅳ-38]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다.	190
[표Ⅳ-39]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하다.	193
[표Ⅳ-40]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	196
[표Ⅳ-41]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03
[표Ⅳ-42]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206
[표Ⅳ-43]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9
[표Ⅳ-4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212
[표Ⅳ-45]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15
[표Ⅳ-46]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218
[표Ⅳ-47]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	221
[표Ⅳ-4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224
[표Ⅳ-49]	TV, 잡지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227
[표Ⅳ-5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	230
[표Ⅳ-5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233
[표Ⅳ-52]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	239
[표Ⅳ-53]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체벌)의 사용은 필요하다.	242
[표Ⅳ-54]	식사에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	245
[표Ⅳ-55]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248
[표Ⅳ-56]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 ...	251
[표Ⅳ-57]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254
[표Ⅳ-58]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다.	257
[표Ⅳ-59]	시험기간 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	260

I. 서 언

이 보고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문가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어른들은 모두 그들이 청소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일가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 말하곤 한다. 이 경우에 그들은 지난 날 자기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고, 지내보았으니 어른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어른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즉, 옛 그 때의 사회문화 환경, 그 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그런 전제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석, 판단·대처하려 한다. 과연 이 전제가 타당한 것인가?

예컨대, 어느 신문에서 지적하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며칠전 버스안에서 나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호되게 당했다(?)는 박 정수 씨(45)는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자 자리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인듯한 아이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척 하더라’며 ‘그 행위가 하도 패씼해 한마디 하자 되레 기득권 운운하며 따지고 들면서 말문을 막히게 만들더라’고 말하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이 땅에 떨어졌음을 절감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지행의 괴리라는 도덕교육상의 문제로 지적한다. 만일 박 정수씨가 한숨을 쉰 것처럼, 예의범절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 버스에 앉아 있는 학생이 당연히 따라야 할 규범이 ‘윗사람 공경’ 또는 ‘경노’이며 이는 곧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적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박 정수씨의 기준으로만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해 볼 여러 가정을 갖게 된다. 그 한 가지로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냐 앉느냐가 문제가 되는 도덕적 사태로 인식을 할 경우, ‘도덕적 사태에는 행동적인 의미가 명백한 단일한 지적 규범’ (예, 버스에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이 있다는 가정의 타당성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정수씨의 예에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가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덕적 사태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흔히 ‘친절’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인지는 그다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덕적 사태에는 단일한 지배적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비슷한 여러 개의 규범이 갈등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의 인용은 도덕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이 홍우 교수의 설명이다.

“사실, 버스 자리가 심각한 문제로 되는 시각에는 학생들이 버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 두 정거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서 종점에서 차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제 그 학생이 버스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자. 즉, ‘나는 이 자리에 앉으려고 버스 두 정거장을 거꾸고 걸어 왔다. 누구든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나처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집에 가서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 보아하니, 저 신사는 집에 가서 쉬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있겠는가? 10분쯤 서 있다고 해서 뭐그리 대단한 수고가 된단 말인가’라는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는 신사가 보기에 이 학생은 ‘경노’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이 학생은 예컨대 ‘사회정의’라는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정의’도 ‘경노’에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그 두가지가 하나의 사태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홍우, 교육의 목적과 난점, pp. 207~208)

위 인용이 극명하게 보여 주듯이 아주 명백한 듯이 보이는 도덕적 사태도 어떤 인식, 예컨대, 성인의 눈 또는 청소년들의 시각에 따라 정 반대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 자라났던 어른들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아이들은 각종 신문, 잡지, 광고 등 매스컴뿐만 아니라 TV, 비디오, 컴퓨터 등 다양하고 어지럽기까지한 정보의 환경속에서 자라난다.

어떤 국민학교 저학년의 어린이에게 풍경화를 그리게 했더니, 한 아이가 들과 산과 구름과 해를 그린 하늘에 검은 동그라미를 잔뜩 그려 놓았다. 이게 무어냐고 물었더니 ‘인공위성들’이라고 말하고 덧붙여 “하늘에도 이 다음에는 교통순경이 있어야 할꺼예요”라고 한 말에서 처럼 그들의 눈으로 본 미래가 어른들의 눈으로 본 미래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들이 청소년(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연구 또한 성인들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만을 밝힐 수 있음이 그 제한점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점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은 또한 청소년들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증거라든지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청소년들의 관심영역과 그들이 겪는 딜레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 다음 본 연구의 접근방안인 조사의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Ⅱ. 어른들은 청소년의 어떤 문제를 이해하여야 하는가

1. 청소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어른들의 한 진영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사랑스런 아이들, 꽃과 같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던 10대에 대한 표현은 60년대까지가 끝이었다고 생각한다. 세계도처에서 이제 10대는 가공할만한 아이들로 더 잘 호칭된다. 특히 범죄에 있어서 10대의 폭력과 비행은 견잡을 수가 없다”(서울신문, 1989. 9. 28).

“아이들의 버프장머리 없는 애기는 뒤로 미뤄 둔다고 해도 큰일 난 것은 요즘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도 일상 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것을 처리할 줄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고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시내 복판에다 혼자 갖다 놓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집을 찾아 오는데까지 반나절이 넘도록 헤멜 것이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와서 엄마더러 돈을 치르라고 할게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할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거나와 신경을 쓰려고도 안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다. …… 몸만 커다랗지 살아가는 일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아무지게 처리할 줄 모르는 것이 요즘의 청소년들이다.”

“요즘 아이들은 한마디로 음식의 맛을 모른다. 더구나 음식의 맛과 함께 느끼는 정서나 기분에 대한 이해같은 것은 전혀 없다. 맛보다는 음식 먹는 장소의 분위기를 중요시 할 뿐이다. 그러니 냉수에 보리밥 말아서 굴비반찬해 먹는 전통적인 맛과 문화를 느낄 까닭이 없고, 어버이 세대가 애뜻하게

그리워하는 꿀비맛을 알 까닭이 없다. 설탕의 단맛과 조미료의 누린 맛이 아이들의 감각을 버려왔다. 그러나 정말로 버려진 것은 음식에 대한 감각이 아니다. 굶주림을 견디는 감각, 배고픔의 맛을 공유하는 문화적 감각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연민, 감사, 동정 같은 정서가 메달라 가는 것을 뜻한다.”

“어느 시대에서나 기성세대의 눈에는 젊은 세대가 점점 버릇이 없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지만 요즘의 청소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버릇이 없어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도대체 저들이 자랄동안 언제 어느 곳에서 좋은 버릇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

위의 몇 인용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김 인희 교수가 진단해 본 그 현장(경향신문, 1985. 4.3-7.3)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신문에서 ‘오늘의 청소년’이란 특집을 실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수·선수 등에 광적인 짝사랑”, “과정을 무시… 쉽게 좌절”, “권리엔 민감 의무는 소홀”, “공정보다 부정적인 사고 팽배”, “인스턴트 문화에 휩쓸려 메마른 정서”, “어릴 때부터 돈이 최고”, “참다운 우정이 없다”(대전일보, 1986, 8.5-12.30)등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정체를 말하고 있다. 극히 주관적이며 편견에 가까운 것 같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실재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느냐의 문제는 덮어 두고서라도 이 진영의 진단에 대해 다수의 어른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어른들의 또 다른 진영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의 문제의 반영일 따름이라고 반성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른들의 문화가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현존이나 문화를 판단할 수가 없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존을 판단하려 할 때 그것이 별로 사회적 현실로 의미있게 전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규정하고 제어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어른들과 그들의 문화에 본질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른들이 자기정당화를 위해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정형화된 패러다임을 동원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정 진홍 교수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 청소년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심포지움에서 이러한 정형화된 인식의 틀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 관한 한, 우리는 이처럼 정형화된 인식의 구조를 벗어나 본 일이 없다. 어쩌면 이 같은 사실은 두가지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른바 그 정답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도식으로 그런 내용의 정답을 쓰면서 청소년을 운위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크게 유리하게 기능하는 어떤 구조가 모든 시대의 어른 문화에 내재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후자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시키는가?’하는 실은 대단히 섬뜩한 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리에서의 청소년의 비인간화, 청소년을 사람으로 여기는 자리에서의 청소년들의 상상력의 조작, 그리고 그 두자리가 공히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빙자한 어른들의 자기정당화의 동기들이었다.”(한국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p.43.)

계속해서 그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문제로 어떻게 환원시키는지 설명한다.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비인간화는 어른 문화의 도덕적 실패를 변호하는 알리바이로 청소년을 거론할 때는 그 극에 이른다. 불가해한 현상이지만 어른 문화의 위기는 그것이 스스로 의식되는 계기에서 언제나 청소년 문화의 일그러짐을 문제로 제기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면, 청소년의 삶의 세계란 앞서 지적했듯이 어른 문화가 빚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 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우선해야 하고, 그것에서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가 현존하는 생태적 환경이 어른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문화의 위기에서 그 위기의 책임이 기묘한 의식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로 투사되면서 어른의 문화는 그 위기관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한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양심으로 자처하게 되고, 어떤 현실적인 비리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 윤리적 덕목의 실천자라고

하는 고상한 표지를 지니게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철저하게 희생양이 된다. 어른의 문화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은 인간 일 수가 없다.”(p.38).

이 두 진영의 어른들이, 전자는 기성세대의 고정된 눈으로 그리고 후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려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작 청소년 자신들은 그들만의 삶의 실재를 갖고 있다. 후자의 입장이 청소년들의 안경으로 청소년 세계를 보려 할지라도 성인들의 눈으로 청소년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보다 청소년들의 세계에 보다 더 접근할른지는 몰라도 청소년들의 패러다임(눈)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기본 가정 즉, 청소년들은 그 자신들만의 삶의 실재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른들의 삶과 청소년들의 삶의 차이를 세대차라는 말로 흔히 설명을 하면서 아직도 어른들의 생각이 옳고 청소년들은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선대지향적* 문화양태를 보인다. 바로 이 선대지향적 문화양태는 전자인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이드의 말대로 이제는 종래보다는 ‘훨씬 더’ 상상적이고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배려를 청소년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재화하여 미래를 요청하는 후대지향적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과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피부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문제의식과 사고태도를 살펴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해마다 대학입시철을 전후해서 온 국민들(성인)이 마음을 모아 걱정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교육실제의 대해서 청소년들 아니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위 성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온 나라의 지혜로운 석학들(이들은 정말로

*마카레트 미이드는 선대지향문화, 동대지향문화, 후대지향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옛 전통사회에서는 한 사회가 그 문화를 전승해 가기 위해서 선대지향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여러 문화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며, 적응하면서 후대지향문화로 향한다고 설명한다.

성인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인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준 ‘국민교육헌장’을 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는 커녕 어떻게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의 글(청소년들은 그것을 ‘고교교육헌장’이라 부른다)을 만들어낸 그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한단말인가?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약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적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며 능률적 적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복돋운다.

나의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하며 남의 성공이 나의 과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적하는 학생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정신에 투철한 입시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게 물려 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보아 즐기 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문학교육연구회, p.2)

청소년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소위 ‘고교교육헌장’은 결코 우스개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재 교육상황을 자조적으로 서술한 것같은 ‘고교교육헌장’은 타당함이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눈으로 본 우리의 교육 실체이다. ‘고교교육헌장’이 우스개가 아닌 우리의 교육실체라면 ‘국민교육헌장’이 우스개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본 우리 교육실체가 성인의 눈과 손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의 실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들의 얘기와 외침을 소중히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교교육헌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른들이 생각하고 울지워논 아이들에 익숙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이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 그들

의 눈이 또 가슴이 어른들 보다는 적어도 정직하다면 어른들은 자신의 눈과 생각을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이다.

다음에 인용할 몇몇 글은 청소년 자신들이 어른들에게 그들에 대해 알려주는 무크지인 「푸른나무」에서 뽑아 본 것이다.

1:2600

장 우 석

(고1)

“전체~차렷!”

교련선생님, 이름하여 X대장님의 신나는(?)구령소리. 허나, 움직이지 않는 병사들.

“죽여라, 죽여”

“차라리 군대엘 가지”

지친 병사들의 입에선 연발 불평이 쏟아지는데 무심한 우리들의 위대하신 선생님께선 뛰어와 위커발로 한 방 할 듯이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는구나.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두 시간의 훈련이 끝나는 시간.

“오늘 수고 많았다. 오늘은 집에 가서 잘 닦고, 푹 쉬어. 내일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학사님 시찰맞이 교련조회를 갖는 날이니 복장 단정히 하고 나오도록 한다. 그럼 헤어!”

‘헤쳐’ 얼마나 기다리던 소린지. 병사들은 단거리 선수보다도 더 빨리 수돗가로 뛴다. 아니, 날아간다. 50m 더 되어 보이는 생존을 위한 꼬리.

“어푸, 어푸~아, 시원해”

세수라기보다는 목욕을 하고 병사들은 교실로 들어간다. 하지만 또 진짜가 남아 있다.

“전부 책상 뒤로 밀어. 1번부터 20번 교실, 21번부터 40번 유리창, 41번부터 끝번 특별구역”

비, 대걸레, 손걸레, 주전자들 들고 또다시 노가다 하러 간다.

“우리가 공부하러 학교 왔냐, 일하러 왔냐”

예외없이 제군들의 불평은 튀어나온다. 열심히 먼지를 털어가며 교실 바닥을 쓸고 있는데,

“각 반 서기들은 시청각실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금 즉시 오기바란다”

내가 서기니까 하는 수 없이 불펜 한 자루 들고 그곳에 가니 존경하는 우

리 선생님 왈,

“우리 학교에 새마을회의 일지가 하나도 작성이 안되어 있다. 물론 회의를 안하니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의록을 여러분의 작문 실력을 십분 발휘해서 정성껏 꾸며보기 바란다.”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이상은 내가 직접 체험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다.

지엄하신 장학사님 몇 분의 시찰 땀에 한 달 전부터 2천6백여명의 힘없는 병사도 아니고 일꾼도 아닌 공부하는 학생들이 죽어라~고 일하는 현상이다. 뭣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깨끗해 보이는 것도 좋고 호홉 딱딱 맞는 교련사열도 보기 좋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좋은 학교의 이미지를 풍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것은 겨우 하루, 아니 반나절을 잘 보이려고 수십일을 혹사시키다니, 우리들만 죽어나는 거지 뭐.

그도 그렇고, 그렇게 획일적인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발 하나 틀리지 않고 팔 동작 하나 틀리지 않고 로봇트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결코 좋아보이지만은 않는다. 또 경례할 때는 ‘충·효’하고 목소리 높여 외친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나,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나는 장학사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또 든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못 보시고 가짜, 꾸며진 우리들의 모습만 보시니 말이다. 한마디로 속는 거지 뭐가. 따지고보면 장학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는 우리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장학시찰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다르고 ‘어’다른 세상

김 연 미

(중)

“이그, 이 바보야, 막 퍼주면 어떡하니?”하며 엄마의 손은 여지없이 내 머리로 직행했다. ‘내가 바보까? 정말로?’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웃기는 일을 당했다. 전번에 TV를 보고 있는데 벨이 울렸다. 나가보니가 어떤 아저씨가 쌀푸대를 등에 지고 자기는 불행한 이웃을 위해 쌀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갑자기 불쌍해지면서 나는 쌀 한바가지를 퍼서 그 아저씨께 드렸다. 밖에 갔다오던

엄마가 쌀을 주는 것을 보더니, 나를 바보라고 꿀밤을 때렸다. 의문이 간다. 내가 쌀을 준 것이 바보들이나 할 것일까?

또 한번은 학교에서 수재민을 돕는다고 쌀을 갖고 오란 적이 있었다. 라면 한 봉지 양의 쌀을 가져오라 했는데 엄마는 불쌍하다며 쌀을 비닐봉지로 가득 준 적이 있었다. 정말 엄마는 그들이 불쌍해서 일까? 아니면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일까? 진정 그들이 불쌍했다면 엄만 바보다. 불쌍해서 쌀을 내준 나에게 바보라 했으니, 엄마도 역시 바보일 수밖에 없다.

난 그 사건으로 이것이 세상이요, 사회라는 것을 배웠다. ‘아’와 ‘어’가 다른 세상, 사회……. 이중삼중의 인격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

이것이 어른이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만든 사회인 것이다. 개조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스승인 우리가 하는 것이다.

어깨의 짐이 하나 더 올랐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다. 왜냐 우리는 개조할 줄 아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자율’이라는 말

배 수 길

(고1)

민주주의 사회이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자율’이라는 낱말이 어수룩하게 들리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나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개인생활의 영역에서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누구나 말은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행동에서 오점을 남기게 마련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 꼬맹이들은 더욱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능력은 우리들이 모르는 어떤 범위 내에서 확정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어도 본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고능력을 꼭 때어놓느냐 아니면 풀어 해쳐서 무궁무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지고 있는 학원내의 자율화 문제이다.

지금 우리들의 실정은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끈기와 인내 결핍증에 걸려 있다. 그러나 누가 옆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며 어떻게 하라고 시키면 하나의 오점도 없이 잘 해나간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다. ‘태엽 감긴 인형들’이라고. 이런 인형들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때는 그 빛을 받으며 빛날지도 모르지만 그 빛이 다하고 나면 인형 처리장으로 폐기 처분되어버릴

지 모른다고.

우리들은 인형이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태엽을 감아주는 심부름꾼이다. 태엽 감긴 인형을 책상에 올려놓고 떨어지려고 하면 방향을 틀어주고,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태엽 감긴 것이 다 풀어지면 또 감아놓는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졸린 눈을 보면서도 새벽부터 깨우기 시작해 도시락 들려서 학교로 보내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무조건반사만 강요하신다.

무섭다! 그 심부름꾼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형들의 태엽은 누가 감아주나. 아무도 없다. 오직 나 자신 한 사람밖에는찬란했던 그때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하는데 힘이 없다.

“태엽을 감아줘! 엄마, 아침에 일찍 깨워줘!”

우리들은 언제나 가슴 졸이며 마음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한다. “하느님 제 몸에 감긴 태엽이 다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엽이 다 풀리면 꼭 다시 감아주세요”라고.

자율학습이 폐지된다, 보충수업이 폐지된다 하는 말만 나와도 겁을 먹는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시키지 못하는데”

“나는 누가 옆에서 지켜야만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있어야 자율학습이 되는데”

언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선배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있게, 창조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그 모든 말 중에서 어떤 것을 내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실령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들은 것을 실천하기란 어렵다. 그대로는 실천할지 모르지만 창조적인 능력을 상실하고마는 행동이 되어버리기가 일쑤다.

미래에 올, 아니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지 않는가. 나는 큰소리로 외쳐보고 싶다.

“청소년이여, 자율정신을 가져라!”

앞서 ‘고교교육현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위의 인용들은 한결같이 허위와 기만 그리고 위선에 가득찬 것 같은 성인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성인들이 가공할 10대로 그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 아이들은 위선의 어른들로 비웃는 것 같다.

청소년들의 성인들에 대한 불만은 여러가지 조사연구를 통해서도 보여지지

만 일본의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88년 1~6월에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국, 브라질등 세계 11개국의 18~24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족도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가정,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장래에 대한 전망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17.2%에 불과 1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가정, 학교, 일, 친구, 장래전망, 행복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수치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싱가포르(94.8%), 스웨덴(86.1%), 서독(74.2%) 등의 순이었다.

장래의 전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비판의 정도가 낙관의 정도(48.1%)보다 앞서는 유일한 나라도 나타났다. 이는 각 부분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국가들 예컨대, 중국(64.6%) 브라질(70.6%) 그리고 일본(63.9%)과 비교해 볼 때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의 불만족 정도(28.6%)가 11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불만의 이유로 일본, 미국, 서독 등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가정불화와 수입부족을 들었는데 비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이해 부족(39.5%)을 첫째로 들고 있다.

특히 세계각국의 젊은이들이 고민상담의 첫째상대로 어머니(50-60%)를 꼽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학교친구(61%)를 으뜸으로 들고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인용한 청소년들의 느낌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다.

다음의 표는 이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이 연구의 기본가정으로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인들의 삶의 세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그들만의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삶의 정황은 어른들이 빚은 사회이고 문화이며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어른들에 의해 태어난다. 생리적으로도 그러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세계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의 현존이 자리하는 생태적 정황이다. 그들은 그 한계 내에서 숨쉬고 행동하고 사색하며, 꿈을 키운다. 여기에

각부분 만족도

(단위%)

부분별 국가별	가정	학교	일	친구	사회	장래전망	행복
일 본	74.0	68.4	51.1	89.7	51.3	63.9	87.2
미 국	91.4	90.1	82.0	96.4	63.1	89.9	94.7
영 국	85.9	88.8	81.3	96.4	48.4	84.4	92.2
서 독	87.8	85.3	81.3	96.0	74.2	80.7	92.0
프랑스	93.1	77.6	80.3	95.1	36.3	74.6	94.1
스웨덴	97.0	94.6	80.8	98.6	86.1	91.5	94.3
호 주	90.3	84.8	82.3	97.4	63.5	82.4	96.9
싱가폴	96.0	94.2	87.1	97.0	94.8	83.8	93.6
한 국	70.8	63.5	69.1	90.0	17.2	48.1	72.7
중 국	75.1	40.9	59.2	48.8	55.6	64.6	73.3
브라질	92.0	79.6	90.1	94.6	22.0	70.6	91.1

(출처: 동아일보 89년 9월7일)

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 보는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성인들 간의 관심의 종류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관심의 영역(분야)을 이미 경험을 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이다. 생리적인 욕구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욕구의 측면에서 볼 때 어른과 아이의 질적으로 다른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예컨대, 어른들이 자신이 일터인 직장에서 겪는 회노애락을 아이들은 자신의 일터인 학업 생활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이 「성」적인 욕구를 기본적으로 느낀다면 아이들 또한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렬히 느끼는 것이다. 단지 차이라면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충족을 유예해야 하는 성실업자(?)을 일 뿐이다.

여기에서 잠시 청소년들의 이성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성의 문제는 사춘기를 지난 모든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실 사람의 일생가운데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사춘기

시기를 정점으로 하는 사춘기의 혼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 지는 근원은 「성」에 있다.

인류의 「성」은 생물학, 유전학적 의미에서 본능적 충동일 뿐만 아니라 환경, 경험, 학습에 의하여 획득된 인류학적 의미로서 객관적 존재이기도 하다. 성인들(부모)이 현재 청소년(사춘기를 넘어선)들의 「성」을 이해하자면 단순히 자신의 중학시대의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는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왜 중학교의 한 남자애와 성관계를 하였는가의 질문을 받은 국민학교 6학년 여자애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왜 안되나요?’라고 하며 천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한 남자애가 전화로 상담원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의 한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그의 유방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국민학교 여학생도 임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중학교에서 교도선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임신을 발견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애의 어머니도 이 애가 왜 요사히 몸이 뚱뚱해지는가 하고 수상쩍게 여기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로서의 본인은 성체험을 겪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임신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의 상태였다.

어떤 경찰서에서 ‘남녀혼숙’죄를 범한 한 여학생을 조사할 때 그 여학생이 한사코 대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엇이 나쁜가요? 어느 점이 순결하지 못나요? 우리들은 순결한 감정으로 서로 사랑하였을 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끄러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소위 탈선을 범한 위의 애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 있겠는가?

현대의 소년·소녀들은 성적 성숙이 앞당겨짐에 따라 생리상의 성충동과 이성에 대한 흥미가 어릴 때부터 강해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하기 때문에 현대의 소년과 소녀가 자신의 인격을 갖추는 시간은 예전의 아이들보다 매우 짧다. 그들은 자기의 「성」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시간도 없으며 침착하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의 정신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혼란하고 뒤숭숭한 마음을 지닌 채로 성품파의 세례와 조롱을 직접 겪는다. 그들은 사전에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몸으로 더듬어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어떤 준비상태도 없는 형편에서 「성」의 폭풍우에 팔려든 소년과 소녀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우선 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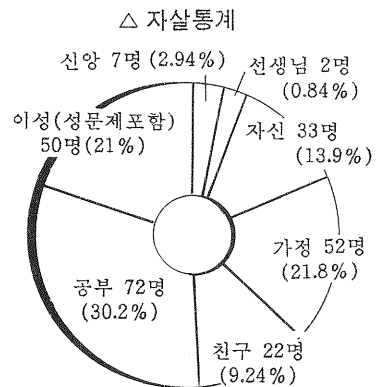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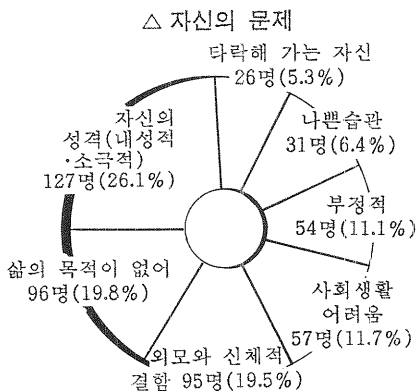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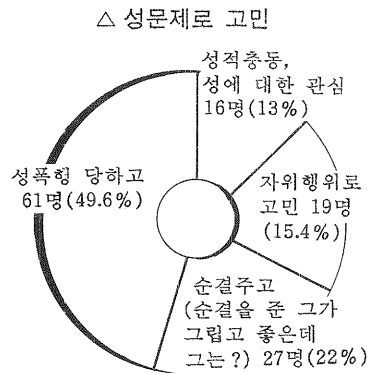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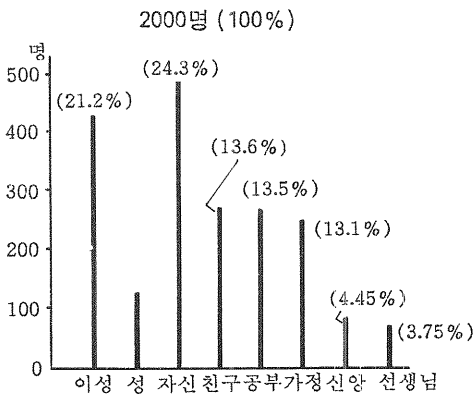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성충동이다.

유아기에 어린애들은 늘 성기관을 가지고 놀며 이성의 생식기를 엿보며 여자애의 치마를 쳐들거나 병원놀이 등의 유희를 한다. 이는 호기심에 의하여 촉발된 탐구행위이지 결코 성욕구의 충동으로 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년기에 들어서면 정형은 판이하게 달라져 그들은 능동적으로 성행위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중학교 시기에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초경이 오기 시작하며 임신하고 생육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들은 점차 남자애들에 대한 일종의 몽롱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며 아름답고 압전한 여자의 몸매를 갖추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다. 한편 남자애들은 대부분이 첫 사정에 의한 쾌감을 체험한다. 그들은 강렬한 성욕으로 충만되어 여자애들과 사귀고 여자애들의 몸과 접촉하기를 바라며 키스하고 포옹하며 심지어는 성교하기를 갈망한다. 이에 비해서 여자애들은 비록 남자애들에 대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지만 성욕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물론 이는 그들에게 성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사회윤리관의 구속을 받아 성욕이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도록 억제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성애에 대한 체험이 부단히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성의식은 점차 높아지며 생리상의 욕망도 움트기 시작한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남자애들의 성욕은 생리적인 면에서 보면 사정하려 하며 여자애에게 접촉하여 포옹하려 하고 성교하려 하는 등 강렬한 욕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성적욕구는 첫 유정이 나타난 5-6년 후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남자애들의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리상의 욕망은 10년 후에 가서야 다시 말해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결혼이후에 가서야 만족될 수 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성의 실업시대'를 경유하고 어떻게 북받치는 성욕을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난제이다.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 본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른들의 성적욕구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의 눈금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적 문제를 진단·평가·처방하려는 데에 있다. 이른바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어른들의 일방적인 시각일런지 모른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성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여러 인식들에 대해 신중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성충동이 억제되어야만 하는가라든지 그들의 자위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라든지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 등의 근본적인 인식상의 문제에 대해 아무 편견없이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교육신문, 90.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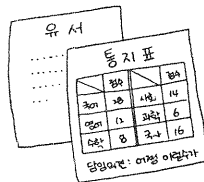
* 청소년 상담기관인 십대들의 쪽지 앞으로 전국에서 보내온 200통의 상담편지를 분석한 것임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겪고있는 여러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또는 그들의 고민에 관한 한 조사*에 의하면 학업생활(공부에 관한), 가정문제, 성격 등 자신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 그들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부문제, 가정문제, 성폭행을 포함한 이성문제에 대해선 높은 자살충동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24.3%)였으며 다음이 이성문제(21.2%)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편지 가운데 11.9%가 고민을 호소하면서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지적한다. 자살을 하고 싶어지는 원인으로는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부문제가 30.2%로 가장 높았고 가정문제(21.8%) 이성문제(21%) 자기신상문제(13.9%) 친구문제(9.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정불화, 공부압박, 이성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살충동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성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경우, 가정에서의 자녀지도의 문제나 학습과 진로의 문제에서도 어른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온 여러 문제들 예컨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가 또는 자녀의 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하는가 또는 자녀의 진로선택은 자녀의 권리인가 아니면 부모의 권리인가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또는 자녀의 성공은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등등의 문제를 어느 한편에 치우침에 없이 냉정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문교부가 최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의 중·고생 1백26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자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흘에 한 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한창 삶의 정열과 꿈에 부풀어야 할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극한 상황에 이른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무감을 느껴 자살하는 경우보다는 대학입시에 실패해서라든지 소값이 폭락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경쟁에 져서라든지 남보다 못하게 느껴져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성취동기가 너무 강한데 비해 사회구조적으로 이를 실현시켜 주는 사회응집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삼 영희,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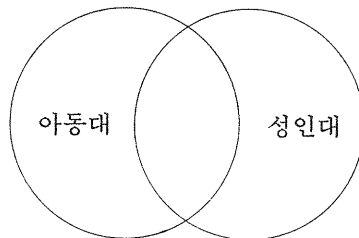


특히 청소년층에서 자살이 많은 것은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깊은 사고보다 행동을 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의 비인간화 현실에서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치열한 입

시경쟁 속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은 쉽게 자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자살을 문제해결의 최종수단으로 선택하는 청소년들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여자친구 생일선물 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목숨을 버리고 월말고사에서 컨닝을 하다 적발되어 “친구가 보기 미안하다”며 자살하며, 전교 2-3등을 하던 우등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며 목숨을 끊는 등 그들의 고뇌를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흔히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청소년기(특히 청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건너뛰는 데 있어서 커다란 긴장과 혼란이 일어나는 과도기로 규정하고 있다. 레빈(K.Lewin)은 청소년기는 실로 무인지대라고 주장하면서, 청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지마는 중복되는 역장(力場)이나 기대역(期待域)에 포함된다고 한다. 아동기의 역할은 구조화되어 있어,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도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는 애매한 시기이며 모호한 시기이다. 그들은 어떻게 위치해야 할 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때는 그들은 부모로부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가용 차를 시외로 몰고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꾸중을 듣고 또 자기 아버지 만큼 키가 크다는 말도 듣는다. 이와 같이 청년기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여 생각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민감하게 만들어 때로는 불안정해지거나 예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홀(G.S.Hall)역시 예측이 불가능한 청년의 행동특성을 지적하면서 10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병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들은 술없이 취해있



청년기의 심리학적 영역은 두 원이 겹쳐지는 암지대이다.

는 것 같은 상태에 있으며 격렬한 정신상태를 체험한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정상적인 청년기는 ‘열심’, ‘강한 흥미’, ‘열광’, ‘지적 호기심과 무감동’, ‘소극적’, ‘지적 무관심과의 교체’, ‘쾌락과 고통’, ‘도취적 행복감과 우울감 사이의 동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비하의 공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사교성과 고독성의 교체’, ‘섬세한 감수성으로부터의 냉정’, ‘냉혹’, ‘무자비애로의 변화’, ‘지식과 행위’, ‘감성의 우위와 지식의 우위 간의 동요’, 그리고 ‘현명과 우매’가 병존한다 (박 아청, 청년과 아이덴티티, p.43).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청년기 발달에 대한 현대적인 견해에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자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는 다음과 같이 청년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청년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며, 자기자신을 전세계의 중심, 흥미의 유일한 대상으로 이해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의 어떠한 시기에도 이때만큼 자기희생이나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그들은 가장 정열적인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애정관계를 시작할 때처럼 돌연히 당돌하게 그것을 끝내 버린다. 한편, 그들은 열광적으로 사회생활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에의 격렬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모든 권력에 대한 도전적 반항과의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그들은 자기본위이고 물질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이상주의에 충만되어 있다. 그들은 금욕적이면서도 가장 본능적인 방종으로 치달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행동은 때때로 조잡하고 사려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극히 신경과민이다. 그들의 기분은 안락한 낙관주의와 음울한 비관주의 사이를 방황한다. 때때로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성으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냉담하며 매우 침체 되기도 한다”(1936, pp. 149—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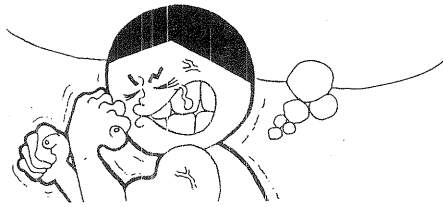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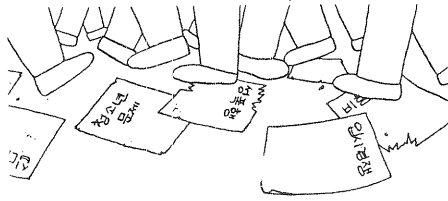
청년기의 이러한 혼란을, 청년의 정체성(identity)의 위기로 보고 그들의 최대의 과제를 정체성의 확립으로 생각하고 있는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유예(psycho-social moratorium)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릭슨은, 육

체적 성적으로는 성인인데도 이와는 상관없이 심리적 사회적으로는 어린이로 취급된다. 즉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성적으로 성숙해 있는데도 실제의 이성관계, 사회생활의 장면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심리학적 모라토리엄 시기야말로 청년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사회적 사상·가치관에 동일시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실험해 보는 것이 허용되어 이 시기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몸에 익힌 여러 가지 동일시를 다시 한번 취사선택하고 수정하여 성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청년들은 모라토리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겪는 고민은 이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에 대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왜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모라토리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이고 거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청소년들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의 구조속에 몰아 넣음으로써 성인들이 자기정당화를 위한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의 타당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 이 모라토리엄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인 성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이 모라토리엄 체제를 바꾸려 몸부림친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라토리엄을 결코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라토리엄의 신분을 부끄러워 하거나 고통 또는 부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고민 또는 딜레마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라토리엄의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청소년들의 고민의 근원은 앞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그들 자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조장해 온 어른들에게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민의 근본원인이 청소년들의 외적인 영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은 청소년들의 삶의 여러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문제들은 공부에 관련된 학업의 문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관련된 가정생활의 문제, 성에 관련된 이성문제 그리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나 친구문제 등으로 지적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 그들의 고민이나 딜레마의 주요 양태가 보여진다. 이는 심리학자 올포트(G. Allport)에 의해 지적되는 청소년들의 4가지 갈등영역과 서로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의 제1의 영역은 '지적 위기'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업(수업)이 잘 되지 않거나 특히 학업에서도 성적을 거의 유일한 인생의 척도로서 자기상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경쟁에서 실패한 경우가 생기면 그러한 경험은 결정적인 것으로 열등감을 갖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2의 영역은 '열등감'인데 위에서 언급한 지적 열등감 외에도 신체의 불리한 조건이나 매력적이지 못한 용모, 발달되지 못한 운동능력, 또 때때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죄악감·고독감 같은 열등감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제3의 영역은 종교적 위기 또는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관심, 자기자신 생활에의 관심집중에서 나타나는 위기이며 제4의 영역은 '성'과 가족관계를 둘러싼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관심영역(문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단순히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자!” 이말은 지금 사리에 밝은 애들의 공동의 외침이 되고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45점을 맞은 학생은 사람측에도 못긴다는 말입니까? 그래 70점을 맞아야 합격된 사람입니까? 70점을 맞은 학생가운데도 몰인정하게 제 마음대로 하는 학생이 있지요. 그리고 45점을 맞은 학생 가운데도 동정심이 많은 좋은 학생이 있지요. 그러므로 점수는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제발 점수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점수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시험전쟁을 우리는 더 없이 미워합니다!”

실제 사실도 그러하다. 지금의 부모와 교사들은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시험이나 진학뿐 아니라 전반 사회구조도 점수에 편중하고 있다. 마음이 순결한 애들은 이런 처사로 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정상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데 성인들 특히 부모와 교사들은 이 문제를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애들은 때로 멸시의 눈길로 다른 일부 학생들을 대하면서 “저자식은 책만 파고든다”, “책만 파고드는 학생은 제일 꼴보기 싫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학생들이 미련하게 공부만 한다고 여기고 있다. 물론 교사는 ‘책만 파고드는’ 학생들을 멸시하는 일부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의 학업성적이 낮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배워도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의 애들은 주위의 사물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빠르다. 그들은 늘 자기의 견해를 여러 친구들의 견해와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절대로 많은 애들이 싫어하는 책벌레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하여 휴식시간에 수학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생각 했다가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책벌레라고 놀려대면 야단이야, 집에가서 하는 것이 낫지!”라고 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놀러 나간다. 그들은 다른 애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자기도 남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책을 읽거



나 예습하는 애들을 보곤 “저 자식은 정말 책벌레야!”라고 비웃어 댄다.

이상의 애들의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실상 일부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따내려 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책벌레라는 모자를 씌워 놓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에선 공부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애써 공부하는 학생들을 ‘책벌레’라고 비웃어대며 질투한다. 사실 특별히 머리 좋은 학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성적을 따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노력하지 않으며 또 힘을 들여도 헛수고여서 성적이 올라갈 수 없다고 여긴다. 이런 학생들은 남을 비웃는 말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보기만 하면 ‘책벌레’라고 놀려준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습성적이 좋으면서도 남들을 ‘책벌레’라고 놀려주면서 휴식시간이 돌아오기만 하면 짐짓 떠들며 놀거나 학생들 앞에서 자기는 어제 저녁에 4시간 동안이나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책을 보지 못했다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중학생인 김군은 자기의 작문에 이렇게 썼다.

“시험자체는 일종의 경쟁이다. 만일 내가 합격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낙방

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합격되었다면 내가 낙방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컨대 여러 사람들이 다 노력하여 서로 도우면서 모두 합격되어야 한다고 한 선생님의 말은 거짓말이다. 가령 여럿이 다 노력하여 서로 배우고 도와주어도 나중에는 모두 합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선생님의 말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모두 찬성하였고 나 자신도 손을 들었지만 내심으로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진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들의 ‘포리부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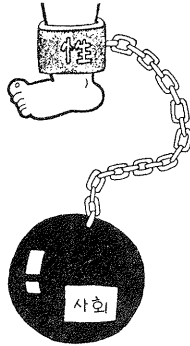
애들은 학교에서 모두들 교사의 관심을 받기를 바란다. 교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구를 갖고 있다. 그들은 교사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차별없이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문에서도 그들은 이런 요구를 갖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였기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기에게 질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자신있는 눈길로 교사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고대한다. 이와는 달리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에게 질문이 올까봐 긴장해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하고 속궁리를 한다. 그들은 애써 교사의 시선을 피하면서 황황한 심정으로 주위 학생들의 공책을 훑쳐 본다. 이런 때면 그들은 교사의 질문을 싫어하면서 속으로 “제발 나를 짚지 말아주세요”라고 빌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머리를 떨구고 잠자코 앉아 있다. 이 때 만약 교사가 그의 앞에 앉은 학생에게 질문하면 그는 한숨을 돌리는데 그러다가도 또 “다음번엔 나의 차례가 아닐까?”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가 그를 스쳐지나 그의 뒤에 앉은 학생에게 질문하게 되면 그는 무슨 영문인지 얼떨떨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아, 별일이다. 왜 나를 스쳐지나 버릴까? 선생님이 저너석은 어쨌든 모르니깐 질문해도 쓸데없다고 여긴게 틀림없어. 흥! 이것은 나를 깔보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이 나는 모른다고 짐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이리하여 그의 원래의 생각은 갑자기 변화된다.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워 하면서도 자기를 스쳐지나 버리지 말 것을 바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실한 심리상태이다.

흔히 성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실제 표현간의 모순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할 수 있다.

그러나 애들은 (예컨대 중학생정도) 흔히 마음속의 생각과 실제 표현을 혼동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어느 것이 마음속의 생각이고 어느 것이 본의가 아닌가를 가리지를 못하여 늘 애매한 기분속에 쌓여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늘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일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때 만일 다른 사람의 태도가 매우 완강하면 우선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거나 “원래는 이런 일이었구나”하고 말한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말하며 자기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사물을 판단 할 수 없어 정확한 결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나 부모에 대해서는 흔히 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만일 교사나 부모의 엄한 훈계를 받으면 그들은 그에 맞서면서 부모와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일 교사가 마음씨가 고와서 그들에 대해 방임하게 되면 그들은 또 “교사라면 그래도 좀 엄하게 대하는 것이 좋지. 저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 너무나도 무심한데 책임감이 없어”라고 흉을 보면서 좀 엄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입으로는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교사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애들의 집은 찾아가면서 왜 우리 집만은 찾아오지 않는거야? 저 선생님은 ‘이 애는 제멋대로 내버려두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편한 생각을 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 역시 생리적 및 심리적으로 어려운 체험을 통해 극복해야만 한다. 성인 남녀들에 있어서는 일단 ‘사랑’의 감정이 싹트면 필연적으로 성문제가 관련이 된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간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한편으로는 남성이 최대한의 성자유를 누리었으나 다른 한편에서 여성은 도리어 각종 제한을 받았다. 여성은 결혼전에 반드시 처녀의 정조를 보존해야 했고 결혼후에는 남편외의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만들어 내지 말아야 했는바 그것을 어겼을 땐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회 배경에서 소년과 소녀의 가슴속에 싹튼 사랑의 씨앗은 일종의 탈선행위로 인정받았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금지당하였다. 남녀간의 연애를 극단적으로 금지시킨 이러한 사회적 상황 특히 성행위를 금지시킨 사회적 상황은 최근에 와서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사랑’과 ‘성’을 어떻게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특히 청소년들이 ‘사랑’과 ‘성’에 대해 어떻게 정확히 대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줄 사람이 없다시피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적령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아픈 일이 되고 있다. 이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사회와 가정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이성교제에 대하여 거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런 면에서의 체험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여야 애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그들의 성행위를 정확히 평가하겠는가와 문제에 대하여 즉, 어떤 것은 승인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생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성'의 도덕규준에서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오늘의 사회에서 어떤 때에만 성행위를 허용하는가? '사랑'이 없이도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성도덕의 이중성'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여성은 결혼전에 자신의 정조를 보존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 남성에게는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지난 날에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였었다. 이에 따르면 남녀의 성도덕 규범은 각기 다르며 서로 모순되는 체계를 갖는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남녀동등권의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를 통일시킬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날에는 어떤 때에 성행위를 했을 때 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사회규범의 측면에서 모든 미

혼 남녀는 성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가? 미혼 남녀의 남녀평등사상의 전제밑에 발생한 성행위는 사회의 광범한 이해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이다.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두 '사랑하기만 한다면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견해에 대해 무책임하게 긍정해 준다면 그것은 위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비록 자신의 생각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나 흔히 '사랑'과 '성 충동'을 한데 뒤섞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감각기관의 자극을 추구하여 발생하는 성행위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청소년들은 흔히 그들의 주관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짝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어른들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으로 이런 아이들을 가늠해 보고 있으며 일단 연애하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면서 "지금 연애하는 것은 너무 때가 이르다!"고 꾸짖는다. 사실 이는 완전히 필요없는 일이다. 그 어떤 애들이든지 다 자기의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풍파를 겪어보려 한다. 그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이제 곧 성인으로 될 정신적 준비를 시작한다. 이런 사랑의 체험은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어른들은 한사코 이를 금지시키면서 아이들을 억지로 책더미 속에 꽂아 앉힌다. 이는 어른들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의 체험에 대하여 성인들은 긍정해 주고 승인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에 대하여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하겠는가? 성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덕의 이중성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많은 청소년들이 '남녀쌍방이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경우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성행위에 대해 강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무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성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공공연히 위반한다. 이들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 사회 도덕규준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사회에 대하여 반항의 태도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해 일종의 비판적 태도를 갖는다. 이는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자연적인 하나의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 그들의 자아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하며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기 희망한다. 일단 이런 희망이 수포로 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가 강렬한 반항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이기만하면 자연히 범죄성을 띤 소집단을 이루게 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사회의 각종 규칙, 규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자아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심리적 반항은 때론 범죄행위를 직접 초래하며 어떤 소년과 소녀는 소위 불량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성의 사회적 규준을 위반한다.

둘째로 청소년들이 어떤 원인으로 조심하지 않아 성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른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범으로 충만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미혼여성이 일단 정조를 잃으면 낮을 들고 공개적 장소에 나서지 못한다. 부모들은 늘 극단적인 이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자식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확실히 애들의 실책을 감소시킬지는 몰라도 흔히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이미 잘못을 저지른 이상 그에게는 더이상 개선할 기회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덕의 이중성으로부터 비롯한다.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난하며 죄악감을 가진다. 가장 이상적인 인식이라면 성에 대한 도덕관념의 형성에서 성과 사랑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위에서 논의한 성의 도덕규준의 이중성 및 사랑과 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성적 딜레마(고민)의 체험을 갖는다. 예컨대 청소년들은 성장발육 단계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홀모하며 짝사랑에 빠질 수 있으며 성에 대해 번뇌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성이 나를 사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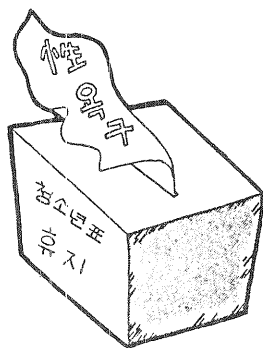
“이성이 나에게 매력이 있다고 느낄까?”

“내가 이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성과 성행위를 할 때 나의 성기능은 정상일까?”

이런 불안과 욕망을 해결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기

가 성인이 되어 사랑이 성숙된 후에 이성과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욕이 불같은 청소년은 그 대부분이 성장발육 단계에서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시기에 자기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일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서 잠시 집단강간사건의 일반적인 정황을 분석해 보자. 만일 청소년의 신체발육이 정상이면 중학교 시절에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 그 행위시 자기가 흥미하는 대상의 사진을 보거나 그를 머리속에 그려본다. 그러면서 점차 “현실의 여성과 직접 이런 재미를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러한 때의 느낌과 심정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들은 점차 ‘시험’해 보려는 욕망을 지닌다. 그런데 혼자서는 용기도 없거니와 알맞는 대상도 찾을 수가 없다. 이때 만일 성체험을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여자친구를 통하여 한 여성을 꺾어온다고 제의하면 여러 사람은 필연코 동감을 갖고 호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강간은 단지 성의 체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감정적 색채를 띤 성교류는 절대 아니다. 그들은 여성존재가 있어 성행위를 할 수 있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의 인격은 전혀 무시한다. 그들은 이성을 성욕을 채움에 있어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럿이 집단적으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되어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여자애들도 고뇌와 불안을 느낀다. 예컨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갖고있는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정상적인 성적 생리기능을 갖고 있는가? 등등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 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수록 그들은 성체험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만일 자기의 성 윤리 도덕관념과 모순되지 않거나 임신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녀들은 경솔히 몸을 내맡기고 성체험을 한다.

상술한 청소년의 성문제는 성체험을 둘러싸고 전개한 것이다. 청년기의 성 문제는 또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지니고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다. 10대의 청소년은 사실 자기의 능력과 어울리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여야 한다. 이 목표는 반드시 생애 전반에 걸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예컨대, 꼭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학습에 흥미가 없고 학습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목표를 잃고 있다. 일단 학교에서 계속 배울 수 없다면 그들은 장래의 희망에 넘치는 길을 개척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부모도 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좌절은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위기를 잠복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대리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 정신상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한다. 예컨대, 불량서클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복용하는 등 현실은 도피하면서 되는대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자기처럼 '인생의 목표를 잃은' 반려를 찾는 것으로 자기가 결코 고독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실증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계속 타락의 길로 나아간다.

불순한 이성과의 교제가 초기에는 성체험을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을 지라도 일단 깊이 빠지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그들이 진학에 대하여 절망을 느낄 때면 한 곳에 모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루는 동시에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성행위를 통하여 현실사회와의 충돌을 피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늘 이와같이 아무런 목표없이 생활해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에서 인생의 길을 선택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성체험'이거나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청소년기의 심신의 발달과 밀접하게 상관된 위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겪는 딜레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논의해 보았다. 이

의 근본적인 원인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모라토리엄으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어 있는데도 정신적인 측면인 사회·심리적 장에서는 한 인간으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라토리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 즉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심리적 경험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성인들 또는 사회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그 구조속으로 몰아넣는가. 또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모라토리엄의 구조 자체는 무엇인가등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다.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류학자 마가레트 미드의 "어른들은 어린애들과 젊은이들에게 매일 성적자극을 받게 하지만 일단 애들이 조심하지 않아 오류를 범하면 마음대로 징벌을 가한다"는 지적에서처럼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3. 어른과 청소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그 속에서 겪는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고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보는 인식에 따라 달리 설명이 된다. 예컨대, “요즘 젊은 애들은”하고 시작하는 한 진영의 성인들은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세대차의 관점에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독립적이고 이분적인 관계로서 두 집단(세대)간의 갈등을 설명하려 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청소년들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그들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결핍된 지식,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길러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연구도 많이 되었고, 실천도 많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 진영의 성인들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어른의 문제로 환원하여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부모 또는 문제사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들의 생각에는 청소년의 문제는 문제가정과 문제부모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하나의 증상과 같은 것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들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부모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3의 세력을 간과 할 수 없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 자신들의 입장이다. 그들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선하고 예리한 눈으로 성인사회의 위선, 기만, 허위 등

지금까지 어른들이 찾지 못하였던 문제의 또 다른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은 심지어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며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가르칠 것이다”라는 마가레트 미드 여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른들에게 “숨통 좀 열어 달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목줄기를 팍쥐고 있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절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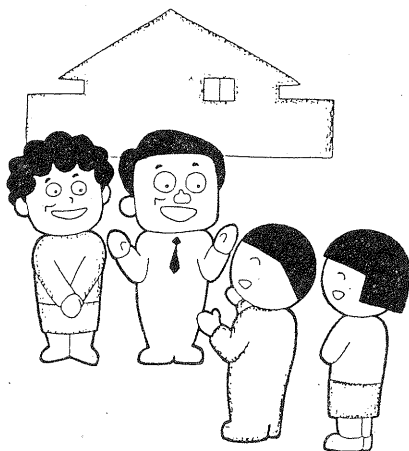
정말로 청소년과 어른 또는 10대와 부모는 또 다른 경쟁관계 아니 적대관계로서 상대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이나 견해 차이는 ‘부모의 관심’ 대 ‘자녀들의 요구’로 또는 ‘부모의 염려’ 대 ‘자녀들의 감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 보자. 14살의 애를 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행복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 뜻과는 반대의 말을 한다. “어머니는 내 행복에 대해서 더이상 말을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어머니가 내 일생을 망치려 한다니까. 어머니의 안달과 노파심이 날 미치게 해요”. 또한 열여덟살의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난 그애가 시시껄렁한 대학에 다닌다는 건 생각만 해도 복통이 터져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아 마음도 놓이지 않고… 더우기 그애는 내 외동딸인데”. 그러나 그 애는 어머니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신단 말이야. 내 대신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야. 글썄 우리 어머니는 비오는 날 내 옆에서 나에게 우산을 받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빗물에 녹아날 것으로 생각하시는가봐. 제발 간섭 좀 안해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부모들의 관심’ 대 ‘자녀들의 요구’는 ‘부모들의 염려’ 대 ‘자녀들의 감정’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걱정하려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10대의 자녀들에게 온 편지를 몰래 읽어보고 전화를 걸 때도 숨어서 엿듣는다. 부모들의 이러한 침해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울분만 자아내게 할 뿐이다. 어떤 소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배임행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글썄 책상 서랍을 열어 보고 일기장을 훑쳐 보거든요”. 열 여섯살의 어느 소년은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실토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아주 무시해요.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의 인권을 짓밟아요.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오시어 나의 서랍을 멋대로 손대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제발 어머니는 어머니 방이나 멋대로 하시고 내방은 그대로 나에게 맡겨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머니가 마음대로 손 댄 책상을 고의적으로 뒤집어 엎지만 어머니는 느끼는 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듯이 정말로 청소년과 성인들의 관계는 서로 부정하고 비웃는 소위 성인들의 ‘국민교육헌장’ 대 청소년들의 ‘고교교육헌장’의 관계인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특히 가정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부모는 출생후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람이다. 부모는 인간의 초기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촉진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모이상으로 밀착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다. 부모는 개인의 경험내용과 성격형태를 크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위세도 상당한 정도 부모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신의 운명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자녀 또한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 만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못다 이룬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대리자이다. 그들은 부모의 한정된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주는 자신의 분신이다. 결국 부모는 자녀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부모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어느 한 편에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데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문제를 어느 한 원인(예컨대, 청소년 자신에서나 또는 부모 자신으로부터 찾으려 하는)과 결과의 인식으로 보려는 것은 사회의 모든 현상을 유일한 실재로 환원하여 파악하려는 환원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비유컨대 이러한 접근방법은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파악하려는 화학분해와 다를 바 없다. 물을 분해하여 추출한 산소와 수소는 그 어느 요소도 물자체의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끄게하는 물의 성질을 알아내려 할 때 그 요소인 수소와 산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를 가장 작은 성분으로 쪼개어 파악하려 해왔던 지금까지의 성인들의 입장은 바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서는 그런 접근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총체적인 시각이란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부분의 합이상의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청소년 문제는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이 기존의 원인-결과의 시각과 어떻게 다른지 잠시 살펴보자:

“인간은, 인간이외의 다른 연구대상들이 이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인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어떤 가치를 가지며 그들의 행위는 여러 계획, 가치, 목적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그에게 의미로운 세계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의 관점에서는 인간행동이 자연의 대상이 이

해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법칙이 있으며 한 행위는, 그것이 어떤 법칙하에서 가정될 때만, 설명된다. 물론 그러한 법칙들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다”(strike, 1972, p. 28).

이 설명에서 보여주듯이 결국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행위에 내재된 의미의 중요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행동의 통합성이란 측면에서 도이취(Deutscher) 역시 인간행동이란 어떤 분리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행동이 어떤 분리된 변인에 의해 결코 설명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러한 변인들의 어떠한 집합들도 부가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의 복잡한 수학적인 설명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Deutscher, 1970, p. 33).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발달적이라면 그 구체적인 장은 어디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 학교, 사회 등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성세대는 부모와 학교의 교사 또는 사회의 어른들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정에 초점을 두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흔히 가정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작용을 발휘한다면 불량한 청소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은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그들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를 심신이 건전한 애들로 키우고 원만히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는 안정되고 그 역할을 훌륭히 발휘할 수 있는 가정을 꾸며야 한다.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부부이다. 부부관계, 즉 부모들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전체 가족성원들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 부모들이 자주 다투고 갈등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어린이들의 정서도 안정될 수 없다. 경험많은 국민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자기학급의 어린이들의 기색만 보아도

전날 저녁에 그들의 부모들이 다투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부모들의 다툼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모들의 불화로 가정의 파피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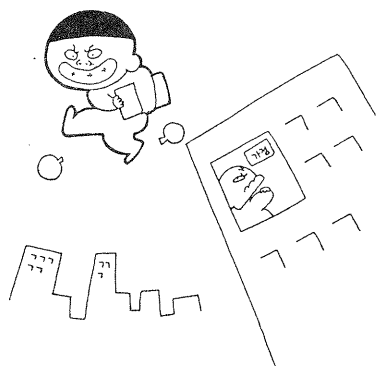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들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요 관심은 성인과 청소년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구분하여 생각해 보자.

어머니의 직책가운데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상 생활에서 어머니들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이에게 어릴 적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늘 알려준다. 예컨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가 손을 대지 않도록 난로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달려가면 엄하게 질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구나 욕을 먹고 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 그러므로 칭찬과 책망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어머니가 판단한다. 어머니의 교육이 효과를 보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교육을 하는 어머니와 그것을 받는 어린이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맺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평소 자기를 몹시 귀여워하는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애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청소년기에 들어서 자립적인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이러한 교육을 할 때 늘 일관된 태도로 아이들과 접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때론 어리광스럽게 대하고 때론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전적으로 그날 그날의 기분 따라 애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한다면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흔히 우리는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관련시켜 행동하려는 경향 즉 남들과 비교하는 초조한 심정을

어머니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진하고 성가시게 굴지 않는 아이라야 좋은 아이로 보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자주·자립을 자식을 교육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결과 우리와 미국의 아이들의 문화적인 양태가 확연히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큰 것으로 바꾸었는데 우리 집에서도 바꾸어야 한다면 우리 아이와 한 학급에서 공부하던 아무개가 모 학원에 가자 학업성적이 대뜸 올라갔다. 우리집 아이도 그 학원에 넣어야겠다는 같은 것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어머니들의 염원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염원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경솔하고 초조한 심정인 것이다.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장점(예컨대, 교육열)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장점으로만 볼 수 없다. 만일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이에게 남보다 뒤지지 말 것을 강렬히 요구한다면 이는 아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에게도 큰 압력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의 중요한 직책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일지라도 아이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에 이르러서는 대담하게 풀어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태도는 자녀의 자립을 방해한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의 태도는 어린이 때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기에 이르러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 자립해야 할 때에도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자립

의 책임을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지나치게 보호를 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어릴적 부터 자기의 뜻대로 한적이 없고 자신의 노력을 들이지 않은 어린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약점을 보인다. 친구를 사귀는 시기에 가정, 이웃,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형적이고 대등한 인간 관계를 배울 수 있다. 나이 비슷한 애들끼리 때론 싸우다가 좋아하고 때론 배척당하다가 합작하기도 한다. 사실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과 사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중학교 시기에 이르면 새로운 지적 발달단계에 들어서 성인과 비슷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행하기 시작한다. 이 때의 아이들은 어머니를 포함한 어른들의 언행을 비판하게 되며 어떤 원칙에만 의지하여 일부 사물을 철저히 뒤엎으려 한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논리가 극단적이고 과격하다. 어린이들이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특유의 주관적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아동기의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생리·정서 상태가 2차 성장 출현으로 정서적 불안이 초래된다. 이 때의 그들은 자기에 대해 엄격한 동시에 마음이 맞던 부모에 대해서도 사정없이 비난한다. 전에는 무슨 말이든지 다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말을 앓고 이야기 장소를 피하며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틀어 박혀 있는 일이 자주 있게 된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돌연한 비정상적인 표현에 대해 어리둥절해 한다. 어머니들은 이전처럼 아이들에게 무엇이나 터놓고 말하게 하고 싶어하나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 한다. 이러한 청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의 준비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들은 자기를 내세울 경우에 성인이나 현존사회에 대하여 반항하게 된다. 심지어 아이들도 “지금 우리는 반항기에 있기에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감정을 멋대로 터놓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정체의 위기에 그들은 번민과 딜레마를 경험한다. 그러나 번민을 버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즉 심리적으로 완전히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아이들 자신의 일인 것이다. 번민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에 부모는 그들에게 무슨 말이나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그들의 불안과 번뇌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제일 긴 사람은 어머니이

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자기의 고민을 우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 물론 고민의 내용에 따라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가가 다르다.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이 지도해야 하며 그들 자신도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어린이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에게 불행이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어린이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만일 어린이에게 “어머니는 무엇을 합니까?”하고 묻는다면 “밥을 짓고”, “물건을 사들이고”, “빨래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매일 살펴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린이는 “회사로 갑니다”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에서 무얼 합니까?”하고 묻는다면 어린이들은 근본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학생들도 이런 점에서는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이다. 만일 국민학생들에게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면 그들은 매우 개성있고 흥미있고 생동감있게 지을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어머니의 구체적 행위를 익숙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면 많은 애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건강에 주의 하십시오”등과 같이 독특성이 없이 쓸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일에 지쳐 기진맥진하여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휴일이면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어머니에게 멸시당하는 아버지, 일요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바람을 쏘이러 가겠다고 말하고서 토요일에 술에 만취되어 “오늘은 꼴이 아파서 가지 못하겠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아버지, 어머니와 다투면 늘 먼박당하고 마는 아버지이다. 이러한 아버지를 남성 어른의 모습 또는 어린이들이 따라 배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남성어른의 대표이다.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남성어른의

사고 방식, 감정 방식, 행위 방식 등을 잘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 만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그것과 같다면 애들에게 사고 방식, 감정 방식, 행동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남성 어른의 입장에서부터 명확히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아이를 꾸짖고 교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임무라고 인정하면서 아이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데 이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확실히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지만 마땅히 이야기하여야 할 일, 특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 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회에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나쁜 것’ 즉 ‘절대 허용되지 않는 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똑똑히 잘 이야기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형상이 단번에 변해 버린다. 어린이들이 ‘커서 아버지처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다. 흔히 제2반향기로서 표현되는 이 시기를 거쳐 아이들은 자아완성에 도달한다. 즉, 부모에 좌우되지 않는 자기 본연의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시기를 거쳐야 한다. 국민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기의 가치관으로 한다. 부모가 옳다고 하면 그도 옳다하고 부모가 틀렸다고 하면 그도 틀렸다고 한다. 그러나 소위 제2반향기 이후의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받아들인 가치관을 개조한다. 부모의 말에 대해 그들은 때론 의심하고 때론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인식을 찾는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해 반항하기 시작한다. 부모는 아이의 반항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반항하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되도록 회피한다. 특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는 입장에서기 쉽다.

불량한 소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엄한 체벌을 받은 경험이 많다. 특히 주정을 하고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더 많은 실패를 보인다. 부모는 버릇을 고치려고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지만 아이들이 순수히 받아들인다고는 할 수 없다. 누구나 아픈 것을 두려워 한다. 아이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다. 그리고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이에게 “폭력으로 자기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며’ 강압하고 나아가서는 체벌을 가하는 경우 아이의 반항심을 더욱 강해지게 하며 아이와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의 비위를 맞추어준다. 그들은 “너의 말이 완전히 옳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체제 내에서 너의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없다. 현실사회에서 네가 꼭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책임을 사회에 밀어버리고 정치제도 또는 교육제도에 밀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사회체제가 좋지 못하므로 아이의 말이 옳지만 실현될 수 없으니 참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창 정의감이 강할 때이므로 무엇이나 다 눈에 거슬려 보인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회체제가 좋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아버지는 옳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만일 나쁜 사회라면 개선하기에 힘써야 하지 않은가?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를 참으라고 하니 모순이다. 그는 거짓말을 하시며 나를 속이려 한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찌 들을 수 있는가!” 어찌면 아이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아버지는 아이의 신임을 잃을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위신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미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버지에게 대한 반항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아이의 의견에 대해 강제로 억누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줄 수도 없는 아버지는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아버지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좋은 것은 좋다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명확히 말해주어야 하며 근거있게 자식을 설득하여야 한다. 흔히 아이와 논쟁할 경우에 어머니들은 쉽게 감정을 보인다. 어머니가 감정에 사로 잡히면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감정에 사로 잡힐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논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과의 논쟁은 시종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자식으로 하여금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이로 하여금 충분히 해석하게 하여야 한다. 아이가 말할 때 꾸짖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만일 중간에 꾸짖거나 부정적인 의견

을 제기한다면 아이가 감정에 사로잡히고 논쟁은 빗나가 아무 의의도 없는 ‘말다툼’으로 변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선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가 논쟁에 익숙치 않아 중간에 화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아버지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재치있게 본 문제를 쫓아 논쟁을 이끌어야 한다. 아이와 논쟁을 하면서 논쟁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참을성있게 아이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자간의 의견에 모순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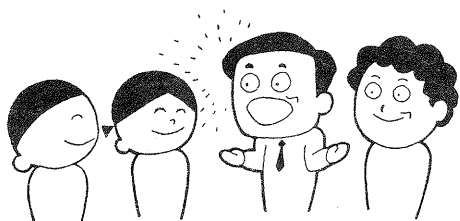
다음에 인용하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는 바람직한 논쟁의 예이다.

“나는 아버지와 장시간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성세대에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돈에 너무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 하고, 뇌물을 주고 받으며, 너무 아웅다웅 다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너는 세상을 바로 보았구나.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알았고. 너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겠지.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나 네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나도 천박한 말씨 시끄러운 음악, 음탕한 문학은 좋아 하지 않아. 물론 내 생활에도 모순이 많으니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절대적인 신조보다는 조금은 불확실한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꽃은 피어야 하는 것이고, 약은 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스위치를 넣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끄면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기성세대에 대한 너의 정당한 반박과 모든 것이 새로와져야 한다는 개혁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니까. 하지만 내가 할일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일이란다.’

나는 아버지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아버지에게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주의깊게 들으시고 명확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통하는 분이십니다”(하임 G.기너트, 부모와 청소년, pp.141-2).

결국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식과 참답게 논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참답게 논쟁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참다운 상호작용인 것이다. 청소년의 모든 문제를 성인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인식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도 성인과 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또는 상호작용의 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의 의미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어떤 현상을 ‘원인-결과’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이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있으며 그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이 상황과 맥락은 바로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특한 요구와 관심을 중시하며 그들의 삶의 ‘의미’, ‘결정’, ‘방향’ 및 ‘행위의 중요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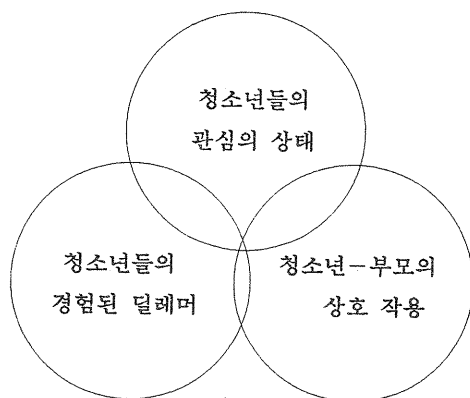
* 연구의 방법

청소년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청소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인식론의 문제로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인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의 부적합성을 인정하고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상정한다.

인간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으로서 사용되어 온 ‘원인-결과’의 관점은 청소년을 연구의 객체(대상)로 보며 가설-연역적 개념적 추상화를 연구설계의 시발점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흔히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으로 보며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이미 그 기본가정에서부터 오류를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관점을 제시한다. 총체적 관점이란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황(context), 특이성(idiosyncracies), 복합성(complexitie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등에 주안점을 두어 탐구에서 일반적인 ‘사실’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그것은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관한 일반화된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나 통찰(insight)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 이해를 위해 탐구될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그들이 경험한 딜레마」, 「청소년-부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탐구영역 추출을 위한 개념모형

앞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이 세 영역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5개로 구분되는 문제영역; 가족문제, 학습 및 진로문제, 이성 및 성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정신건강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5가지 영역들은 절대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영역이 추출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볼 때, 상기의 5개 영역들은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문제들을 대체로 포괄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설정된 영역과 그 설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영역	영역 설정의 배경
1) 가정교육 (부모역할 및 대화)	“문제아가 있기전에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은 그 구성원인 가족관계에 의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는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뢰와 사랑의 기반을 다져 주는데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대가족제도의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간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비교적 풍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가족-핵가족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신세대들은 폭넓은 대인관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부중심의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한계 안에서 자아를 형성해야 하므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족문제 영역에서는 부모의 역할 및 가족간의 대화(특히 청소년과 부모와의)에 초점을 맞춘다.
2) 진로·학습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의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은 상급학교에의 진학 특히 대학의 진학에 집중된다. 그러나 진로지도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또는 취업을 할 것인지를 고르는 선택의 지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이 진로지도의 현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자녀의 성적만 허용된다면 일차적 진로로서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이란 간판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의 정원, 자녀의 성적,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대학입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할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는 보다 폭넓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영역에서 진학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성문제	성교육에 대하여 지나치게 폐쇄적인 한국사회에서 각종 성정보가 매스컴을 타고 무분별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동반한 왜곡된 성 지식을 갖게되어 청소년 성문제를 사회적으로 유발시키고 청소년 자신들의 생활에 어두움과 고통을 남겨주며 특정한 소수에게는 치유가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성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때가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자녀들 쪽에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는 언급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풀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청소년연구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실제의 경험에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성교육이 이루어진 가정의 젊은이들은 첫경험을 뒤로 미루며 성이 금기로 되어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린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유해한 성정보의 홍수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성문제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의 주대상들인 이성교제, 성호기심, 성충동 등에 초점을 맞춘다.

4)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문제의 핵심인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적 일탈 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려깊게 살펴보면 결국 성인문제의 반영내지는 투사이다. 청소년의 현존앞에서 벌어지는 어른 문화의 행태 즉 퇴폐와 향락, 사치와 부정, 기만과 권모, 환상적 기대, 반지성적 광기는 청소년 문화의 본질이 아니라 어른 문화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문화의 위기에서 그 책임이 기묘하게도 청소년의 문제로 투사되면서 성인문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영역에서는 소위 청소년문제 예컨대, 음주, 흡연, 폭력 등과 같은 비행을 성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살펴보면서 그 예방 및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5)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을 전제로하는 개념이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이며, 또한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걸릴까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들을 원만히 대처하는 데에서 지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사회와 개인이 무시되는 고도 산업 사회에서 자아상실과 인간성상실의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부모의 과잉보호 및 무관심,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또는 체벌로서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교사, 청소년들이 겪는 소외감,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훼손케 하는 예이다.

조사도구 제작의 근거는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관점과 탐구영역 추출의 개념모형이었다.

앞서 추출된 5개영역에 따라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와 현장에서 청소년 관계업무를 다루는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5단계 반응의 형식으로 구성된 질문문항은 각 영역별로 서로 대비되는 두차원의 태도성향으로 구분된다.

아동중심 ← 가정문제 → 성인중심
수단적 ← 학습·진로 → 목적적
진보적 ← 성·이성교제 → 보수적
개방적 ← 문제행동 → 폐쇄적
허용적 ← 정신건강 → 억압적

조사대상을 위한 표집방법은 유층 무선표집(stratified simple random selection)이다.

부모의 청소년 인식조사 설문지 회수 상황

지 역	학 교	배 포 수	회 수 수	유 용 한 수	회 수 율
호 남	전남고	100	85	80	87.5
	동신여고	100	96	94	
	무진중	100	98	97	
	동명여중	100	81	79	
	소 계	400	360	350	
강 원	춘천고	50	49	43	89.0
	유봉여고	50	46	44	
	춘천중	50	49	47	
	유봉여중	50	45	44	
	소 계	200	189	178	
영 남	경북사대부고	50	48	47	92.5
	경북사대부고(여)	50	50	47	
	경북사대부중	50	47	44	
	경북사대부중(여)	50	50	47	
	소 계	200	195	185	
충 청	남 고	100	100	96	94.5
	여 고	100	100	97	
	두성중	100	98	92	
	여 중	100	96	93	
	소 계	400	394	378	
수 도 권	소명여고	100	85	82	67.7
	양화중	100	63	63	
	양화중(여)	100	70	69	
	인창고	100	58	57	
	소 계	400	276	271	
합 계		1600	1414	1362	85.1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으로 구분하고 각각 남·녀, 중학교·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한 한급씩 단순 무선표집방식으로 총 1,600명을 표집하였다. 이들 선정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시·도 청소년 관계관 및 교사들의
조력을 받았고, 질문지는 우송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SPSS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의
주요 변인은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및 인식정도이며, 분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적 방법은 빈도분포, χ^2 검증, 변량분석 등이다.

Ⅲ. 우리의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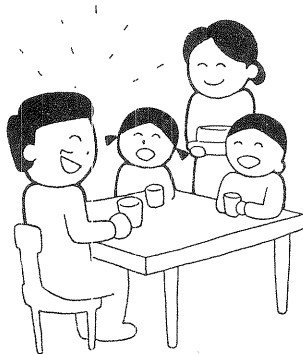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정도는 그들이 자녀에 쏟는 관심에 비례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다음의 15개 질문문항을 통해 그 관심의 정도를 알아 보려 하였다.

1. 자녀와 함께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자녀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3.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4. 자녀의 담임 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5. 자녀의 학급 석차를 알고 있습니까?
6.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7. 자녀의 교과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8. 자녀의 특기나 취미를 알고 있습니까?
9.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10. 자녀가 사용하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11. 자녀가 즐겨보는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12. 자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13. 자녀의 생일은 꼭 차려주는 편입니까?
14. 자녀를 위한 책(명작, 잡지, 만화 등)을 사다준 일이 있습니까?
15.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전반적인 인식정도

이 조사에서 물어본 15개 문항이 자녀들의 일상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을지라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나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략 짐작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부모의 1/3정도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높은 인식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높은 인식의 정도란 15개 질문 문항에서 10개이상의 문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전체를 30점으로 볼 때 20점 이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표Ⅲ-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362명의 응답자중 471명만이 높은 인식의 정도를 보인다. 그리고 471명의 상위 인식집단에서 329명(약 70%)이 여자들로서, 쉽게 짐작하듯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다 많은 시간과 대화를 갖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의 일상생활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표Ⅲ-1]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단위: %(명)
인식정도	하	3.8	96.2	11.7(159)	$\chi^2=156.25$ =0.0000
	중	10.0	90.0	53.7(732)	
	상	36.1	63.9	34.6(471)	
합	계	18.3	81.7	100	
(실	수)	(249)	(1,113)	(1362)	

[표Ⅲ-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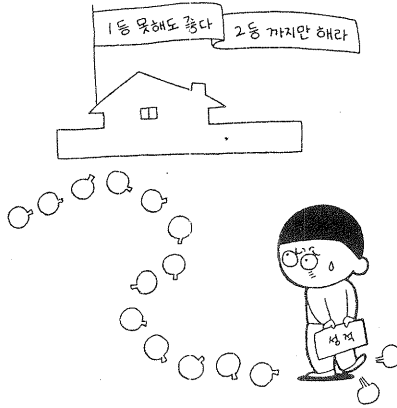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인식정도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통계값
여자	인식정도 하	1.1	98.9	10.2(90)	$\chi^2=110.78$ $=0.0000$
	중	7.5	92.5	52.5(464)	
	상	33.4	66.6	37.3(329)	
	합 계	16.5	83.5	100	
	(실 수)	(146)	(737)	(883)	
남자	인식정도 하	7.2	92.8	14.4(69)	$\chi^2=53.04$ $=0.0000$
	중	14.2	85.8	55.9(268)	
	상	42.3	57.7	29.6(142)	
	합 계	21.5	78.5	100	
	(실 수)	(103)	(376)	(479)	

2. 학교생활

거의 모든 학부모(96.1%)들이 자녀의 학업석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녀들의 교과지도 또는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서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그 중에서도 학생 상호간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석차'이었다.(성별의 통계값은 여자의 인식정도별, 남자의 인식정도별의 경우임)



[표Ⅲ-3] 자녀의 학급석차를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95.8	4.2	64.8(883)	$\chi^2=0.394$ $=0.5301$
	남 자	96.7	3.3	35.2(479)	$\chi^2=0.599$ $=0.4386$
연 령	35~39	95.8	4.2	14.0(191)	$\chi^2=11.69$
	40~44	96.8	3.2	40.7(554)	$=0.0198$
	45~49	97.5	2.5	29.2(398)	
	50~54	91.9	8.1	12.7(173)	
	55이상	93.5	6.5	3.4(46)	
학 력	중졸이하	93.0	7.0	35.9(489)	$\chi^2=19.50$
	고 졸	97.6	2.4	45.2(615)	$=0.0001$
	대졸이상	98.4	1.6	18.9(258)	
인식정도	하	85.5	14.5	11.7(159)	$\chi^2=64.59$
	중	96.0	4.0	53.7(732)	$=0.0000$
	상	99.8	0.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96.5	3.5	25.2(343)	$\chi^2=1.56$
	여 중	97.0	3.0	24.4(332)	$=0.6675$
	남 고	95.4	4.6	23.7(323)	
	여 고	95.6	4.4	26.7(364)	
합 계		96.1	3.9	100	
(실 수)		(1,309)	(53)	(1,362)	

그러나 자녀의 학업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녀의 교과지도의 경험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 60%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표Ⅲ-4]

자녀의 교과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38.4	61.6	64.8(883)
	남 자	45.1	54.9	35.2(479)
				$\chi^2=5.50$
				$=0.0190$
				$\chi^2=5.77$
				$=0.0162$
연 령	35~39	50.3	49.7	14.0(191)
	40~44	42.8	57.2	40.7(554)
	45~49	38.7	61.3	29.2(398)
	50~54	32.9	67.1	12.7(173)
	55이상	23.9	76.1	3.4(46)
				$\chi^2=18.56$
				$=0.0010$
학 력	중졸이하	26.0	74.0	35.9(489)
	고 졸	44.1	55.9	45.2(615)
	대졸이상	60.9	39.1	18.9(258)
인식정도	하	6.3	93.7	11.7(159)
	중	29.0	71.0	53.7(732)
	상	70.7	29.3	34.6(471)
				$\chi^2=295.32$
				$=0.0000$
대상학교	남 중	59.8	40.2	25.2(343)
	여 중	39.8	60.2	24.4(332)
	남 고	31.6	68.4	23.7(323)
	여 고	31.9	68.1	26.7(364)
				$\chi^2=74.65$
				$=0.0000$
합 계		40.7	59.3	100
(실 수)		(555)	(807)	(1,362)

[표Ⅲ-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교과지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지도 가능한 학습내용에 관계가 깊다고 볼 때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등에 관계있는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교과지도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의 자녀가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학교 이상의 내용을 지도하기에는 보다 높은 학력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수 이상의 부모(55.2%)들이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상의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34%의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보다는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

[표Ⅲ-5]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9.3	50.7	64.8(883)	$\chi^2=19.83$ =0.0000
	남 자	36.5	63.5	35.2(479)	$\chi^2=20.34$ =0.0000
연 령	35~39	41.9	58.1	14.0(191)	$\chi^2=21.31$
	40~44	50.4	49.6	40.7(554)	=0.0003
	45~49	44.7	55.3	29.2(398)	
	50~54	35.8	64.2	12.7(173)	
	55이상	23.9	76.1	3.4(46)	
학 력	중졸이하	33.1	66.9	35.9(489)	$\chi^2=44.92$
	고 졸	49.4	50.6	45.2(615)	=0.0000
	대졸이상	55.8	44.2	18.9(258)	
인식정도	하	8.8	91.2	11.7(159)	$\chi^2=263.91$
	중	34.6	65.4	53.7(732)	=0.0000
	상	72.8	27.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2.8	47.2	25.2(343)	$\chi^2=26.51$
	여 중	34.6	65.4	24.4(332)	=0.0000
	남 고	49.5	50.5	23.7(323)	
	여 고	42.3	57.7	26.7(364)	
합	계	44.8	55.2	100	
(실	수)	(610)	(752)	(1,362)	

[표Ⅲ-6]

자녀의 담임 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70.4	29.6	64.8(883)	$\chi^2=21.45$ =0.0000
	남 자	57.8	42.2	35.2(479)	$\chi^2=22.01$ =0.0000
연 령	35~39	70.2	29.8	14.0(191)	$\chi^2=10.27$
	40~44	68.4	31.6	40.7(554)	=0.0361
	45~49	65.3	34.7	29.2(398)	
	50~54	56.6	43.4	12.7(173)	
	55이상	60.9	39.1	3.4(46)	
학 력	중졸이하	56.2	43.8	35.9(489)	$\chi^2=32.45$
	고 졸	71.4	28.6	45.2(615)	=0.0000
	대졸이상	71.7	28.3	18.9(258)	
인식정도	하	22.6	77.4	11.7(159)	$\chi^2=248.20$
	중	60.9	39.1	53.7(732)	=0.0000
	상	88.5	11.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72.6	27.4	25.2(343)	$\chi^2=17.42$
	여 중	66.9	33.1	24.4(332)	=0.0006
	남 고	67.2	32.8	23.7(323)	
	여 고	58.0	42.0	26.7(364)	
합	계	66.0	34.0	100	
(실	수)	(899)	(463)	(1,362)	

을수록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보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43.5%의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고,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보다는 고등학교 자녀를 둔 4~50대의 부모가 30대의 부모보다, 학력이 낮은 부모가 학력이 높은 부모들보다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Ⅲ-7]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57.2	42.8	64.8(883)
				² =0.368
남 자		55.3	44.7	35.2(479)
				² =0.440
				=0.5067
연 령	35~39	66.5	33.5	14.0(191)
	40~44	62.3	37.7	40.7(554)
	45~49	52.5	47.5	29.2(398)
	50~54	41.6	58.4	12.7(173)
	55이상	37.0	63.0	3.4(46)
학 력	중졸이하	44.8	55.2	35.9(489)
	고 졸	62.3	37.7	45.2(615)
	대졸이상	65.1	34.9	18.9(258)
인식정도	하	10.1	89.9	11.7(159)
	중	47.3	52.7	53.7(732)
	상	86.6	13.4	34.6(471)
대상학교	남 중	76.4	23.6	25.2(343)
	여 중	63.9	36.1	24.4(332)
	남 고	40.9	59.1	23.7(323)
	여 고	45.1	54.9	26.7(364)
합 계		56.5	43.5	100
(실 수)		(770)	(592)	(1,362)

3. 가정생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흔히 ‘사랑의 매’로 정당화 되어 온 체벌은 사회적 합의가 확실치 않은 논쟁적인 문제이다. 체벌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점차 비판적인 입장에서 체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체벌의 대부분이 교사나 부모가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못해 즉흥적으로 가하는 폭력행위일 수 있고, 행동교정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한다.

서울대의 박 성수 교수는 우리 기성세대의 체벌에 대한 태도를 ‘체벌불가피론’, ‘체벌폐지론’ 그리고 ‘상황적 체벌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체벌불가피론’의 입장은 요즘 청소년들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체벌폐지론’은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려는 입장이고 ‘체벌상황론’은 교육적 상황과 내용에 따라 체벌을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으로 구분하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비행을 발견하는 즉시 질책이나 체벌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그 행동이 습관화되거나 아이들의 심리적 만족도가 증가된 뒤에야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자기행동의 결과 보다는 부모나 교사들이 태도변화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체벌의 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모들은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Ⅲ-8]에 나타난 것처럼, 72.5%의 부모들이 매를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 수록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표Ⅲ-8]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75.4	24.6	64.8(883)
	남 자	67.0	33.0	35.2(479)
				² =10.59 =0.0011
				² =11.00 =0.0009
연 령	35~39	83.8	16.2	14.0(191)
	40~44	75.1	24.9	40.7(554)
	45~49	70.9	29.1	29.2(398)
	50~54	60.7	39.3	12.7(173)
	55이상	52.2	47.8	3.4(46)
				² =36.17 =0.0000
학 력	중졸이하	71.4	28.6	35.9(489)
	고 졸	70.6	29.4	45.2(615)
	대졸이상	79.1	20.9	18.9(258)
				² =7.04 =0.0296
인식정도	하	39.0	61.0	11.7(159)
	중	70.5	29.5	53.7(732)
	상	86.8	13.2	34.6(471)
				² =139.46 =0.0000
대상학교	남 중	81.0	19.0	25.2(343)
	여 중	75.0	25.0	24.4(332)
	남 고	66.9	33.1	23.7(323)
	여 고	67.0	33.0	26.7(364)
				² =24.18 =0.0000
합 계		72.5	27.5	100
(실 수)		(987)	(375)	(1,362)

한편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이었다.

이 결과는 앞의 질문 즉 ‘체벌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음을 보인다. 예컨대, 부모-자녀간의 갈등에는 극단적으로 말해 체벌인가 아니면 상호 대화인가로 구분해 볼 경우 체벌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면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문항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보다 많은 ‘매’와 보다 적은 ‘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Ⅲ-9]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55.3	44.7	64.8(883)
	남 자	54.7	45.3	35.2(479)
				통계값
				$\chi^2=0.028$
				$=0.8851$
				$\chi^2=0.040$
				$=0.8403$
연 령	35~39	59.2	40.8	14.0(191)
	40~44	56.7	43.3	40.7(554)
	45~49	53.8	46.2	29.2(398)
	50~54	53.2	46.8	12.7(173)
	55이상	37.0	63.0	3.4(46)
학 력	중졸이하	50.1	49.9	35.9(489)
	고 졸	57.7	42.3	45.2(615)
	대졸이상	58.1	41.9	18.9(258)
인식정도	하	17.6	82.4	11.7(159)
	중	50.1	49.9	53.7(732)
	상	75.4	24.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7.1	42.9	25.2(343)
	여 중	51.5	48.5	24.4(332)
	남 고	59.4	40.6	23.7(323)
	여 고	52.5	47.5	26.7(364)
합 계		55.1	44.9	100
(실 수)		(750)	(612)	(1,362)

4. 취미·오락 및 적성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미나 오락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녀들의 취미나 특기 등은 적성의 일부로서 부모들이 잘 알고 함께 해 줄 때 보다 신장될 수 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어떤 오락을 즐기는지 또는 TV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지 또는 어떤 잡지책을 읽는지 등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아이들이 즐겨하는 전자오락 게임의 경우에 그것이 어떤 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주는지 부모들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



[표Ⅲ-10]

자녀와 함께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16.5	83.5	64.8(883)
				² =4.89
남 자		21.5	78.5	35.2(479)
				² =5.13
연 령	35~39	22.5	77.5	14.0(191)
	40~44	22.4	77.6	40.7(554)
	45~49	15.3	84.7	29.2(398)
	50~54	10.4	89.6	12.7(173)
	55이상	6.5	93.5	3.4(46)
학 력	중졸이하	9.2	90.8	35.9(489)
	고 졸	21.8	78.2	45.2(615)
	대졸이상	27.1	72.9	18.9(258)
인식정도	하	3.8	96.2	11.7(159)
	중	10.0	90.0	53.7(732)
	상	36.1	63.9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9.2	70.8	25.2(343)
	여 중	12.7	87.3	24.4(332)
	남 고	15.5	84.5	23.7(323)
	여 고	15.7	84.3	26.7(364)
합 계		18.3	81.7	100
(실 수)		(249)	(1,113)	(1,362)

다. 흔히 어린이 상담기관에 걸려오는 부모들의 상담전화 중 대부분이 “전자오락실에 다녀도 괜찮은지 아닌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전자오락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 좋은지 몰라 고민하고 있으나, 책보다 TV·비디오를 즐겨보며 자라는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세대보다 컴퓨터와 전자오락기에 친숙하고 관심도 많다는 것을 부모들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표Ⅲ-10]은 전자오락을 자녀와 함께 해 본 경험여부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앞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7%가 자녀들과 함께 즐겨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들이 즐겨 보는 잡지의 이름을 아는가”의 질문에는 34.7%만이 안다고 답하고 있고 65.3%가 모르고 있었다. 다음의 [표Ⅲ-11]은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가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낮은 인식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Ⅲ-11] 자녀가 즐겨보는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8.1	61.9	64.8(883)	$\chi^2=11.82$ =0.0006
	남 자	28.6	71.4	35.2(479)	$\chi^2=12.23$ =0.0005
연 령	35~39	35.6	64.4	14.0(191)	$\chi^2=36.64$
	40~44	42.1	57.9	40.7(554)	=0.0000
	45~49	32.4	67.6	29.2(398)	
	50~54	20.8	79.2	12.7(173)	
	55이상	15.2	84.8	3.4(46)	
학 력	중졸이하	21.3	78.7	35.9(489)	$\chi^2=62.92$
	고 졸	40.8	59.2	45.2(415)	=0.0000
	대졸이상	45.7	54.3	18.9(258)	
인식정도	하	3.8	96.2	11.7(159)	$\chi^2=400.44$
	중	19.0	81.0	53.7(732)	=0.0000
	상	69.6	30.4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0.4	49.6	25.2(343)	$\chi^2=60.02$
	여 중	33.7	66.3	24.4(332)	=0.0000
	남 고	22.6	77.4	23.7(323)	
	여 고	31.6	68.4	26.7(364)	
합 계		34.7	65.3	100	
(실 수)		(473)	(889)	(1,362)	

[표Ⅲ-12] 자녀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83.2	16.8	64.8(883)
				$\chi^2=0.59$ =0.4408
남 자		81.4	18.6	35.2(479)
				$\chi^2=0.71$ =0.3977
연 령	35~39	83.8	16.2	14.0(191)
	40~44	85.9	14.1	40.7(554)
	45~49	84.7	15.3	29.2(398)
	50~54	70.5	29.5	12.7(173)
	55이상	65.2	34.8	3.4(46)
학 력	중졸이하	74.0	26.0	35.9(489)
	고 졸	86.5	13.5	45.2(615)
	대졸이상	89.5	10.5	18.9(258)
인식정도	하	52.8	47.2	11.7(159)
	중	79.5	20.5	53.7(732)
	상	97.5	2.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87.2	12.8	25.2(343)
	여 중	84.6	15.4	24.4(332)
	남 고	76.2	23.8	23.7(323)
	여 고	82.1	17.9	26.7(364)
합 계		82.6	17.4	100
(실 수)		(1,125)	(237)	(1,362)

[표Ⅲ-13] 자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위: %(명)
		있 다	없 다	합계(실수)
성 별	여 자	66.4	33.6	64.8(883)
				$\chi^2=9.38$ =0.0022
남 자		57.8	42.2	35.2(479)
				$\chi^2=9.74$ =0.0018
연 령	35~39	71.2	28.8	14.0(191)
	40~44	65.9	34.1	40.7(554)
	45~49	60.1	39.9	29.2(398)
	50~54	57.2	42.8	12.7(173)
	55이상	52.2	47.8	3.4(46)
학 력	중졸이하	55.4	44.6	35.9(489)
	고 졸	69.3	30.7	45.2(615)
	대졸이상	64.3	35.7	18.9(258)
인식정도	하	23.3	76.7	11.7(159)
	중	58.7	41.3	53.7(732)
	상	84.1	15.9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0.3	39.7	25.2(343)
	여 중	64.2	35.8	24.4(332)
	남 고	62.2	37.8	23.7(323)
	여 고	66.5	33.5	26.7(364)
합 계		63.4	36.6	100
(실 수)		(863)	(499)	(1,362)

그러나 “자녀가 사용하는 참고서 이름을 아는가?”의 질문에는 56.5%의 부모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앞의 질문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롭다. 즉,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의 취미나 오락 보다는 학습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앞의 [표Ⅲ-12]는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자녀가 시청하는 TV의 시간량이나 그들이 즐겨듣는 음악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의 정도가 높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해 보자.

첫째로 조사대상 전체 부모들 중에서 1/3정도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로 조사대상 학부모의 거의 대부분이 자녀의 학업성취 정도(예컨대, 석차와 같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교과지도나 자녀문제(예컨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와 같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셋째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넷째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미나 오락같은 학업이외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결과는 흔히 짐작하고 있는 것들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닐지 모르나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학업생활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들 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이 자녀의 학업성취 그것도 상호경쟁관계의 지수인 ‘석차’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 교육실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절규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행복은 성적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반에서 15등까지만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에 출입할 권리를 갖고 우수 학생들끼리 모여 공부하며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사람이란 말인가요” 반에서 48등 정도라는 송모군의 항변이다. 대입 30%를 위해 70% 학생이 들러리서는 우리의 교육실제에서 청소년들이 ‘입시 전투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되어야 해”, “인간답게 살려면 책을 읽어야지. 소설도 보고 시도 쓰고 가끔은 음악도 감상할 줄 알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IV. 우리의 부모는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가정교육

오늘날의 청소년 부모들은 물론 대부분의 기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대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수가 많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자녀지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오늘날의 청소년 부모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자녀교육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2.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가?
3.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가?
5.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인가?
6.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하는가?
7.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가?
8.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한가?
9.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가?

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하는가?
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하는가?
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는가?
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하는가?

1.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려 한다.



한국가정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 안에서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특히 어머니)의 희생은 필수요인으로서 세습되어 대물림을 해오다시피 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성장과 외래문화의 폭발적인 유입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교사상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부모들은 부모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확실히 그렇다'가 33.2%로 가장 높고 '그런 것 같다'가 25.9%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가 18.2%, '확실히 희생할 필요가 없다'가 16.2%로 다른 질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9%의 부모들이 아직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으로 응답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라는 두 답항을 합친 결과 30대가 50%, 40대 전반이 58%, 40대 후반이 60%, 50대가 63%로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률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의식변화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60년대에만 해도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5.6명으로 네 자녀 가정이었으나 최근에는 4명으로 두자녀 가정으로 소가족이 정착되었고 7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짐에 따라 부모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다양해졌으며, 예전에는 의식주 등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자녀를 성장시키면 성공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보람을 느꼈던 중산층의 부모들은 삶의 질을 따지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도 접할 기회를 갖게되어 삶과 부모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이혼으로 인해 빚어진 자녀의 불행도 불사하는 현상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몰아적인 자기희생을 불사했던 지난날의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와 자신의 삶을 독립적인 두개의 삶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의 부모들이 아직도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좀 더 한 단계를 높인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보상을 기대하는 희생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병용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양육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표 IV-1]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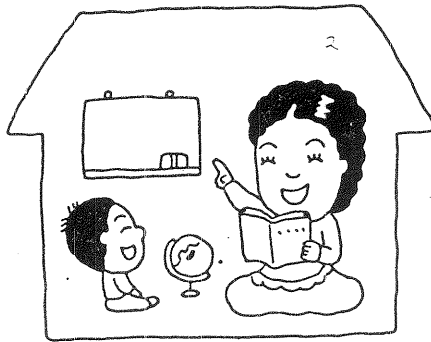
(평균:2.58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4.8	24.5	6.3	18.8	15.6	64.8(883)	$x^2=4.99$
	남 자	30.3	28.6	6.9	17.1	17.1	35.2(479)	$p=0.2877$
연 령	35-39	29.2	24.1	9.4	18.8	18.3	14.0(191)	$x^2=13.75$
	40-44	33.9	23.8	6.3	19.3	16.6	40.7(554)	$p=0.6168$
	45-49	32.4	28.1	6.5	18.8	14.1	29.2(398)	
	50-54	36.4	29.5	4.6	13.9	15.6	12.7(173)	
	55이상	34.8	26.1	4.3	13.0	21.7	3.4(46)	
학 력	중졸이하	35.0	24.3	7.6	16.4	16.8	35.9(489)	$x^2=10.09$
	고 졸	34.1	25.7	6.2	17.9	16.1	45.2(615)	$p=0.2584$
	대졸이상	27.5	29.5	5.4	22.5	15.1	18.9(258)	
인식정도	하	29.6	21.4	11.3	20.1	17.6	11.7(159)	$x^2=21.64$
	중	31.1	26.8	7.7	18.0	16.4	53.7(732)	$p=0.0056$
	상	37.6	26.1	3.2	17.8	15.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1.5	25.7	5.5	19.5	17.8	25.2(348)	$x^2=13.43$
	여 중	34.0	23.5	5.7	17.2	19.6	24.4(332)	$p=0.3384$
	남 고	32.2	27.6	9.3	17.0	13.9	23.7(323)	
	여 고	34.9	26.9	5.8	19.0	13.5	26.7(364)	
합 (실 수)	계	33.2 (452)	25.9 (353)	6.5 (89)	18.2 (248)	16.2 (220)	100 (1362)	

단위: %(명)

2.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가?

조사결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교육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맹모삼천지교의 맹자의 어머니, 이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의 어머니,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 등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들에 대해 전해오는 미담들이나 국가의 기념일 중에 어머니날을 넣어 기념해온 것 등이 설문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찬성한 사실을 보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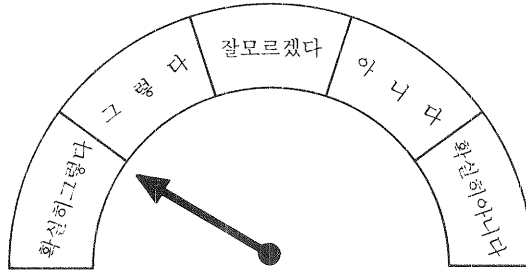
또한 1987년 한국아동복지회가 부산시내 중·고교 2학년 학생 3천 1백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구조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72%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자녀들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실 역시 어머니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모자관계는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게되는 대인관계인 동시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가장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이므로 어머니들의 수용적인 태도(모성애)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홀로서기까지 그들의 성장의 향방과 성숙도를 평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진됨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어머니의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어머니의 역할이 변모하게 되어 적잖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팀이 전국 8개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 1천 4백 40명과 4개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7백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이 많아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정일수록 비행청소년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렇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란 현상은 전문여성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임을 예상할 때 역행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간주 된다.

우리는 일본 총무청 발행 자료를 통해 세계청소년들의 어머니상과 어머니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기대를 알 수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일보다는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자상한 어머니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들이 취미나 오락을 적극적으로 즐기길 바라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갖기를 원하고 가정에만 매여있지 않고 예술, 사회, 정치문제 등 다른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다. 즉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어머니 고유의 역할을 원하면서도 어머니들의 독자적인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80%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와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감안할 때 현대의 어머니들은 사회속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이중 역할을 현명하게 양립해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의 모든 시간을 자녀에게 허용하는 과거의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모성애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자아실현으로 얻은 삶의 체험을 가정안에서 실현하며 적절한 대화시간을 통해 이미 이해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 두 영역의 생활을 보람있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이성적인 모성애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할애를 보완하기 위해 부자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IV-2]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평균:1.91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8.0	32.8	5.4	10.3	3.4	64.8(883)	$x^2=5.91$
	남 자	42.8	36.3	7.1	9.2	4.6	35.2(479)	$p=0.2053$
연 령	35-39	51.8	28.3	5.2	9.9	4.7	14.0(191)	$x^2=23.83$
	40-44	49.5	33.0	4.9	8.3	4.3	40.7(554)	$p=0.0933$
	45-49	42.2	36.9	6.0	11.3	3.5	29.2(398)	
	50-54	38.2	38.2	8.7	12.1	2.9	12.7(173)	
	55이상	47.8	30.4	13.0	8.7		3.4(46)	
학 력	중졸이하	46.8	31.7	8.2	9.4	3.9	35.9(489)	$x^2=10.92$
	고 졸	46.2	36.1	4.1	9.6	4.1	45.2(615)	$p=0.2059$
	대졸이상	45.0	33.7	6.6	11.6	3.1	18.9(258)	
인식정도	하	40.3	35.2	8.8	13.8	1.9	11.7(159)	$x^2=24.60$
	중	43.9	36.5	7.1	9.2	3.4	53.7(732)	$p=0.0018$
	상	51.8	29.9	3.4	9.8	5.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8.1	32.9	5.2	8.2	5.5	25.2(343)	$x^2=31.56$
	여 중	52.4	30.7	4.2	8.1	4.5	24.4(332)	$p=0.0016$
	남 고	37.8	38.7	9.6	12.1	1.9	23.7(323)	
	여 고	46.2	34.1	5.2	11.3	3.3	26.7(364) ¹	
합	계	46.2	34.1	6.0	9.9	3.8	100	
(실	수)	(629)	(464)	(82)	(135)	(52)	(1362)	

단위: %(명)

3.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결과: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이 자녀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부전자전’ ‘장모보고 장가간다’라는 말들은 부모행동이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입증해 주고 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것이다. 전혀 남남인 부부도 함께 오래 생활하면 외적 내적으로 닮아 간다. 하물며 유전인자가 같고 같은 성향을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자녀들이 유아기부터 시작한 동일화 과정을 통하여 10여년이란 세월동안 부모와 함께 희로애락을 겪으며 부모를 닮아 간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본 조사결과 90%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인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신들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대해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물론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자녀의 수용태도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항상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이에 따른

행동규범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언행일치되는 부모의 삶의 태도만이 자녀들을 건전한 생활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언행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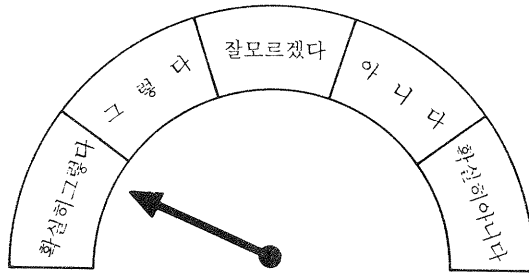
다음은 문제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생활하는 서울보호관찰소 소장의 자녀비행 예방과 건전성장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언이다. 즉 90%의 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시인한 만큼 다음의 제언들은 부모 자신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1. 자녀 앞에서 삼가할 일 10가지

- ①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 ②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 ③ 「돈」·「돈」하지 않는다.
- ④ 가난을 한탄하지 않는다.
- ⑤ 사치·낭비를 하지 않는다.
- ⑥ 술마시고 행패하지 않는다.
- ⑦ 외도·탈선을 하지 않는다.
- ⑧ 가출·별거를 하지 않는다.
- ⑨ 잡기에 몰입하지 않는다.
- ⑩ 스포츠·오락물에 흥분하지 않는다.

2. 자녀를 위해 실천할 일 10가지

- 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
- ②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
- ③ 예의범절을 실천한다.
- ④ 무엇이든 상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
- ⑤ 아낌없이 칭찬한다.
- ⑥ 진지한 토론을 한다.
- ⑦ 일찍 귀가하여 시간을 함께 한다.
- ⑧ 대화소재를 재치있게 발굴한다.
- ⑨ 성교육은 한발 앞서 시켜준다.
- ⑩ 하루를 반성하는 버릇을 기른다.



[표 IV-3]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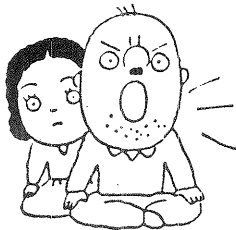
(평균:1.56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60.1	30.1	5.3	3.2	1.2	64.8(883)	$x^2=1.72$
	남 자	59.1	29.9	6.1	4.2	0.8	35.2(479)	$p=0.7857$
연 령	35-39	64.9	26.7	4.2	3.7	0.5	14.0(191)	$x^2=10.71$
	40-44	58.1	31.4	6.5	3.1	0.9	40.7(554)	$p=0.8268$
	45-49	58.8	31.7	4.0	4.0	1.5	29.2(398)	
	50-54	61.8	26.0	7.5	3.5	1.2	12.7(173)	
	55이상	58.7	28.3	6.5	4.3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62.0	27.0	6.7	3.1	1.2	35.9(489)	$x^2=13.53$
	고 졸	58.5	32.5	5.4	2.8	0.8	45.2(615)	$p=0.0948$
	대졸이상	58.5	29.8	3.9	6.2	1.6	18.9(258)	
인식정도	하	53.5	27.7	10.1	7.5	1.3	11.7(159)	$x^2=32.83$
	중	56.6	32.5	6.3	3.7	1.0	53.7(732)	$p=0.0001$
	상	66.9	27.0	3.0	1.9	1.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0.9	28.9	5.8	2.6	1.7	25.2(343)	$x^2=9.73$
	여 중	58.7	31.0	6.0	3.3	0.9	24.4(332)	$p=0.6395$
	남 고	57.3	31.3	4.6	5.6	1.2	23.7(323)	
	여 고	61.8	29.1	5.8	2.7	0.5	26.7(364)	
합 (실 수)	계	59.8 (814)	30.0 (409)	5.6 (76)	3.5 (48)	1.1 (15)	100 (1362)	

단위: %(명)

4.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부모의 74%가 찬성했고 17%만이 반대를 했다. 따라서 우리가정에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부모들이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1987년 한국아동복지회가 남녀 중·고등학교 2학년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말씀에 대해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가 전체의 46.2% ‘옳지않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가 39.3%로 청소년인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83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때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사고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모와 자녀간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는 것은 권위로 밀어부치는 부모들의 전통적인 양육방식과 학교교육과 다양한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와는 무관하게 현대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의식화된 결과에서 온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한 개체와 다른 개체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쓰이는 어휘이다. 20세기로 접어들어 인간사회의 모든 관계가 종적인 지시-복종 관계

에서 횡적인 상호존중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복종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사고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양육방식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즉 성인에 의해 주어지고 조정·형성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양육방식은 수평적 부모-자녀 관계로 자녀의 의사·권리가 존중되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애정과 자율을 바탕으로 자녀를 이해하며 수용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애정-거부, 자율-통제라는 부모 양육태도의 두 축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30여년 동안 연구한 셰이퍼를 위시한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이원령, 1989, pp. 292-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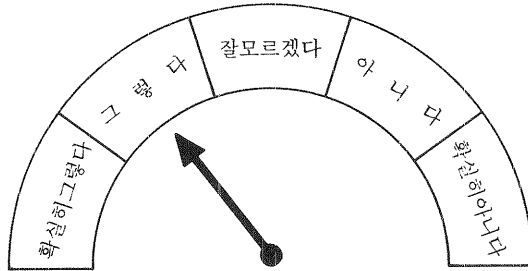
① 애정적-자율적 태도: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부모의 태도가 양육태도로서 권고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육행동 및 태도를 지닌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유아는 능동적·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있게 하며, 사회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

② 애정적-통제적 태도: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태도이다. 애정적이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유아보다 애정적-통제적인 가정에서 자란 유아들은 더 의존적이고 사회성·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정을 품는다.

③ 거부적-자율적 태도: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부모의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조절을 못하게 된다.

④ 거부적-통제적 태도: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정신질환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에게서 이러한 태도가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퇴행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74%의 부모가 자녀의 복종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전근대적인 가정교육은 자율과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인 현대교육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4]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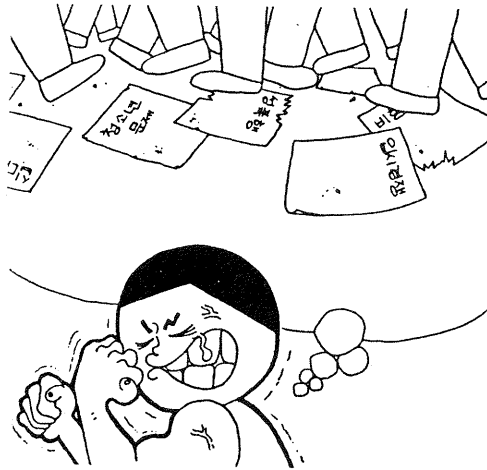
(평균:2.02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9.6	31.8	10.0	14.6	4.0	64.8(883)	$\chi^2=22.19$
	남 자	51.1	28.6	5.4	12.7	2.1	35.2(479)	$p=0.0002$
연 령	35-39	41.4	26.2	13.1	15.7	3.7	14.0(191)	$\chi^2=26.18$
	40-44	41.2	31.0	7.8	15.9	4.2	40.7(554)	$p=0.0515$
	45-49	44.5	35.2	6.3	11.3	2.8	29.2(398)	
	50-54	50.3	24.3	9.8	13.3	2.3	12.7(173)	
	55이상	52.2	30.4	8.7	8.7		3.4(46)	
학 력	중졸이하	45.8	27.4	11.5	12.3	3.1	35.9(489)	$\chi^2=14.21$
	고 졸	42.6	32.7	6.7	14.5	3.6	45.2(615)	$p=0.0764$
	대졸이상	42.2	32.2	6.6	15.9	3.1	18.9(258)	
인식정도	하	42.1	28.3	10.7	15.7	3.1	11.7(159)	$\chi^2=8.32$
	중	43.2	30.7	9.6	13.0	3.6	53.7(732)	$p=0.4026$
	상	45.0	31.4	5.7	14.9	3.0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6.9	32.4	7.3	10.8	2.6	25.2(343)	$\chi^2=34.59$
	여 중	41.0	24.1	10.8	7.2	6.9	24.4(332)	$p=0.0005$
	남 고	44.6	32.8	8.0	13.0	1.5	23.7(323)	
	여 고	42.3	33.2	7.4	14.8	2.2	26.7(364)	
합	계	43.7	30.7	8.4	14.0	3.3	100	
(실	수)	(595)	(418)	(114)	(190)	(45)	(1362)	

단위: %(명)

5.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인가?

조사결과: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 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임을 실감한다.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90%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사회여건과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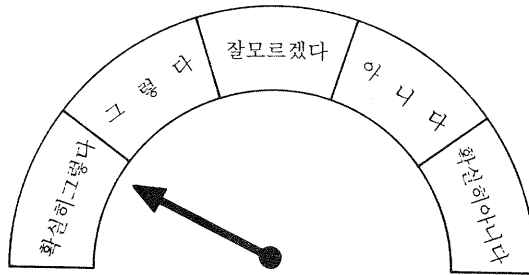
그중 청소년 자녀를 갖은 부모에게 제일 먼저 와 닿는 난제는 교육환경일 것이다. 자녀교육의 중요한 영역인 학교교육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로 인해 올바른 인간성숙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입시위주로 치달아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모자신들도 갈등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사실조차 실재상황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학교제도와 더불어 부작용(자살, 가출 등)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회환경은 성폭행과 인신매매 청소년 집단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위해 부모들이 등하교를 함께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고 청소년 유해출판물들은 공공연하게 교정내에까지 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음란비디오나 도색, 폭력만화 등은 주택가에 있는 만화방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은 특수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약물 남용이나 본드 흡입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유해환경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중매체는 그 역기능

으로 인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퇴폐향락 문화와 폭력을 그 실상보다 더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세뇌시켜 청소년들에게 부적합한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와 신문기사는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1987년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여학생, 고교 및 대학입시 남녀 재수생 그리고 서울과 광주의 산업체 근로청소년 2,343명을 대상으로 YWCA가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진학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22.9%의 청소년이 폭행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재수생은 33.2%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문제가 심상치 않은 유해요소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89년 8월 9일자 세계일보는 서울시의 경우 경찰에 신고되는 크고 작은 학교주변의 폭력 등 각종 청소년 범죄는 하루 평균 1백 80여건에 이르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1천여건이 될 것으로 경찰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같은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사회안에 만연되어 있는 유해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89년에 실시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성적(16.3%)이나 건강(23.5%) 보다는 탈선(29.6%)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의 대화내용은 학교생활과 성적에 국한되어 있어 탈선에 관해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참으로 자녀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하고 자녀의 고민을 부모의 고민으로 인식하여 자녀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막연히 자신의 자녀들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예외일 것이라는 방임이나 또는 맹목적인 억압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여 자녀들이 심신이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장환경과 여건을 조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표 IV-5]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평균:1.60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62.3	29.7	3.1	3.2	1.8	64.8(883)	$x^2=19.13$
	남 자	51.6	34.9	4.2	6.1	3.3	35.2(479)	$p=0.0007$
연 령	35-39	52.9	35.6	2.6	5.8	3.1	14.0(191)	$x^2=12.71$
	40-44	59.9	30.5	4.3	3.2	2.0	40.7(554)	$p=0.6938$
	45-49	59.0	32.2	2.8	4.3	1.8	29.2(398)	
	50-54	58.4	28.9	4.0	5.2	3.5	12.7(173)	
	55이상	60.9	30.4		4.3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59.7	28.6	4.7	3.9	3.1	35.9(489)	$x^2=9.97$
	고 졸	59.3	32.2	2.6	3.9	2.0	45.2(615)	$p=0.2668$
	대졸이상	54.3	35.3	3.1	5.4	1.9	18.9(258)	
인식정도	하	56.6	33.3	4.4	4.4	1.3	11.7(159)	$x^2=11.22$
	중	57.4	31.1	4.5	4.6	2.3	53.7(732)	$p=0.1894$
	상	60.9	31.4	1.5	3.4	2.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6.3	32.1	3.8	4.7	3.2	25.2(343)	$x^2=11.46$
	여 중	59.6	28.9	4.5	3.9	3.0	24.4(332)	$p=0.4894$
	남 고	55.1	35.0	3.1	5.0	1.9	23.7(323)	
	여 고	62.6	30.2	2.5	3.3	1.4	26.7(364)	
합 (실 수)	계	58.5 (797)	31.5 (429)	3.5 (47)	4.2 (57)	2.3 (32)	100 (1362)	

단위:%(명)

6.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존대말 사용을 강력히 주장한다.



“엄마 오늘도 안사왔어? 울 엄마 바쁘신 몸이구나” “정말 바빠서 못왔다. 며칠 더 기다려라” “엄마의 귀한 외아들이 학교에서 꼭 팔려도 울 엄마 똥쫄으신가 보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이름도 외기 힘든 요상스런 상표가 붙은 운동화를 사 내라고 조르는 방법이 이런 식이다. 어미를 하인 부리듯 하는 태도로, 느물거리면서 빈정대는 말버릇, 마치 제든 찾으려고 빗장이를 만난 계꾼이라도 된듯이 숨 쉴틈도 주지 않고 어미를 몰아 붙이며 자제도 당당하다.

이상은 어느 일간지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어투의 부모-자녀간 대화를 자주 주위에서 접하게 된다. 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등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부모들이 가족성원들에게 사용하는 존대어나 반-경어를 통해 어른께 존대하는 언어생활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어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들은 존대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특히 일부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반말사용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아이들답고 형식에 얽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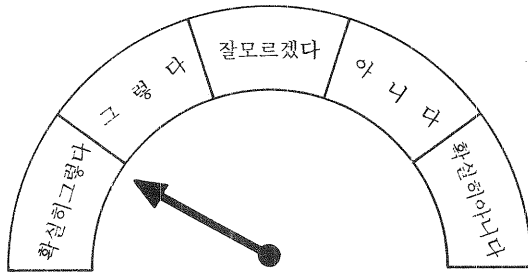
지 않아 자유스럽고 친근감을 준다고 이를 용납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적지않은 문제를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어른들에 대한 반말 사용은 자기 또래의 모임에서는 욕설, 비어, 은어 등으로 발전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존대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 결과 90%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존대어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대어 사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한 서울 국민학교의 조사 결과 보통 한 반 60여명 중 부모에게 존대어를 쓰는 학생들이 3-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느 교사는 가정에서 올바르게 습득되지 못한 언어는 학교에서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 예로 선생님에게 자기를 이르는 호칭이 흔히 「저」가 아닌 「나」로 쓰이고 「선생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온다」이며 「선생님께 여쭙어 본다」는 표현은 책에서만 쓰일뿐 「물어봐」로 대응된다고 한다.

또한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존대말 사용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더 높은 비율로 존대어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말버릇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야 어찌됐든 가정과 사회가 책임을 지고 잘못된 자녀들의 언어생활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90%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존대말 습득을 위해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모범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표 IV-6]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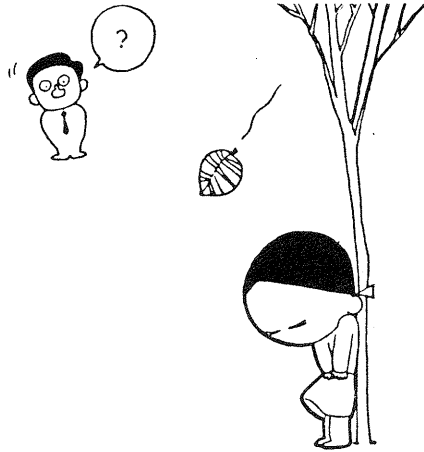
(평균:1.631)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6.5	25.0	8.6	9.2	0.7	64.8(883)	$x^2=37.25$
	남 자		70.8	20.3	2.5	5.4	1.0	35.2(479)	$p=0.0000$
연 령	35-39		61.3	23.0	6.8	8.9		14.0(191)	$x^2=12.86$
	40-44		60.3	24.5	6.3	7.6	1.3	40.7(554)	$p=0.6828$
	45-49		61.8	22.1	6.8	8.5	0.8	29.2(398)	
	50-54		64.2	25.4	4.6	5.8		12.7(173)	
	55이상		65.2	13.0	10.9	8.7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60.3	23.9	8.0	7.0	0.8	35.9(489)	$x^2=13.26$
	고 졸		62.9	22.1	6.5	8.1	0.3	45.2(615)	$p=0.1032$
	대졸이상		60.5	25.2	3.5	8.9	1.9	18.9(258)	
인식정도	하		53.5	22.6	11.9	11.3	0.6	11.7(159)	$x^2=22.47$
	중		59.8	25.5	6.7	7.0	1.0	53.7(732)	$p=0.0041$
	상		66.9	20.2	4.2	8.1	0.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7.1	22.2	4.4	5.2	1.2	25.2(343)	$x^2=23.66$
	여 중		61.4	20.8	7.5	9.0	1.2	24.4(332)	$p=0.0226$
	남 고		62.8	23.8	7.1	5.6	0.6	23.7(323)	
	여 고		55.2	26.4	6.9	11.3	0.3	26.7(364)	
합 (실 수)	계		61.5	23.3	6.5	7.9	0.8	100	
			(838)	(318)	(88)	(107)	(11)	(1362)	

단위: %(명)

7. 요즘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가?

조사결과:대다수의 부모들은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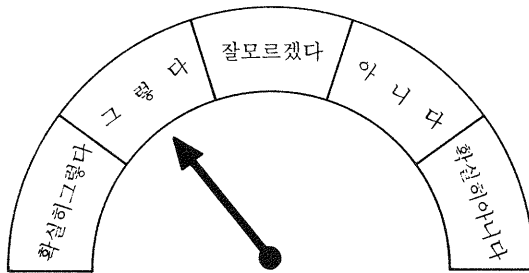


“옛날 청소년들은 어른 앞에서 행동이나 말을 매우 조심하고 절대 복종했던 반면에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어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점이 못마땅하다. 또 어른을 섬긴다 해도 자기 부모뿐이지 그 외의 윗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태도다. 이러한 세태는 시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저렇게 변하는 것이 요새 시국에 맞춰 잘 사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잘 해나갈 것이다. 허나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76세, 이대앞 노점 과일장사할아버지).

“감각적인 면에서는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지적인 면이라든지 의지력 같은 면은 우리 자랄 때보다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청소년들은 배운 것도 많고 좋은데 우리 어릴 때보다 지각이 덜 난 것 같다. 우리는 존경할 것은 존경하면서 반항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자기 본위이다. ……우리 세대가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을 자유롭게 키우려 하는데 자유로운 것은 좋으나 겁이 난다”(34세 가정주부).

1979년 YMCA연맹에 의해 조사된 '어른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한 인터뷰 내용중 일부이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기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를 하는것 만큼 기성인들 자신도 가치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본 조사결과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반응과는 달리 확신을 갖고 하는 대답인 '확실히 그렇다'는 24% 뿐이고, '그런 것 같다'는 모호한 반응은 49%나 나타났다. YMCA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사회와 한국의 현대사회가 문화적으로 두개의 상반된 가치체계 내지 행동규범, 행동규칙을 지니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과 청소년이 다같이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전통사회는 농업중심의 사회로서 기본적인 특징이 안정과 순응에 있고 그의 질서의 덕목은 충, 효, 예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상공업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로서 끊임없이 모험과 도전을 해야 하는 사회로 그의 질서 덕목에는 자유, 정의, 해방이 필요한 사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대사회는 모험과 도전을 중심한 경제발전을 시키는 사회인데 거기에 합당한 자유·정의·해방을 기피하고 한국전통사회가 지향했던 안정과 순응의 질서인 충, 효, 예를 주장하는데서 이중구조적 상황이 빚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도 이같은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청소년이나 그들 부모 모두가 대부분 가치혼돈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이해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부모들은 청소년의 행동만을 판단하는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치혼돈을 부모 자신들의 문제로도 인식하고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여 자녀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가치정립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표 IV-7]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평균:2.229)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5.9	47.2	11.3	11.8	3.7	64.8(883)	$\chi^2=5.99$
	남 자	20.3	52.0	11.7	11.7	4.4	35.2(479)	$p=0.1995$
연 령	35-39	21.5	49.7	12.6	11.5	4.7	14.0(191)	$\chi^2=11.28$
	40-44	24.2	46.0	11.7	13.7	4.3	40.7(554)	$p=0.7919$
	45-49	23.9	51.5	9.8	10.8	4.0	29.2(398)	
	50-54	24.9	49.7	13.9	9.2	2.3	12.7(173)	
	55이상	28.3	54.3	8.7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32.1	42.1	13.1	8.6	4.1	35.9(489)	$\chi^2=42.72$
	고 졸	21.5	51.4	10.7	12.7	3.7	45.2(615)	$p=0.0000$
	대졸이상	14.3	55.8	10.1	15.5	4.3	18.9(258)	
인식정도	하	27.7	43.4	19.5	6.9	2.5	11.7(159)	$\chi^2=34.87$
	중	25.7	49.2	11.1	9.6	4.5	53.7(732)	$p=0.0000$
	상	20.0	50.3	9.3	16.8	3.6	34.8(471)	
대상학교	남 중	20.1	50.7	10.5	13.4	5.2	25.2(343)	$\chi^2=16.65$
	여 중	27.1	44.3	10.2	13.6	4.8	24.4(332)	$p=0.1630$
	남 고	22.3	51.4	13.0	9.6	3.7	23.7(323)	
	여 고	26.1	49.2	12.1	10.4	2.2	26.7(364)	
합 (실 수)	계	23.9 (326)	48.9 (666)	11.5 (156)	11.7 (160)	4.0 (54)	100 (1362)	

단위: %(명)

8.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한가?

조사결과: 다수의 부모들이 아직도 아동의 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의 부모들이 아동의 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의 뜻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고학력 일수록 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권리를 일찌기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아동권리의 특성은 아동의 건전육성이 목표이다. 아이들이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할 권리와 성장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권리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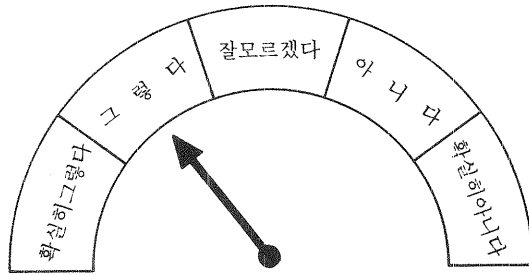
첫째는 제공(provision)으로서 아동이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이를 사용할 권리(즉 이름 및 국적, 보건, 교육,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와 고아 장애자 보호 등)

둘째는 보호(protection)이다. 아동은 위대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즉 부모로부터의 격리, 성적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셋째는 참여(participation)이다.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이다. 아동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있는 성년기에 대한 준비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장인협, 복지적 측면에서 본 아동의 권리, 1989)

이와같은 권리개념 정의아래 과연 아동의 권리가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리의식을 심어주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 안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흔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권리수단 중 첫째, 둘째는 과잉으로 베풀고 자율성과 책임감, 진취성 등을 훈련 할 수 있는 세번째 권리수단인 참여의 권리는 박탈하거나 유보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다. 따라서 과잉보호와 정신적 물질적 과잉제공을 받으면서도, 제공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며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동들은 진정한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르게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성장해서는 가정과 사회안에서 권리를 남용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향해 '권리엔 민감하고 의무엔 소홀하다'고 비난과 염려를 함께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올바른 권리행사가 학습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를 키워나가고 주장하고 실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함만 생각했지 왜 주장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홀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무조건 자녀의 권리를 유보시키거나 박탈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부모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합당하게 행사하면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의무와 권리행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내를 갖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봐 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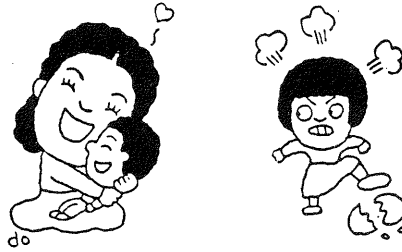
[표 IV-8]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2.18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8.3	31.9	9.1	16.3	4.4	64.8(883)	$x^2=1.28$
	남 자	35.7	34.0	9.4	15.9	5.0	35.2(479)	$p=0.8646$
연 령	35-39	43.5	29.8	6.8	17.8	2.1	14.0(191)	$x^2=14.27$
	40-44	37.5	32.9	9.7	14.8	5.1	40.7(554)	$p=0.5783$
	45-49	34.4	33.4	9.0	17.3	5.8	29.2(398)	
	50-54	37.0	31.2	11.6	16.8	3.5	12.7(173)	
	55이상	37.0	41.3	4.3	13.0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41.5	32.5	10.4	12.9	2.7	35.9(489)	$x^2=33.67$
	고 졸	37.2	32.2	9.3	17.2	4.1	45.2(615)	$p=0.0000$
	대졸이상	29.8	34.1	6.6	19.8	9.7	18.9(258)	
인식정도	하	34.0	30.2	16.4	15.1	4.4	11.7(159)	$x^2=22.81$
	중	36.6	33.2	10.4	15.2	4.6	53.7(732)	$p=0.0036$
	상	39.7	32.7	4.9	18.0	4.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5.9	32.4	9.9	17.8	4.1	25.2(343)	$x^2=24.69$
	여 중	44.6	29.8	8.7	11.7	5.1	24.4(332)	$p=0.0164$
	남 고	31.0	32.2	10.8	19.5	6.5	23.7(323)	
	여 고	37.9	36.0	7.4	15.7	3.0	26.7(364)	
합	계	37.4	32.7	9.2	16.2	4.6	100	
(실	수)	(509)	(445)	(125)	(220)	(63)	(1362)	

단위: %(명)

9.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는가?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편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편애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고 있다. 확실히 편애하지 않는다는 부모가 32%에 달하고 29%는 ‘아닌 것 같다’고 했으며 27%의 부모만이 편애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다행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부모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배 안 아프고 난 아이가 없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며 자녀에 대한 편애를 부인한다. 그러나 근래 여러 연구나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 부모들이 무의식중에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자녀들 중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나 부모를 유난히도 따르는 아이를 더 좋아하고, 또 아버지는 딸을 어머니는 아들을 더 좋아한다고 나타났다. 이성적으로는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편애의 사실을 자녀들에게 노출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 자녀들은 누구나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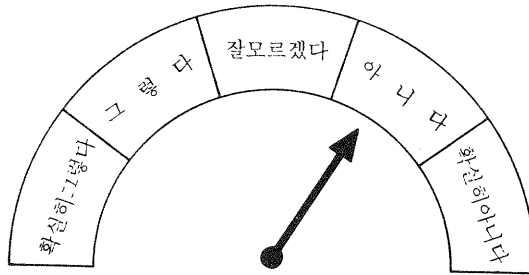
을 하게 된다. 편애를 당하는 자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열등감, 소외감, 적개심 등을 갖게 되어 가정 밖으로 나돌게 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집단에 흡수되기 쉽다.

상담소에 보내진 한 여학생의 편지는 부모의 편애가 자녀의 가슴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보여준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집이란 곳이 싫어지더니 지금은 가족 모두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단계까지 와 버렸어요. 1남 3녀 중 막내인 저는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항상 차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인가 보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오빠는 항상 우리와 달랐습니다.이런 오빠가 전 항상 미웠습니다. 가출을 할려고 해도 갈만한 곳이 없어서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이런 가정에 하루도 살기가 싫어요.”

따라서 부모들은 이와같은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자기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인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한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 해도 개개인의 얼굴이나 체형이 다르듯 성격과 행동, 적성, 소질에 있어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게 된다. 부모들은 각각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잘 판별하여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주 언급하면서 애정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유태인의 자녀교육 방침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형제의 두뇌를 비교하는 것은 양쪽을 모두 죽이지만 개성의 비교는 쌍방을 살린다.



[표 IV-9]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다

(평균:3.56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7.5	19.6	15.5	25.0	32.4	64.8(883)	$x^2=2.03$
	남 자		7.7	17.5	15.2	28.2	31.3	35.2(479)	$p=0.7300$
연 령	35-39		8.4	18.8	16.2	26.2	30.4	14.0(191)	$x^2=19.50$
	40-44		7.6	20.6	13.7	27.4	30.7	40.7(554)	$p=0.2434$
	45-49		7.0	20.4	14.6	23.9	34.2	29.2(398)	
	50-54		8.7	11.6	19.1	29.5	31.2	12.7(173)	
	55이상		4.3	13.0	26.1	17.4	39.1	3.4(46)	
학 력	중졸이하		9.6	19.0	19.4	22.1	29.9	35.9(489)	$x^2=18.60$
	고 졸		6.5	19.0	13.2	28.8	32.5	45.2(615)	$p=0.0171$
	대졸이상		6.2	18.2	13.2	27.5	34.9	18.9(258)	
인식정도	하		7.5	15.7	18.9	27.7	30.2	11.7(159)	$x^2=19.30$
	중		7.9	20.8	17.5	23.5	30.3	53.7(732)	$p=0.0133$
	상		7.0	17.0	11.0	29.7	35.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8.2	20.1	16.9	26.2	28.6	25.2(343)	$x^2=18.11$
	여 중		9.6	19.9	11.4	22.6	36.4	24.4(332)	$p=0.1124$
	남 고		5.6	18.6	18.3	28.8	28.8	23.7(323)	
	여 고		6.9	17.0	15.1	26.9	34.1	26.7(364)	
합 (실 수)	계		7.6 (103)	18.9 (257)	15.4 (210)	26.1 (356)	32.0 (436)	100 (1362)	

단위: %(명)

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가?

조사결과: 64%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과반수 이상(64%)의 비율로 자녀의 성공이 자신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59%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문항 1)에 찬성을 표시한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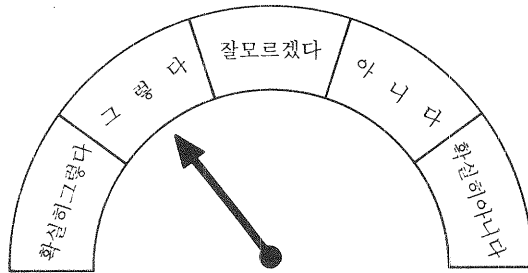
이 두 가지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자녀를 위한 희생까지 각오하고 자녀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에 있다고 보겠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울이는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희생까지 각오할 정도이므로 방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리라고 여겨진다. 잘못된 자녀 양육방식에 따른 문제점들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내면에 남아 있어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모의 지나친 자녀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신 의학자 미실다인 박사의 연구결과이다(w. 휴 미실다인/이종범, 이석규 역, 1989).

완전주의: 물질적·지적·사회적 성취를 향한 한없이 너무 진지한 몰두
강압: 빈둥거리기, 공상, 느장부리기, 기타 반항들
유약: 충동적 행위, 발끈하는 기질,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 결여
과보호: 권태감, 끈기 부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움
심기증: 비활동과 불참의 구실을 제공하는 건강에 대한 걱정
징벌: 보복하고자 하는 강한 원의가 성인생활을 지배
방임: 불안, 고독,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어려움
거부: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낌
성적 자극: 성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불만족하여 육체적인 측면만 강조

이상과 같이 잘못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부모들은 항상 자신들의 양육태도를 재점검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늘 사랑과 신뢰와 존중 그리고 자율성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자녀의 성공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청소년 부모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의 의미가 과연 청소년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의 의미와 같은지 검토해 본 후 이에 따라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표 IV-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평균:2.39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9.0	35.3	9.1	21.4	5.2	64.8(883)	$x^2=3.63$
	남 자	31.1	31.1	9.2	21.7	6.9	35.2(479)	$p=0.4574$
연 령	35-39	33.0	35.1	5.8	24.1	2.1	14.0(191)	$x^2=20.20$
	40-44	29.4	36.3	9.6	19.3	5.4	40.7(554)	$p=0.2112$
	45-49	30.2	30.4	10.3	22.6	6.5	29.2(398)	
	50-54	28.3	30.6	8.1	24.3	8.7	12.7(173)	
	55이상	21.7	41.3	10.9	17.4	8.7	3.4(46)	
학 력	중졸이하	31.1	32.1	9.0	22.1	5.7	35.9(489)	$x^2=4.83$
	고 졸	30.1	33.5	9.8	21.3	5.4	45.2(615)	$p=0.7746$
	대졸이상	26.4	38.0	7.8	20.9	7.0	18.9(258)	
인식정도	하	23.9	34.0	13.2	22.0	6.9	11.7(159)	$x^2=17.34$
	중	28.3	32.8	10.2	23.0	5.7	53.7(732)	$p=0.0268$
	상	34.0	35.5	5.9	19.1	5.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6.2	32.7	8.7	17.2	5.2	25.2(343)	$x^2=20.67$
	여 중	30.4	33.4	9.6	21.7	4.8	24.4(332)	$p=0.0553$
	남 고	25.7	33.4	8.4	23.5	9.0	23.7(323)	
	여 고	26.6	35.7	9.6	23.6	4.4	26.7(364)	
합 (실 수)	계	29.7 (405)	33.8 (461)	9.1 (124)	21.5 (293)	5.8 (79)	100 (1362)	

단위:%(명)

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는 부모를 위한다는 것 자체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효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된다.

본 조사 결과 55%의 부모들이 '확실히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했고 32%의 부모들이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87%의 부모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고수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더 효도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연 이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한 가치로서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위와 같이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TV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모학대나 불경사건들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모들도 이미 앞에 있는 문항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부모행동이 자녀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효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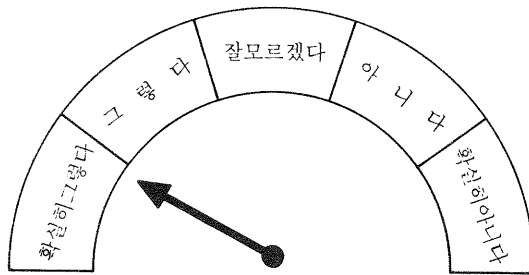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연로해 졌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를 돌봐 드리겠다’가 69.4%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를 나타냈다. 동양권 국가인 싱가포르가 73.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66.2%, 프랑스가 55.5%, 미국이 52%, 영국이 44.6%, 일본이 25.4% 등의 순이었으며 스웨덴은 가장 낮은 17%로 핵가족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력에 따라 부양한다’는 2차적인 방안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 70% 이상이 부모공경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85년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효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 절대다수인 79%가 반대 의견을 보임으로써 효도란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효에 관한 한 부모와 자녀 세대간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효도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아직은 건전한 효도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가치를 갈등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느냐 하는데 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므로 그들 앞에서 웃어른 대하는 몸가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노후에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 효도의 모범을 보인다고 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인간된 도리이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마음자세를 부모부터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길만이 현대 우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건전한 효도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표 IV-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

(평균:1.656)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2.8	32.2	9.2	4.0	1.9	64.8(883)	$\chi^2=6.40$
	남 자		58.5	30.7	6.9	2.9	1.0	35.2(479)	$p=0.1707$
연 령	35-39		55.0	30.9	8.4	4.2	1.6	14.0(191)	$\chi^2=6.71$
	40-44		54.2	31.9	8.7	3.1	2.2	40.7(554)	$p=0.9784$
	45-49		53.8	31.9	9.5	3.8	1.0	29.2(398)	
	50-54		58.4	31.2	5.2	4.0	1.2	12.7(173)	
	55이상		56.5	30.4	6.5	4.3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54.8	30.7	9.8	3.1	1.6	35.9(489)	$\chi^2=4.78$
	고 졸		56.1	30.9	7.6	3.9	1.5	45.2(615)	$p=0.7800$
	대졸이상		51.6	35.3	7.4	3.9	1.9	18.9(258)	
인식정도	하		49.1	37.1	10.1	2.5	1.3	11.7(159)	$\chi^2=9.27$
	중		53.6	31.4	9.3	3.8	1.9	53.7(732)	$p=0.3196$
	상		58.6	30.1	6.4	3.6	1.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1.5	25.7	8.5	2.6	1.7	25.2(343)	$\chi^2=20.65$
	여 중		54.2	30.4	8.1	4.2	3.0	24.4(332)	$p=0.0556$
	남 고		52.3	33.1	9.3	4.0	1.2	23.7(323)	
	여 고		51.1	37.1	7.7	3.6	0.5	26.7(364)	
합 (실 수)	계		54.8 (746)	31.6 (431)	8.4 (114)	3.6 (49)	1.6 (22)	100 (1362)	

단위: %(명)

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하는가?

조사결과: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하고 있다.



세대차라는 단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류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한 세대(약 30년)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며 인류역사가 만들어지고 한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차이가 인간문화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세대차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한 우리가 세대간 느끼는 세대차에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세대차를 느낀다고 말할 때에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표현할 때에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필요악 정도로만 생각했던 '세대차'를 바람직한 인간문화 발달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 그 중 긍정적이거나 무해한 부분은 서로 수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조사결과 78.4%의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세대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대차를 느끼고 있었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

들이 더 많이 세대차를 느끼고 있었다. 즉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청소년들과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청소년인 자녀들을 갖고 있는 40대 부모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세대차를 더 느끼고 있음도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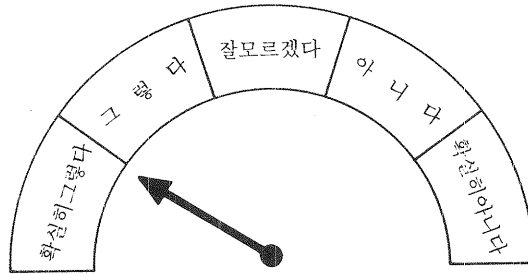
부모세대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에 대해 갖는 느낌은 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타산적이고, 개방적이고, 물질적이며 성적으로 조숙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고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판적이며 약삭빠르다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들도 부모세대가 권위적이고, 현실적이고, 강압적이고, 적당주의적이고, 위선적이고, 불의에 타협하며 비합리적이고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와같이 부모-자녀간 공통으로 느끼는 세대차가 빚어내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식사시간이나 TV시청시간 바캉스를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세대간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화시 대화의 기술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청소년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들의 꾸념식의 이야기는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옛날 보릿고개 때는 보리도 없어서……’ ‘6.25때 피난을 내려가면서……’ ‘우리 자랄 때는 어땠고……’ 식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대화에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부모의 실력과 지혜를 총 동원하여 자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며 이야기를 감정이나 자기주장에 치우침 없이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만 ‘공부하라’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신세대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표 IV-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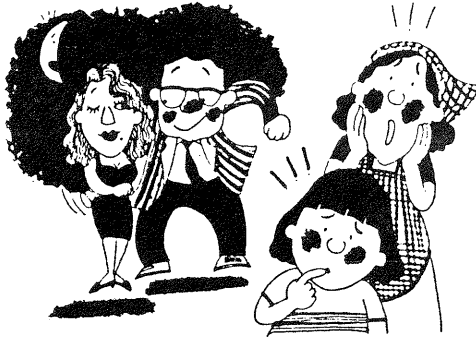
(평균:1.973)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0.1	38.5	9.9	7.9	3.6	64.8(883)	$\chi^2=1.86$
	남 자	37.4	40.7	11.3	7.1	3.5	35.2(479)	$p=0.7611$
연 령	35-39	40.3	32.5	10.5	11.0	5.8	14.0(191)	$\chi^2=22.68$
	40-44	40.6	36.6	11.4	8.7	2.7	40.7(554)	$p=0.1223$
	45-49	36.7	46.0	8.8	4.8	3.8	29.2(398)	
	50-54	38.7	39.9	9.8	7.5	4.0	12.7(173)	
	55이상	39.1	39.1	13.0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45.2	33.5	11.5	5.9	3.9	35.9(489)	$\chi^2=22.66$
	고 졸	37.9	40.8	9.8	8.0	3.6	45.2(615)	$p=0.0038$
	대졸이상	30.6	46.5	9.7	10.1	3.1	18.9(258)	
인식정도	하	41.5	36.5	12.6	6.9	2.5	11.7(159)	$\chi^2=2.82$
	중	39.1	39.2	10.5	7.5	3.7	53.7(732)	$p=0.9448$
	상	38.4	40.3	9.3	8.1	3.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9.4	37.0	10.5	9.3	3.8	25.2(343)	$\chi^2=21.27$
	여 중	43.4	32.5	10.2	8.7	5.1	24.4(332)	$p=0.0465$
	남 고	33.1	46.4	11.5	6.2	2.8	23.7(323)	
	여 고	40.4	41.2	9.3	6.3	2.7	26.7(364)	
합	계	39.1	9.3	10.4	7.6	3.6	100	
(실	수)	(533)	(535)	(141)	(104)	(49)	(1362)	

단위: %(명)

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는가?

조사결과: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자신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신의 도덕심에 대해 회의적이다.



도덕심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에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며, 특히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덕성이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모의 말이 내면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게 도덕심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과연 이렇게 자녀의 도덕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도덕심에 관해 우리나라 부모들 스스로는 얼마나 자신을 갖고 있는지의 조사 결과 32.5%의 부모들만이 자신의 도덕심에 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27.9%는 자녀들 앞에서 ‘자신있는 도덕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9.7%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도덕성에 관해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했으며 2.1%는 ‘전혀

자신없다'고 했다. 주목할만한 현상은 이 연구의 다른 질문문항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27.8%의 부모들이 자신의 도덕심에 관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자신의 도덕심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부모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국·중졸 부모의 55% 고졸부모 60%, 대졸부모 69%가 자신들의 도덕심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확실히 자신이 있거나' '자신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신의 도덕심에 대해 자신을 갖고 있었다. 즉 인식정도가 상인 경우 68%, 중이 58%, 하가 47%의 비율로 부모들이 자신의 도덕심에 자신을 갖고 있었다.

선악 정사(正邪)를 판별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도덕심인데 청소년들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정확한 도덕관을 심어주어야 할 부모들이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올려지는 수 많은 청소년 문제들의 가장 주된 요인은 도덕성의 결여라 하겠다.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1988년 실시한 청소년 비행원인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청소년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제시된 몇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현 청소년들의 도덕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75%가 '출세를 위해서는 옳지않은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72%, '목적만 좋으면 어떤 수단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64%, '어려움이 따른다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0%로 대체로 올바른 규범 및 가치가 청소년들에게서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는 50년대 이후 사는데 급급하여 온갖 수단을 써서 성공을 하려했던 기성세대의 가치 반영이라 하겠다. 또한 부모 학교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의 심성 보다는 돈이나 출세를 위한 지식을 교육의 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간경시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덕심은 인간들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인간답게란 인간인 나와 타인의 공존을 위해 본능이 아닌 이성으로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품격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이러한 품격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작은 일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표 IV-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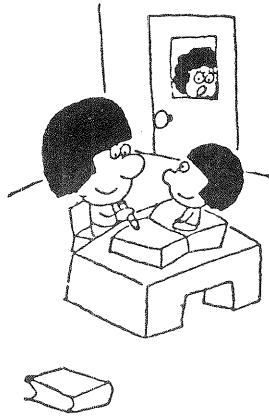
(평균:2.21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2.4	26.4	28.9	10.4	1.9	64.8(883)	$x^2=4.92$
	남 자	32.6	30.7	25.9	8.4	2.5	35.2(479)	$p=0.2953$
연 령	35-39	26.2	26.7	31.9	14.1	1.0	14.0(191)	$x^2=18.84$
	40-44	32.1	28.3	27.3	9.2	3.1	40.7(554)	$p=0.2765$
	45-49	35.9	27.9	27.1	8.0	1.0	29.2(398)	
	50-54	33.5	26.6	26.6	11.0	2.3	12.7(173)	
	55이상	28.3	32.6	28.3	6.5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29.0	26.4	32.1	10.2	2.2	35.9(489)	$x^2=16.07$
	고 졸	33.7	26.8	27.8	9.6	2.1	45.2(615)	$p=0.0413$
	대졸이상	36.0	33.3	19.8	8.9	1.9	18.9(258)	
인식정도	하	23.3	23.3	38.4	10.7	4.4	11.7(159)	$x^2=42.34$
	중	28.8	29.8	29.1	9.7	2.6	53.7(732)	$p=0.0000$
	상	41.2	26.5	22.3	9.3	0.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5.0	26.2	26.2	10.5	2.0	25.2(343)	$x^2=13.87$
	여 중	29.5	27.7	30.7	8.7	3.3	24.4(332)	$p=0.3090$
	남 고	30.0	30.3	28.2	8.7	2.8	23.7(323)	
	여 고	34.9	27.5	26.4	10.7	0.5	26.7(364)	
합 (실 수)	계	32.5 (442)	27.9 (380)	27.8 (379)	9.7 (132)	2.1 (29)	100 (1362)	

단위: %(명)

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보아야 하는가?

조사결과: 부모가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하는가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논란의 문제이다.



부모가 자녀의 일기를 교육상 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반대하는 부모가 44.5%로 찬성하는 부모 40.9%보다 더 많은 숫자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들이 대체로 일기는 자녀의 비밀스런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 것인 만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자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부모일수록 찬성쪽으로 기우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점을 제기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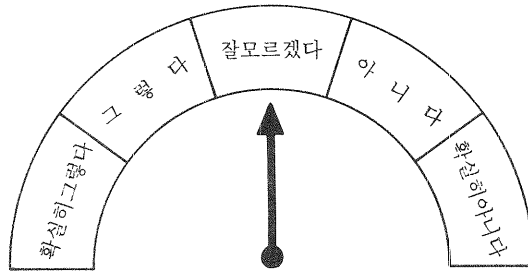
다음의 [표 IV-14]가 보여주듯이 인식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일기를 교육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의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녀들의 생각과 문제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일기는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일기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녀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일기가 부모에게 소중한 자료인 반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부모의

신중치 못한 관여로 인해 자녀들은 인격을 무시당한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급기야는 일기쓰는 좋은 습관마저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기란 그날그날 또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 자기가 했던 일이나 당했던 일을 적으면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견해를 씀으로써 관찰력, 사고력, 표현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자녀의 일기는 지도상 보아야 겠지만 청소년 자녀들의 일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부모들이 자녀의 일기 보는 일에 적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일기란 쓰면 좋고, 잘 쓰면 더욱 좋고, 안 써도 그만인 것으로 우리가정에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어쨌든 일기쓰는 습관은 권장해야 하고 지속시켜야 하는 귀중한 생활태도이므로 청소년 부모들은 이를 위해 조심스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기에 조심스럽게 적은 내면이야기나 비밀스럽게 혼자만 되뇌이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자녀 허락없이 보려고 시도하다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부모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지 말고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부모에게 갖고 올 수 있도록 인내로 애정과 신뢰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표 IV-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한다

(평균:3.081)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6.4	29.4	12.6	25.0	16.5	64.8(883)	$\chi^2=29.56$
	남 자	9.4	22.3	18.2	28.2	21.9	35.2(479)	$p=0.0000$
연 령	35-39	20.9	30.9	12.6	23.0	12.6	14.0(191)	$\chi^2=43.86$
	40-44	15.5	29.6	13.7	24.5	16.6	40.7(554)	$p=0.0002$
	45-49	8.8	25.4	14.8	30.2	20.9	29.2(398)	
	50-54	10.4	19.7	18.5	27.2	24.3	12.7(173)	
	55이상	23.9	19.6	15.2	19.6	21.7	3.4(46)	
학 력	중졸이하	15.5	23.5	14.5	28.4	18.0	35.9(489)	$\chi^2=7.67$
	고 졸	13.7	28.1	14.3	24.7	19.2	45.2(615)	$p=0.4662$
	대졸이상	11.6	30.6	15.1	25.2	17.4	18.9(258)	
인식정도	하	7.5	13.8	20.1	29.6	28.9	11.7(159)	$\chi^2=56.60$
	중	12.8	25.3	15.6	26.8	19.5	53.7(732)	$p=0.0000$
	상	17.8	34.0	11.0	24.0	13.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7.2	37.0	12.5	20.4	12.8	25.2(343)	$\chi^2=63.47$
	여 중	19.0	26.5	12.0	25.0	17.5	24.4(332)	$p=0.0000$
	남 고	8.4	19.8	18.9	29.1	23.8	23.7(323)	
	여 고	11.3	24.2	14.8	29.9	19.8	26.7(364)	
합	계	14.0	26.9	14.5	26.1	18.4	100	
(실	수)	(190)	(367)	(198)	(356)	(251)	(1362)	

단위: %(명)

요 약

지금까지 각 문항에 대한 부모들의 응답결과를 기존 연구 자료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의식상태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부모들의 자녀교육 태도는 여러 문항의 응답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성공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성공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의 노력에 발맞추어 자신의 권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해 주는 일에 당연히 복종하며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유보하고 부모들이 쳐 준 보호막 안에서 그리고 부모가 제시해 주는 길을 따라 아무 말없이 자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로 자녀 이해도에 있어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요즘 자녀들의 사고 방식을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하고 있으며 자식 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부모들의 교육태도에서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모와 자녀간 생기는 세대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본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는 대화를 통해 양자의 공감대를 넓혀가며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좁힐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무조건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이러한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 부모들은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자녀를 위해 교육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모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육태도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원의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자율성과 책임감과 진취성을 갖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의 삶 안에서 지지자로 머무는 자녀중심적 교육태도로 방향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사려된다.

자 녀 지 도

	평 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	2.25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1.91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56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2.03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1.60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1.63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2.23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2.18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다.	3.56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2.40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	1.66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한다.	1.97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다.	2.21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한다.	3.08

2. 학습과 진로

청소년기에 이룩해야 할 과업 중 학업성취와 진로선택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소년기하면 학생을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업문제(성적문제, 진로문제)임을 볼 때, 부모와 자녀사이의 견해차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습과 진로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12문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한가?
2.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는가?
3.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한가?
4.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가?
5.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6.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가?
7.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가?
8.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은가?
9.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10. 자녀의 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가?
11.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가?
12.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1.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한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급학교의 입시제도는 하급학교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큰 몫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위주 사회에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판문인 입시에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12년 동안의 배움이 한 번의 기회에 결정이 나므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 '과외열풍', '눈치작전', '배짱지원'이라는 말들이 입시철이면 무수히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로 금지됐던 과외가 9년만에 다시 허용됨으로써 그동안 표면적으로나마 잠잠했던 과외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80년 당시 망국적인 과외열풍을 잠식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려졌던 조치였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VTR과외, 별장과외, 승차과외, 주말과외, 전화과외 등과 같은 신종 과외를 낳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이 다니는 입시학원에도 졸업생을 가장, 변칙적으로 재학생들이 수강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끈질긴 과외의 생명력은 '어떻게 해서라고 내 자식만은 대학에 꼭 보내겠다'는 부모들의 욕심과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과외를 하지 않으면 뒤떨

어질 것 같은 불안심리에 기인했던 것이다.

그동안 중산층이나 서민층에선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과외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오로지 학교교육에만 의존해 온 실정이었으나, 해제조치이후 이런 부모들은 또다른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허용된 과외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못시키는 경우 자책감과 남들 다하는 과외를 못시키는데서 오는 불안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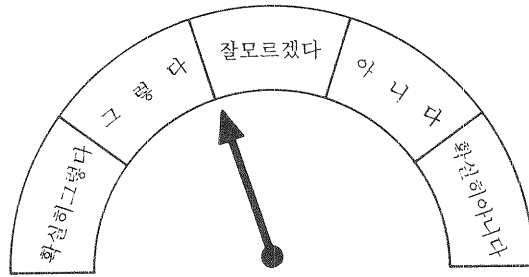
과외허용에 따른 폐해는 그동안 지적된대로 ①계층간·지역간 위화감 조성 과 상대적 빈곤의식 조장 ②과외맹신으로 인한 학교교육 불신·파행화 ③지급도 허약한 전인교육의 저해 ④엄청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압박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일보, 1989. 2.10). 그러므로 과외허용 조치가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고심끝에 내려진 결정인 만큼 전전과외로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학급구성원간의 학력차가 커서 학생 개개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학습지도를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신흥일류학교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명문대 합격률 높이기에 힘쓰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채적을 가해주길 바라므로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질이나 진도를 맞춰나가는 형편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진도에 맞춰 학습성취를 이룩하지 못하므로 모자란 부분의 학습이 누적되고 학습의욕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제도하에서는 과외는 필요악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과외는 허용되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43%만이 과외공부의 당연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과열과외를 어떻게 건전한 풍토위에 서는 과외로 지향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암기식으로 단편 지식만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머리속에 채워 넣느냐가 아닌,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고 흥미있는 부분을 심화시키는 그래서 과외수업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외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입이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표 IV-15〕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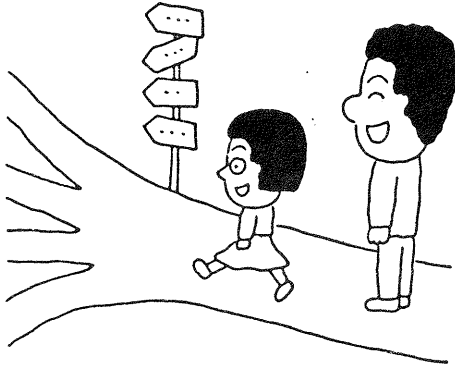
[표Ⅳ-15]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 (평균:3.06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3.8	26.7	18.0	26.6	14.8	64.8(883)	$\chi^2=7.03$
	남 자	11.5	27.8	14.2	28.0	18.6	35.2(479)	$\chi^2=0.1338$
연 령	35-39	12.0	30.9	11.0	29.8	16.2	14.0(191)	$\chi^2=34.56$
	40-44	14.6	27.1	17.5	25.3	15.5	40.7(554)	$\chi^2=0.0046$
	45-49	11.8	28.6	13.6	28.6	17.3	29.2(398)	
	50-54	12.7	25.4	23.1	24.9	13.9	12.7(173)	
	55이상	8.7	4.3	32.6	32.6	21.7	3.4(46)	
학 력	중졸이하	14.5	21.7	18.6	28.0	17.2	35.9(489)	$\chi^2=15.11$
	고 졸	11.5	29.8	15.6	28.1	15.0	45.2(615)	$\chi^2=0.0569$
	대졸이상	13.6	31.0	15.5	22.9	17.1	18.9(258)	
인식정도	하	8.2	21.4	23.9	27.0	19.5	11.7(159)	$\chi^2=22.98$
	중	14.3	25.3	17.9	26.9	15.6	53.7(732)	$\chi^2=0.0034$
	상	12.5	31.8	12.3	27.4	15.9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6.9	28.9	14.0	25.9	14.3	25.2(343)	$\chi^2=20.74$
	여 중	10.8	23.5	16.0	27.7	22.0	24.4(332)	$\chi^2=0.0542$
	남 고	12.1	29.4	18.0	26.6	13.9	23.7(323)	
	여 고	12.1	26.6	18.7	28.0	14.6	26.7(364)	
합 (실 수)	계	13.0 (177)	27.1 (369)	16.7 (227)	27.1 (369)	16.2 (220)	100 (1,362)	

단위: % (명)

2.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선택시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인간의 성취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적 측면은 지적 측면 만큼이나 큰 작용을 한다. 성인들의 일에 대한 성취나,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적성, 동기, 태도, 취미 등은 변수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개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라고 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일련의 배움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일을 통해서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개인의 진로선택은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해 주는 좌표가 될지도 모른다.

흔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진로'라 함은 '진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선택과 학과선택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이라 함은 국민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때 성적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장 석민 박사는 진로의식의 발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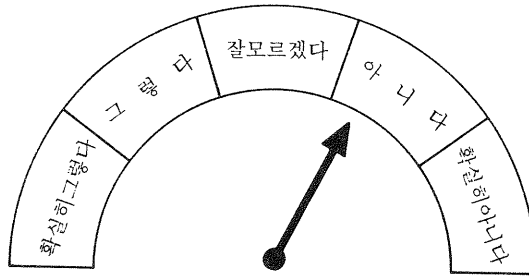
계를 ①국민학교=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초보적 인식단계 ②중학교=탐색적 인식단계 ③고등학교=준이해 단계 ④대학=전문적 훈련 단계로 구분짓고 국민학교 때부터 많은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진로선택이 학교·학과선택과 거의 동일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과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서울대('89년)의 신입생 대상 조사에서 보면 본인이라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다. 또 같은 조사의 숙명여대 비율을 보면 본인이라는 응답이 61.9%로 역시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학생은 서울대의 33.3%, 숙대의 43.3%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응답엔 서울대의 경우 교사가 30.8%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공한 선배'가 29.1%였다. 결국 학과선택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고교 때부터 희망했던 학과로 진학하는 소신있는 진로선택은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진로선택시 학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본 설문지조사에서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라는 문항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학부모의 74%가 부정적인 반응, 즉 자녀의 진로선택은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20%는 자녀의 진로선택을 자녀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고 반응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학력보다 자녀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전문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이에 따라 학과가 다양해지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과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에 따라 자녀의 진로선택은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표 IV-16]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선택시 자녀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나 욕심이 부모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 무지로 인한 방관자도 아니고, 이기심에 의한 개입자도 아니며, 보호자이고 독려자로서 자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절제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표Ⅳ-16]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

(평균:3.855)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4	16.0	7.0	37.8	34.8	64.8(883)	$\chi^2=3.10$
	남 자	4.4	14.6	5.2	37.4	38.4	35.2(479)	$\chi^2=0.5396$
연 령	35-39	3.7	14.1	7.9	32.5	41.9	14.0(191)	$\chi^2=20.82$
	40-44	4.7	17.5	6.5	37.2	34.1	40.7(554)	$\chi^2=0.1852$
	45-49	3.0	13.3	5.5	43.2	34.9	29.2(398)	
	50-54	6.4	16.8	7.5	32.4	37.0	12.7(173)	
	55이상	8.7	10.9	2.2	37.0	41.3	3.4(46)	
학 력	중졸이하	4.5	14.3	7.8	34.8	38.7	35.9(489)	$\chi^2=17.00$
	고 졸	3.1	15.9	6.0	38.4	36.6	45.2(615)	$\chi^2=0.0301$
	대졸이상	7.4	16.7	4.7	41.5	29.8	18.9(258)	
인식정도	하	4.4	10.7	9.4	39.0	36.5	11.7(159)	$\chi^2=13.07$
	중	4.1	15.0	7.2	36.5	37.2	53.7(732)	$\chi^2=0.1094$
	상	4.9	17.8	4.0	39.1	34.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8	16.9	5.8	39.7	31.8	25.2(343)	$\chi^2=19.63$
	여 중	5.4	18.1	7.2	34.0	35.2	24.4(332)	$\chi^2=0.0744$
	남 고	3.4	13.9	5.3	34.7	42.7	23.7(323)	
	여 고	3.0	13.2	7.1	41.8	34.9	26.7(364)	
합 (실 수)	계	4.4 (60)	15.5 (211)	6.4 (87)	37.7 (513)	36.0 (491)	100 (1,362)	

단위: %(명)

3.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한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재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입시제도하에서의 학교는 입시학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30% 정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문을 향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안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입시철이 되면 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피상적이나마 활발하게 논의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수험생의 70% 정도는 필수인 재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1차 탈락후 자녀 스스로가 원해서 원하는 대학에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와 부모의 과잉기대나 체면 때문에 부모가 권해서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1차, 2차, 전문대까지 모두 탈락한 후 꼭 재도전해 보겠다는 신념없이 어영부영 재수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탈락한 수험생의 대부분이 다른 진로를 택하지 않고 또 수험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는 진학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취약한 진로지도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무조건적인 고학력 선호, 일류의식 사상 때문일 것이다.

8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재수생이 27만4천여명(34.1%)으로 이는 대학 입시사상 최대의 수치였고, 서울대의 경우 89학년도 신입생의 43.4%를 재수생이 차지하는 등 재수생 합격률이 그 전해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었다. 재수함으로써 합격이 보장된다면 영국의 격언 「우리들의 최대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데 있다」는 것처럼 실패 후의 값진 성공감을 맛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수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또 치열한 학원 입시전쟁을 치뤄야 하는 것이다.

세칭 ‘명문학원’으로 불리우는 학원의 경쟁률은 89년도 경우 7.6:1로서 대학입시에 실패한 낙방생들은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 자아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신의학적 문제점까지도 보여주게 된다. 최근 청소년 환자 중 수험생이 차지하는 비율, 특히 재수생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 소위 ‘입시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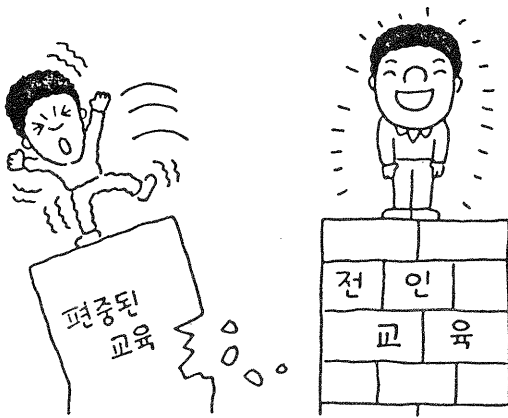
교육전문가들은 ‘재수생들의 강박증세’를 ①신체적 발육이 왕성하고 정신적으로 격동기인 청소년기에 겪어야 하는 입시실패로 인한 좌절감 ②학부모의 과잉기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 ③고도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적응 실패에서 오는 불안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재수생의 강박증엔 뚜렷한 처방이 없다. 치유책이 있다면 가족들의 자연스런 태도와 이해심, 그리고 주위의 격려 등이 있을 뿐이다(세계일보 1989. 5.30).

자녀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다보면 목적의식 상실과 허탈감, 열등의식 등으로 자칫 잘못하면 탈선과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수 결정에 앞서 재수의 필요성 여부와 1년 동안 다시 수험생활을 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부모들의 응답 비율도 [표Ⅳ-17]에서 볼 수 있듯이 45%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요즈음 대학 졸업생들의 취직율이 낮은데서 오는 현상의 여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매해 입시철이면 입시학원의 높은 경쟁율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식조사에서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도 76%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표집대상이 수험생을 눈앞에 둔

4.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가?

조사결과: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교육은 ‘교육’이란 용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즉 인간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구조와 기능이 단순했던 사회에서는 비형식적 교육 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다기능 사회가 되고부터는 형식적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가정은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일임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와 늘어나는 정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에 있어선 이미 60년대에 완전취학을 이루었고, 국민학교 졸업생의 99.2%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취학률도 90%에 이르고 있고, 대학 취학률도 36%에 이르러 놀라운 교육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난 40여년간의 한국교육은 도구주의적 교육관에 의해 지배되어 왔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극심한 학력경쟁사회를 낳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신뢰와 애착심을 배우고 교육을 통해 자율성·독립성·책임감 등과 올바른 가치관·직업관을 기르면서 도덕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리성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된 학교제도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 일으켰고, 학교, 가정 모두에서 최고의 관심은 진학문제에 쏠리게 되었다. 상급학교의 진학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거치면서까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오로지 공부에만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사회적 성공의 욕구 또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우선주의 풍토에서는 오로지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주입에 급급하게 된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이 증시되는 이런 상황에선 물량 위주의 사고가 지배하게 되고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나 인생관의 정립에 필요한 여유를 갖지 못한다.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표Ⅳ-18]에서 볼 수 있듯이 5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긍정적인 반응도 33%에 이르고 갈등상태도 11%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연령 측면에서 볼 때 30대나 50대 학부모의 반응에 비해 40대 부모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40대의 부모라 함은 자녀가 이미 수험생활을 거쳤거나 아니면 수험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연령층에 해당된다. 즉 부모들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한다는 결론이다. 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입시가 눈앞에 있으면 보다 좋은 직장, 보다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자녀들이 생존경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학과선택을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 나아가다 보면 지식편중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표Ⅳ-18]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평균:3.37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3.8	17.8	12.2	27.9	28.3	64.8(883)	$\chi^2=6.89$
	남 자	13.8	21.9	8.6	26.5	29.2	35.2(479)	$\chi^2=0.1418$
연 령	35-39	13.1	18.8	12.6	23.0	32.5	14.0(191)	$\chi^2=10.02$
	40-44	15.7	19.0	11.4	26.4	27.6	40.7(554)	$\chi^2=0.8655$
	45-49	12.1	19.8	9.3	30.4	28.4	29.2(398)	
	50-54	12.7	20.8	11.6	27.2	27.7	12.7(173)	
	55이상	13.0	13.0	10.9	32.6	30.4	3.4(46)	
학 력	중졸이하	14.5	18.2	12.5	27.2	27.6	35.9(489)	$\chi^2=13.59$
	고 졸	13.7	18.5	12.2	26.7	28.9	45.2(615)	$\chi^2=0.0931$
	대졸이상	12.8	22.9	5.0	29.5	29.8	18.9(258)	
인식정도	하	17.0	19.5	12.6	27.7	23.3	11.7(159)	$\chi^2=11.09$
	중	13.1	18.4	12.6	27.7	28.1	53.7(732)	$\chi^2=0.1962$
	상	13.8	20.4	7.9	26.8	31.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4.0	19.2	10.2	28.3	28.3	25.2(343)	$\chi^2=13.13$
	여 중	16.0	16.3	12.0	24.1	31.6	24.4(332)	$\chi^2=0.3596$
	남 고	12.7	22.9	12.4	25.4	26.6	23.7(323)	
	여 고	12.6	18.7	9.3	31.3	28.0	26.7(364)	
합 (실 수)	계	13.8 (188)	19.2 (262)	10.9 (149)	27.4 (373)	28.6 (390)	100 (1,362)	

단위: %(명)

5.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심리적 이유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이제까지 정신적 의존관계에 있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 즉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이 약화되고 관심이나 취미, 생각이 비슷한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고는 적극적이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경향이 많고 흑백논리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들로서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불안감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부모들의 불안감은 자녀들의 학습문제, 교우문제,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가하려 한다. 그리고 통제의 척도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기준삼음으로 자녀들과의 갈등관계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87년 연세대 김 인희교수(교육학과)와 현대사회연구소가 서울시내 중·고생과 학부모 3천 7백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와 자녀관계의 현 좌표」 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학생 50% 이상이 ‘지금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대부분(91.6%)의 부모들은 ‘내자식 만큼은 나를 부모로 둔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의 성공을 상급학교의 진학, 즉 대학진학으로 보고 대학입학 이전에는 자녀들의 자유를 '유보'하는 형식으로 제한시킨다. '대학에 입학해서 맘껏 자유를 누리라'고 설득하면서 '공부하라'는 말로 채찍질을 가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TV 좀 그만봐라'이고 이런 말을 자녀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로 뽑고 있다. 학교에선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가정으로 돌아와선 부모님이 짜놓은 시간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과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반응은 26%에 불과하다. 그리고 [표Ⅳ-19]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요즈음 자녀 과잉보호 현상을 여실히 나타내 준다.

사회환경 특히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고 학벌위주인 현 풍토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여겨지므로 자녀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자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자녀'라는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볼 때, 부모 모두가 모든 자녀들에 대한 책임자가 되어 보호하고 규제할 때, 청소년들은 학교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습득이외에도 체험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의 과정을 자기통제력에 의해 터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Ⅳ-19]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평균:2.48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3.7	37.8	12.0	19.3	7.2	64.8(883)	$\chi^2=0.72$
	남 자	23.8	39.2	10.6	18.8	7.5	35.2(479)	$\chi^2=0.9479$
연 령	35-39	27.2	37.7	11.5	15.7	7.9	14.0(191)	$\chi^2=13.02$
	40-44	22.0	40.4	11.6	19.9	6.1	40.7(554)	$\chi^2=0.6707$
	45-49	26.6	36.2	10.3	18.3	8.5	29.2(398)	
	50-54	17.9	38.2	13.9	22.5	7.5	12.7(173)	
	55이상	26.1	34.8	13.0	17.4	8.7	3.4(46)	
학 력	중졸이하	24.3	34.2	13.1	20.2	8.2	35.9(489)	$\chi^2=13.23$
	고 졸	24.1	38.9	10.1	20.3	6.7	45.2(615)	$\chi^2=0.1040$
	대졸이상	21.7	45.0	12.0	14.0	7.4	18.9(258)	
인식정도	하	19.5	31.4	18.9	17.6	12.6	11.7(159)	$\chi^2=32.21$
	중	22.1	38.0	12.7	20.5	6.7	53.7(732)	$\chi^2=0.0001$
	상	27.6	41.2	7.2	17.4	6.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1.6	40.5	11.7	19.0	7.3	25.2(343)	$\chi^2=43.57$
	여 중	29.8	31.0	11.4	15.7	12.0	24.4(332)	$\chi^2=0.0000$
	남 고	16.7	41.8	13.6	20.7	7.1	23.7(323)	
	여 고	26.4	39.8	9.6	20.9	3.3	26.7(364)	
합	계	23.7	38.3	11.5	19.1	7.3	100	
(실	수)	(323)	(522)	(157)	(260)	(100)	(1,362)	

단위: %(명)

6.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매의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은 새삼 오늘 날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논점이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다. 옛 속담에도 미운자식 떡 더주고 예쁜자식 매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매의 사용은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는 교육현장에서도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한 수단으로 당연히 되었던 매의 사용이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법으로까지 금지시키는 나라(79년 일본의 한 대학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매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1백6개 조사대상국 중 영국,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태국, 한국, 페루, 인도 등 14개국이며, 반면에 법으로 매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소련, 이스라엘 등 57개국이며, 법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20개국이다(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p.195).)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많고 스웨덴의 경우엔 부모의 매까지 금지하는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현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고 한, 두자녀 갖기 운동으로 평균 4인가족이 되

면서,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면서 부모들은 가정을 자녀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교육(학습면)을 위해서는 매의 사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속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이나 예의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학습지도에 관한 것일 것이다. 요즘과 같이 학교성적에 의해서 자녀들의 진로가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보다 나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거나 자극을 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자극의 한 방편으로 매를 사용하는 것은 쉽고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의 사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매의 사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 학습상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매를 사용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시험 점수를 연관시켜 벌을 가하는 경우 보다는 일정 점수에 미달한 경우 벌을 가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가정에 돌아와서도 학습 결과에 대해 부모님들께 추궁받게 마련인 것이다. 자녀들의 능력과 연관시켜 못미친 성적에 대해 벌을 가한다면 자녀들은 매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하고 더욱 분발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대에 기준하여 자녀의 성적을 탓하고 벌한다면 자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이중으로 받는 압력에 대해 좌절감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를 지도 모를 것이다.

자녀들이 생활습관이나 예의범절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보다 학습지도상에 문제가 있을 때 매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매'로 가장된 매가 아닌 진실로 사랑과 근심과 격려가 담겨 있는 따스한 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20]은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Ⅳ-20]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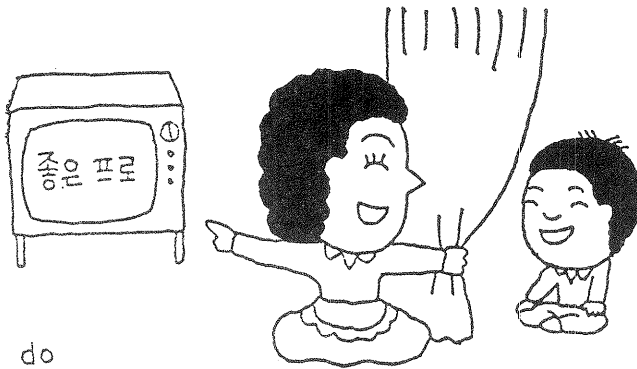
(평균:2.294)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6.4	32.5	7.9	17.2	6.0	64.8(883)	$\chi^2=9.87$
	남 자	28.6	37.0	9.0	17.3	8.1	35.2(479)	$\chi^2=0.0426$
연 령	35-39	42.9	35.6	6.3	11.0	4.2	14.0(191)	$\chi^2=38.67$
	40-44	34.1	35.7	7.2	16.2	6.7	40.7(554)	$\chi^2=0.0012$
	45-49	31.9	33.4	8.3	20.1	6.3	29.2(398)	
	50-54	28.9	29.5	13.3	20.8	7.5	12.7(173)	
	55이상	21.7	30.4	10.9	17.4	19.6	3.4(46)	
학 력	중졸이하	37.2	32.3	8.6	14.7	7.2	35.9(489)	$\chi^2=11.04$
	고 졸	33.3	33.5	7.6	19.2	6.3	45.2(615)	$\chi^2=0.1990$
	대졸이상	27.5	38.8	9.3	17.4	7.0	18.9(258)	
인식정도	하	28.3	30.2	11.9	18.9	10.7	11.7(159)	$\chi^2=22.60$
	중	32.1	33.1	9.2	18.4	7.2	53.7(732)	$\chi^2=0.0039$
	상	37.8	36.9	5.7	14.9	4.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2.3	37.6	4.1	11.4	4.7	25.2(343)	$\chi^2=73.77$
	여 중	39.5	36.1	7.2	12.3	4.8	24.4(332)	$\chi^2=0.0000$
	남 고	26.3	30.3	13.3	21.4	8.7	23.7(323)	
	여 고	26.6	32.1	8.8	23.6	8.8	26.7(364)	
합	계	33.6	34.1	8.3	17.3	6.8	100	
(실	수)	(458)	(464)	(113)	(235)	(92)	(1,362)	

단위:%(명)

7.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나친 T.V시청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텔레비전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텔레비전의 기능 중 정보전달기능 만큼이나 큰 기능중의 하나는 오락매체로서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가정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텔레비전은 30여년만에 1가구 2TV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모든 현상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듯이 텔레비전의 보급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서부터 TV과외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가족간의 대화단절, 습관적인 TV시청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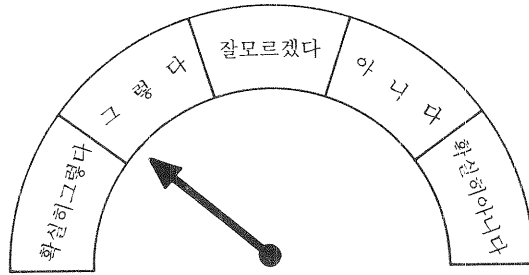
87년 YWCA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56.5%가 라디오·TV 시청난에 응답하고 있다. TV시청시간은 평일엔 35% 정도가 1시간 이상, 주말 및 휴일의 경우엔 중·고등학생의 60%이상이 4시간 이상 TV를 본다고 하여 주말을 TV시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 이유는 재미있으므로가 43.2%, 습관적으로가 17.6%로 나타났으나 TV의 청소년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는 22.7%에 그치고 있다. 주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은 영화와 쇼가 가장 많았으며 연속극, 뉴스, 코메디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독서나 취미생활의 비율보다 TV시청비율이 높은 것은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시문제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및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편으로 오락기능을 갖춘 TV시청에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대부분 할애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TV시청이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의 방식이 잔소리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자녀들은 이에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워버리면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부모들도 생활에서 텔레비전을 떼놓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부모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자유롭게 하면서 자녀들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 자식 잘되라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비합리적이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선별적인 규제와 아울러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책을 함께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TV시청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가족·친구들에게서 소외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88년 한양대 신방과 이 강수 교수의 「아동과 텔레비전 관계 분석」논문」에 의하면 소외된 아동일수록 TV시청율이 높고 이런 학생들은 배우나 가수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고 '되는데로 살고 싶다'고 말해 「스타증후군」에 빠지거나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Ⅳ-21]에서 볼 수 있듯이 86%가 그렇다고 대답해 자녀들의 TV시청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TV시청이 만성적이고 습관적인 TV시청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청이라면 프로그램 선별과 시청시간의 조절을 자녀와 함께 하고 같이 본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도 함께 해서 부모도 같이 노력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표Ⅳ-21]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평균:1.67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62.7	23.6	4.1	5.3	4.3	64.8(883)	$\chi^2=2.81$
	남 자	61.2	24.0	3.5	5.0	6.3	35.2(479)	$\chi^2=0.5886$
연 령	35-39	62.3	24.1	4.2	6.3	3.1	14.0(191)	$\chi^2=22.40$
	40-44	64.1	22.4	3.4	6.0	4.2	40.7(554)	$\chi^2=0.1307$
	45-49	63.1	22.6	3.3	4.3	6.8	29.2(398)	
	50-54	54.3	28.3	7.5	3.5	6.4	12.7(173)	
	55이상	60.9	30.4	.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61.1	23.5	4.5	5.3	5.5	35.9(489)	$\chi^2=4.38$
	고 졸	61.3	24.6	3.6	5.2	5.4	45.2(615)	$\chi^2=0.8211$
	대졸이상	66.3	22.1	3.5	5.0	3.1	18.9(258)	
인식정도	하	57.2	23.9	5.7	8.2	5.0	11.7(159)	$\chi^2=8.64$
	중	61.3	23.9	3.8	5.2	5.7	53.7(732)	$\chi^2=0.3732$
	상	65.2	23.4	3.4	4.2	3.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0.1	25.1	4.1	4.4	6.4	25.2(343)	$\chi^2=9.21$
	여 중	65.1	22.6	2.7	6.0	3.6	24.4(332)	$\chi^2=0.6846$
	남 고	60.4	24.5	5.6	5.0	4.6	23.7(323)	
	여 고	63.2	22.8	3.3	5.5	5.2	26.7(364)	
합	계	62.2	23.7	3.9	5.2	5.0	100	
(실	수)	(847)	(323)	(53)	(71)	(68)	(1,362)	

단위: %(명)

8.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은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학교 숙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일선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는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그 방식과 양은 달라지지만 대학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은 현 교육실정에서는 교육량에 비해 시간수는 적고 학생수는 많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학생들의 학습에의 이해도 축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학교 때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숙제에 많은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숙제는 그냥 대충 해가야 할 과제자체로 그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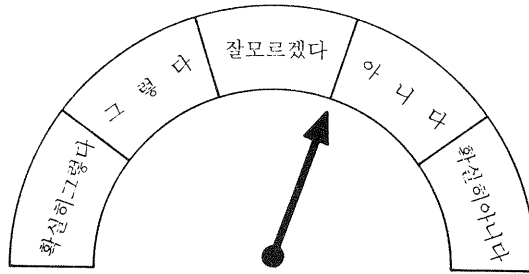
그렇지만 숙제를 통한 가정내에서의 학습지도는 학생개인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도하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요즘 숙제의 경향이 무조건적인 반복형식의 숙제에서 사고력을 유도하거나 탐구해 보아야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숙제의 충실한 이행은 공부하는 방법과 의욕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숙제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공부와 가정에서 하는 공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예습과 복습의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숙제는 학생이 해내야 할 의무 중의 하나이므로 숙제를 성실하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습관의 형성과 아울러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도 된다.

과거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숙제가 많을수록 좋았었다. 학교외의 기관이 많지 않았고 학교, 특히 교사의 권위는 당당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내용은 절대적이었었다. 그러나 학교가 입시학원화 되고 학력경쟁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 받는 학습내용만으로는 부족감·불안감을 느끼게 되자 과외나 학원수강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수강생 중 중·고재학생의 비율이 70~80%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방과후 이런 활동은 학교교육의 연장인 숙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표Ⅳ-22]에서 볼 수 있듯이 55%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숙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결과는 앞의 「치열한 입시 경쟁에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라는 문항의 응답결과인 [표Ⅳ-15]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공부가 당연하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민학교 졸업반에까지 번진 '과외열풍'과 치열한 입시전쟁에의 준비에 많은 숙제는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숙제가 곧 예습과 복습의 과정이고, 학습습관을 키워주고 책임의식을 일깨워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숙제의 성실한 이행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Ⅳ-22]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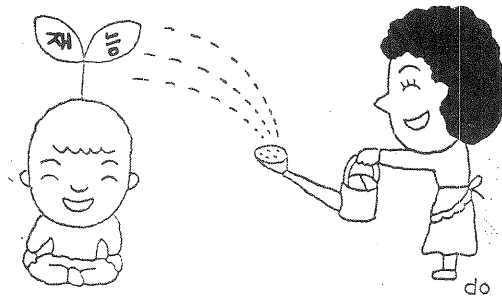
(평균:3.273)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2.6	19.4	13.8	40.9	13.4	64.8(883)	$\chi^2=6.28$
	남 자	9.8	20.5	11.7	40.9	17.1	35.2(479)	$\chi^2=0.1791$
연 령	35-39	10.5	24.1	12.0	37.7	15.7	14.0(191)	$\chi^2=19.06$
	40-44	13.2	20.9	13.5	39.0	13.4	40.7(554)	$\chi^2=0.2655$
	45-49	10.3	16.8	11.6	46.5	14.8	29.2(398)	
	50-54	11.0	20.2	15.6	38.7	14.5	12.7(173)	
	55이상	10.9	10.9	15.2	37.0	26.1	3.4(46)	
학 력	중졸이하	15.1	18.0	16.6	36.0	14.3	35.9(489)	$\chi^2=28.85$
	고 졸	10.2	22.3	11.4	42.9	13.2	45.2(615)	$\chi^2=0.0003$
	대졸이상	8.1	17.1	10.5	45.3	19.0	18.9(258)	
인식정도	하	9.4	20.1	17.6	35.2	17.6	11.7(159)	$\chi^2=13.27$
	중	12.7	20.2	13.8	38.9	14.3	53.7(732)	$\chi^2=0.1028$
	상	10.6	18.9	10.4	45.9	14.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2.5	19.5	10.8	43.7	13.4	25.2(343)	$\chi^2=27.17$
	여 중	16.0	17.8	13.3	33.7	19.3	24.4(332)	$\chi^2=0.0073$
	남 고	7.7	22.9	14.2	41.5	13.6	23.7(323)	
	여 고	10.2	19.0	14.0	44.2	12.6	26.7(364)	
합 (실 수)	계	11.6 (158)	19.8 (269)	13.1 (178)	40.9 (557)	14.7 (200)	100 (1,362)	

단위: %(명)

9.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특기교육에는 조기교육을 당연시한다.



예능교육(특기교육)에 관한 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85%) [표Ⅳ-23]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그 좋은 한 예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기교육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소질을 나타냈거나 집안에 예술인이 있을 경우 특기교육을 시켰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예체능 분야에선 다소 성적이 쳐져도 문제시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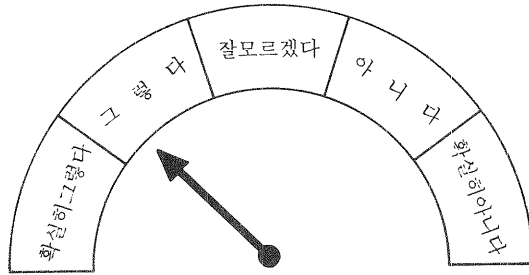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길 바라게 되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꼭 음대에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미술을 배우는 것이 곧 미대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듯 수영이나 태권도, 무용을 배우는 것이 체육대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다. 일종의 유행처럼 번진 특기 조기교육은 자녀들이 재능이나 감각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부모의 욕심에 의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식의 특기교육으로 광범위한 탐색경험을 통해 지능이나 정서 발달, 나아가서는 풍부한 상식을 얻을 수는 있을지라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예능성 계발에는 미묘한 측면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재능의 획일화, 고정화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녀의 능력이나 소질, 취미 등을 살펴서 1~2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한다면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많이 알고 뛰어나다는 것은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의 욕심에 의한,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식의 불안감에 의한 특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저학년에서의 이런 특기교육이 국민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예·체능계 대학 지원자외에는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바뀌어서 정서교육에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녀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 소질이 충분히 있고 흥미와 관심도 있다면 특기 조기교육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양을 갖춰주기 위한 특기교육이라면 국민학교 저학년 때만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 식이 아니라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꾸준히 배우게 해서 치열한 입시경쟁속에서도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슬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표Ⅳ-23]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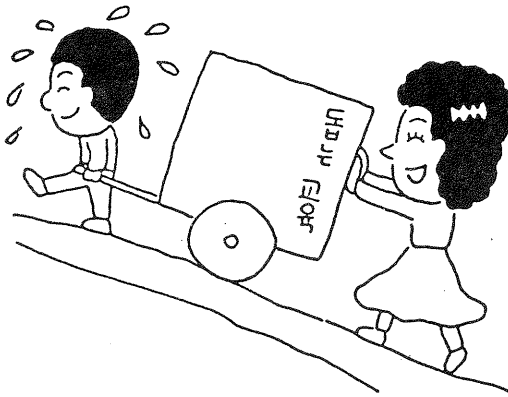
(평균:1.74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0.7	35.0	7.9	5.3	1.0	64.8(883)	$\chi^2=5.58$
	남 자	45.7	36.7	9.6	5.8	2.1	35.2(479)	$\chi^2=0.2327$
연 령	35-39	48.7	35.1	7.3	7.3	1.6	14.0(191)	$\chi^2=8.44$
	40-44	50.0	34.8	8.5	5.4	1.3	40.7(554)	$\chi^2=0.9345$
	45-49	49.0	37.4	7.5	5.0	1.0	29.2(398)	
	50-54	48.6	33.5	11.0	4.6	2.3	12.7(173)	
	55이상	39.1	39.1	13.0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50.3	31.3	12.1	5.5	0.8	35.9(489)	$\chi^2=23.38$
	고 졸	50.2	37.4	5.9	5.2	1.3	45.2(615)	$\chi^2=0.0029$
	대졸이상	43.4	39.5	8.1	6.2	2.7	18.9(258)	
인식정도	하	50.3	30.8	12.6	5.0	1.3	11.7(159)	$\chi^2=10.93$
	중	47.7	35.5	9.4	5.7	1.6	53.7(732)	$\chi^2=0.2053$
	상	50.5	37.4	5.7	5.3	1.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5.2	40.5	8.2	5.2	0.9	25.2(343)	$\chi^2=11.05$
	여 중	53.3	30.1	8.7	5.7	2.1	24.4(332)	$\chi^2=0.5238$
	남 고	46.7	36.5	9.6	5.6	1.5	23.7(323)	
	여 고	50.5	35.2	7.7	5.5	1.1	26.7(364)	
합	계	49.0	35.6	8.5	5.5	1.4	100	
(실	수)	(667)	(485)	(116)	(75)	(19)	(1,362)	

단위: %(명)

10.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시 남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단시일내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근간이 되었었다. 식민지 시대를 거쳤던 우리 민족은 미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자녀관은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이나 희망을 투사시켰기 때문에 희생을 마다않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자녀교육에 힘써왔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녀를 각 발달단계에서 나뉠대로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조종 가능한 객체로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모두 수험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수험생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강좌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법 강좌까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오히려 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서 수험부담을 가중시키기까지 한다. 그리고 가계압박을 당하면서까지 과외를 시키고 온갖 입시 뒷바라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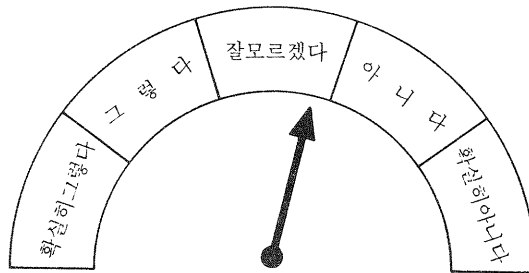
보를 수집,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모의 심정은 강건너 불이던 일이 수험생이 있으면 쉽게 공감하게 된다고 한다.

과잉보호속에서 신체적 성장만을 하고 정신적 성숙은 채 이루지 못한 요즘 청소년들은 쉽게 좌절하고 의존성이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모들은 핵가족화 되면서 과거에는 여러 자녀들에게 분산되어 기대했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한·두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과잉기대로 자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선까지 무리하게 몰아세우는 경우까지 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이후 학력 기준선이 모호하고 입시제도 또한 선지원 후시험제도가 되면서 불안심리는 더욱 가중되어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항을 통해 학부모들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표Ⅳ-2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에는 28%, 따라하지 않는다는 반응에는 58%, 갈등상태는 14%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50대 보다는 30대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반응 즉 따라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은 자녀의 성격, 학습습관 및 태도,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맞는 길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학부모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직 자녀가 치열한 입시경쟁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획일화된 교육체제속에서 지식편중교육을 받으며 사랑보다는 경쟁을, 도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을 배우며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되는 풍토속에서 힘겹게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와 희열을 가르쳐 주어 각 개개인 나름대로의 개성의 꽃을 피워 나가게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식사랑과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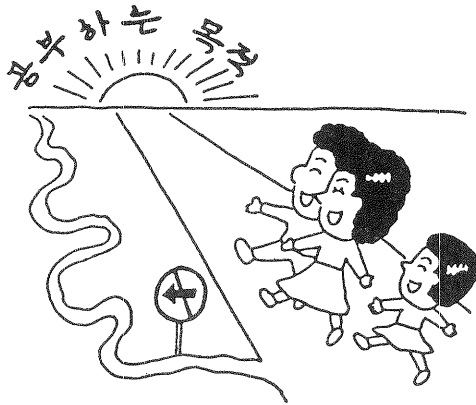
〔표Ⅳ-24〕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다
(평균:3.42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7.0	22.1	14.0	35.0	21.9	64.8(883)	$\chi^2=6.28$
	남 자	9.6	18.4	12.5	38.4	21.1	35.2(479)	$\chi^2=0.1787$
연 령	35-39	9.4	15.7	14.7	35.6	24.6	14.0(191)	$\chi^2=19.89$
	40-44	6.0	22.2	13.9	36.6	21.3	40.7(554)	$\chi^2=0.2249$
	45-49	9.3	22.6	10.1	36.2	21.9	29.2(398)	
	50-54	9.8	18.5	19.1	35.3	17.3	12.7(173)	
	55이상	6.5	17.4	13.0	37.0	26.1	3.4(46)	
학 력	중졸이하	9.4	20.7	16.2	32.7	21.1	35.9(489)	$\chi^2=11.70$
	고 졸	6.8	20.8	12.0	39.7	20.7	45.2(615)	$\chi^2=0.1651$
	대졸이상	7.8	20.9	12.0	34.5	24.8	18.9(258)	
인식정도	하	9.4	18.2	24.5	28.3	19.5	11.7(159)	$\chi^2=26.60$
	중	8.3	21.6	13.0	37.3	19.8	53.7(732)	$\chi^2=0.0008$
	상	6.8	20.4	10.6	37.2	25.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8.5	20.7	10.5	37.0	23.3	25.2(343)	$\chi^2=19.72$
	여 중	7.8	16.3	13.9	35.2	26.8	24.4(332)	$\chi^2=0.0725$
	남 고	8.7	21.7	16.4	36.5	16.7	23.7(323)	
	여 고	6.9	24.2	13.5	36.0	19.5	26.7(364)	
합 (실 수)	계	7.9 (108)	20.8 (283)	13.5 (184)	36.2 (493)	21.6 (294)	100 (1,362)	

단위: %(명)

11.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는가?

조사결과: 부모들 대다수는 자녀들에게 공부의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학습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학습을 위해 인간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형식적 교육을 받는다. 심리학자인 레빈(Lewin)은 '인간의 행동은 사람과 환경과의 함수관계'라고 했는데, 이는 즉 사람의 행동은 개인의 상태(성격이나 심리상태)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공부도 행동의 범주에 속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아울러 마음가짐, 즉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학습동기가 저하되면 학습부진에 이르고 이것이 누적되면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까지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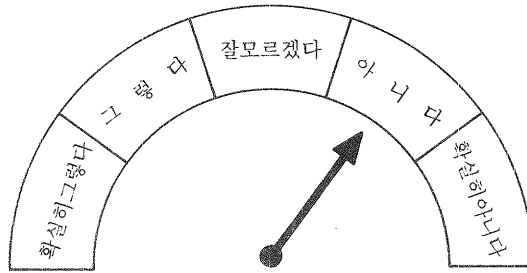
또한 무조건적인 공부의 강요는 이탈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등 표면상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자녀를 몰아세우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인간은 어떤 일에 서든지 목적을 알고 목표를 확고히 세울 때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목적을 이해해야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은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표Ⅳ-25〕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 대다수(80%)의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공부해야 하는 목적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KBS라디오가 청소년과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이 필요한 이유로 자신의 가치지향(46.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벌존중의 사회풍토(28.7%), 장래직업(19.5%)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벌존중의 사회풍토(39.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다음이 자녀의 가치지향(36.7%), 취직(19.5%)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경향신문, 1987. 1. 30). 이런 반응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이상적인데 반해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학벌존중의 사회풍토’ 때문에 청소년들에게서도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아마도 부모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부모입장에서 주지시켰기 때문인 듯하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업 갖고 편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요새는 대학 졸업장 없으면 살기 힘들다 공부 열심히 해라’이고 여기에 대해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바람은 커서 어떤 직장을 택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하느냐 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 것 같다’고 항변한다.



[표Ⅳ-25]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평균:4.05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1	8.2	6.9	34.7	45.2	64.8(883)	² =1.66
	남 자	6.5	7.9	7.3	32.4	45.9	35.2(479)	=0.7975
연 령	35-39	6.8	12.6	6.3	31.4	42.9	14.0(191)	² =17.76
	40-44	5.1	7.6	6.3	34.1	46.9	40.7(554)	=0.3376
	45-49	6.5	6.5	6.8	34.9	45.2	29.2(398)	
	50-54	3.5	7.5	8.7	35.8	44.5	12.7(173)	
	55이상	6.5	10.9	15.2	23.9	43.5	3.4(46)	
학 력	중졸이하	6.1	8.4	8.6	34.8	42.1	35.9(489)	² =8.46
	고 졸	5.5	8.3	7.0	33.2	46.0	45.2(615)	=0.3898
	대졸이상	4.7	7.0	4.3	33.7	50.4	18.9(258)	
인식정도	하	7.5	11.9	13.2	30.8	36.5	11.7(159)	² =37.92
	중	5.7	7.4	8.6	34.8	43.4	53.7(732)	=0.0000
	상	4.7	7.9	2.5	33.3	51.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1	10.2	4.7	32.9	46.1	25.2(343)	² =16.14
	여 중	7.5	7.8	5.7	31.6	47.3	24.4(332)	=0.1849
	남 고	4.3	6.5	9.6	35.0	44.6	23.7(323)	
	여 고	4.4	7.7	8.2	35.7	44.0	26.7(364)	
합 (실 수)	계	5.6	8.1	7.0	33.8	45.4	100	
	(76)	(110)	(96)	(461)	(619)	(1,362)		

단위:%(명)

12.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통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중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들의 의·식·주, 학습, 직업선택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결혼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원하며 일방적인 통제에 대해서는 반항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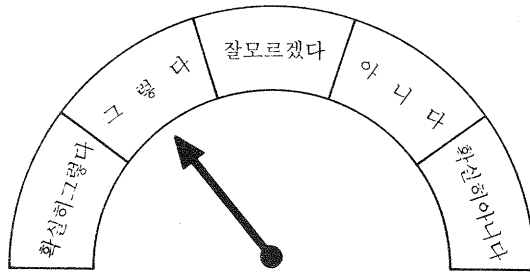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과거보다 길어진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이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을 길게 해준다. 이런 청소년기에 이룩해야 하는 발달과업은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모두 걸쳐 조화롭게 이룩되어야 하건만, 현 우리사회에서는 지적 영역에만 치우쳐서 청소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 영역 발달에서도 논리적 사고 및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입시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계적인 암기능력 향상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나 교사의 학업

에 대한 지나친 강요라 할 수 있다. 공부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생활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한다기 보다는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업이라든지 의무 또는 책임 등이 따르는 부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성인들이 수행하는 일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만, 공부에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보상만이 예상된다는 점이 성인들의 직업생활과 청소년들의 학업생활에서의 차이점일 것이다.

그리고 성인들은 여러가지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가는 반면,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내는 힘이 약하다. 중앙대 이길홍 교수(신경정신과)의 지적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정신의학상 '태풍의 시기'로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져 조그만 자극에도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이다. 요즘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너무 복잡적이고 구조적인 것이지만 학교나 가정 모두에서 성적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서 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압박감과 정서교육의 부족으로 삶의 의미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도표Ⅳ-26]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남·여,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당연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자녀들의 보다 나은 장래를 원하는 부모들로서는 자기통제력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과업인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권위로서 몰아세우는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닌,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부모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다.



[표Ⅳ-26]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평균:2.336)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9.8	37.1	10.9	15.5	6.7	64.8(883)	$\chi^2=2.09$
	남 자	29.9	36.3	9.0	17.3	7.5	35.2(479)	$\chi^2=0.7190$
연 령	35-39	34.0	39.8	8.9	11.5	5.8	14.0(191)	$\chi^2=10.02$
	40-44	29.8	35.6	9.9	16.8	7.9	40.7(554)	$\chi^2=0.8653$
	45-49	29.6	37.4	9.5	17.3	6.0	29.2(398)	
	50-54	26.6	36.4	13.3	16.2	7.5	12.7(173)	
	55이상	26.1	37.0	13.0	17.4	6.5	3.4(46)	
학 력	중졸이하	33.9	32.9	11.9	14.1	7.2	35.9(489)	$\chi^2=22.65$
	고 졸	29.6	39.5	9.1	16.4	5.4	45.2(615)	$\chi^2=0.0038$
	대졸이상	22.5	38.0	9.7	19.4	10.5	18.9(258)	
인식정도	하	23.9	32.7	16.4	17.6	9.4	11.7(159)	$\chi^2=20.57$
	중	29.9	38.9	10.7	15.0	5.5	53.7(732)	$\chi^2=0.0084$
	상	31.6	35.0	7.4	17.4	8.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1.2	38.8	7.6	14.3	8.2	25.2(343)	$\chi^2=47.74$
	여 중	37.7	32.8	10.8	10.2	8.4	24.4(332)	$\chi^2=0.0000$
	남 고	22.0	34.4	12.4	23.8	7.4	23.7(323)	
	여 고	28.3	40.9	10.2	16.5	4.1	26.7(364)	
합 (실 수)	계	29.8 (406)	36.9 (502)	10.2 (139)	16.2 (220)	7.0 (95)	100 (1,362)	

단위:%(명)

요 약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모들의 자녀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태도성향은 일반적으로 교육현실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수단적)인 반면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과 같은 이론적 사항에 대해선 이상적(목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과외공부나 재수의 필요성, 자녀의 자유제한이나 학습지도시 체벌의 필요성과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각 문항에서 언급되었듯이 자녀들과의 견해차를 보이면서 자녀를 각 발달단계에서 나름대로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조종 가능한 객체로 보는 태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대학진학이 필요한 이유를 ‘학벌존중의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타조사 결과와는 달리 교육이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보다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이상적(목적적)인 태도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학습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理想)이란 각자의 그 지식·경험의 범위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뜻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뜻한다. 자녀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구조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엮물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가 보다. 즉 사회의 낙오자가 되게하지 않기위해 이상은 이상으로 접어두고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새로운 의식개혁과 이념 정립으로 이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과 진로

	평 균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	3.06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만은 없다.	3.85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하다	3.17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3.38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2.48
자녀교육을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2.29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1.67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	3.27
자녀의 특기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1.75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3.43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4.06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2.33

3. 성과 이성교제

이땅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직면하는 문제 또는 과제는 학업 또는 진로와 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성생활과 이에 동반되는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의견은 청소년의 성생활과 이성교제에서 비교적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몇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알아본다.

첫째, 청소년 성생활의 초보단계인 성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용수침치는 성충동의 억제, 그 해결책의 하나인 자위행위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본다.

둘째, 이성교제에 대한 몇가지 측면, 즉 학업과의 관계, 아들과 딸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와 성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파악한다. 아울러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가지거나,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

셋째, 청소년의 성생활과 이성관계를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접근 방식중의 하나인 “남녀칠세 부동석”(남여유별)과 남녀분리교육에 관한 의견,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살펴보고 끝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지를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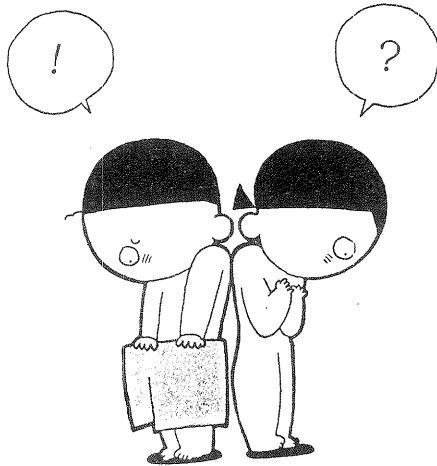
연구자의 관심을 질문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각 질문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관심사”와 관련지워 청소년의 생활을 가능한 한 정확히 소개하며, 청소년의 삶과 부모의 인식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술한다.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하는가?
2.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되는가?
3.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닌가?
4.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되는가?
5.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되는가?

6.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가?
7.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가?
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는가?
9.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닌가?
10.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러운가?
11. 때가되면 자연히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12.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는가?
13.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한가?
14.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상담기관에 흔히 접수되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부모들(성인)이 보기에는 매우 유치한 것들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몽정, 자위행위, 포경수술, 성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여자 청소년들은 월경, 유방, 체모, 자위행위, 임신 등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그중 집단별로 전형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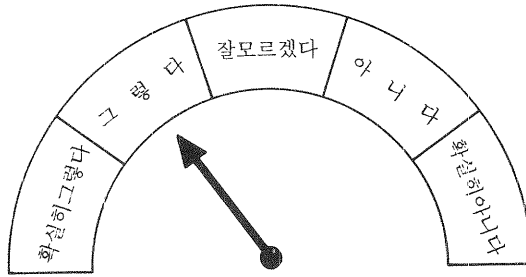
- 친구들은 다 생리가 있는데 나만 없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 보다. (중1, 여)
중3초부터 성기가 이상해진다. (중3, 남)
자위행위 횟수가 많아져서 걱정이다. 몸에 이상이 없을지? (고1, 남)
포경수술을 해야만 하는가? (고2, 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된 오빠에게 편지를 했는데 내마음을
몰라주고 답장이 없다. (고2, 여)

이밖에도 이성의 성기관에 대한 문의, 성용어·성생활에 대한 호기심, 임신·출산·피임에 대한 지식, 성병, 성적 장애 등에 대한 호기심도 다소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신의 신체변화에서 시작되어 구체적인 성관계 진후에 생기는 문제에까지 걸쳐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의학박사가 사춘기 초기인 국민학교 5~6학년 표본 학생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임신의 기원, 월경 등에 관한 지식을 비교적 정확했으나 출산·몽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성지식을 선생님(34.2%), 대중매체(21.2%), 부모(15.8%), 친구(13.9%)에게서 얻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사춘기 초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분적으로 교사나 부모에게서 얻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잡지·TV·라디오 등 대중매체나 동성·이성친구에게서 얻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피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나 교사는 10대 자녀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사춘기 초기에 정확한 성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 중에서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있지만, 10대 자녀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성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읽고 자녀들의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성교육자료를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표 IV-27]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평균:2.16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3.7	38.7	10.9	11.4	5.2	64.8(883)	$x^2=2.21$
	남 자	30.7	42.4	10.0	11.9	5.0	35.2(479)	$p=0.6960$
연 령	35-39	27.7	40.3	11.0	13.6	7.3	14.0(191)	$x^2=12.48$
	40-44	32.9	37.9	11.6	12.6	5.1	40.7(554)	$p=0.7098$
	45-49	34.9	42.7	9.3	9.3	3.8	29.2(398)	
	50-54	31.2	39.9	11.0	11.6	6.4	12.7(173)	
	55이상	37.0	41.3	6.5	10.9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32.7	38.9	12.9	9.8	5.7	35.9(489)	$x^2=10.27$
	고 졸	31.4	41.8	10.1	12.0	4.7	45.2(615)	$p=0.2463$
	대졸이상	35.7	38.0	7.4	14.0	5.0	18.9(258)	
인식정도	하	28.3	39.6	14.5	13.2	4.4	11.7(159)	$x^2=11.61$
	중	31.7	41.4	11.5	10.7	4.8	53.7(732)	$p=0.1695$
	상	35.7	38.0	7.9	12.5	5.9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7.4	43.1	12.0	12.5	5.0	25.2(343)	$x^2=39.42$
	여 중	41.3	31.6	9.6	11.4	6.0	24.4(332)	$p=0.0001$
	남 고	23.8	43.7	12.4	14.2	5.9	23.7(323)	
	여 고	37.6	41.5	8.5	8.5	3.8	26.7(364)	
합 (실 수)	계	32.7 (445)	40.0 (545)	10.6 (144)	11.6 (158)	5.1 (70)	100 (1362)	

단위: %(명)

2.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은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성교제에서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용수츠 치는 성충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까지 되었는데 “중절”하는 방법을 묻는 것들이다. 요약하면 성충동에 대한 질문은 “왜”가 아니고 “어떻게”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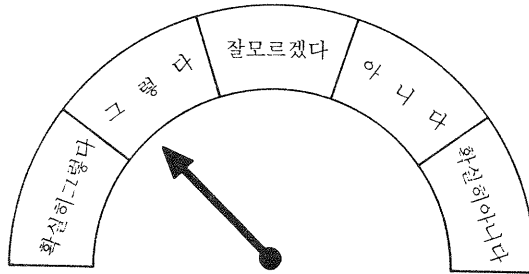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부모들의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의 성충동은 스스로 억제되어야 된다고 한다. 성 상품화의 만연으로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일찍, 예전보다 더 강하게 성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억제해야 되는가?

이웃나라 일본에서 1975년도에 “청소년의 성행동”을 조사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은 남자의 90% 이상 여자의 50% 정도가 성충동(성적 흥분)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성충동을 느낀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간지·잡지 등에서 성적 기사를 읽거나, 성

적 사진을 보거나, 성적 만화를 보거나, TV·영화를 보아서 등 4가지 동기가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여, 주간지, 잡지, TV,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의 외설 기사와 사진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하는 주범임을 알려준다(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75, p. 26).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주간지와 잡지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색잡지 못지 않게 외설기사와 사진을 게재하고 국내 유명 스포츠신문들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만화를 “부록”이란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성충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이렇게 부추겨진 성충동은 흔히 “자위행위”를 통하여 해소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충동이 자위행위와 같은 개인적이고 값싼방식 등에 의해서 해결되거나 운동, 취미생활 등 다른 허용된 방식으로 성충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면 잔인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강간(성폭행), 윤간, 혼음, 매음 등은 그 일부일뿐이다. 성충동의 비정상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학증, 피학증, 여성(남성) 물건애, 관음증, 의상도착증, 노출증과 같은 변태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보고된 자료는 많지 않지만 근친성학대, 근친상간도 성충동이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자위행위 등을 통하여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예이다.



[표 IV-28]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된다

(평균:1.95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7.1	31.4	10.0	7.4	4.2	64.8(883)	$x^2=11.40$
	남 자	38.8	34.9	14.4	7.3	4.6	35.2(479)	$p=0.0224$
연 령	35-39	36.1	37.7	14.7	5.2	6.3	14.0(191)	$x^2=22.14$
	40-44	43.7	31.4	10.8	9.9	4.2	40.7(554)	$p=0.1387$
	45-49	46.5	32.2	10.8	6.0	4.5	29.2(398)	
	50-54	46.2	34.1	12.1	4.6	2.9	12.7(173)	
	55이상	56.5	23.9	10.9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44.6	31.1	11.7	8.2	4.5	35.9(489)	$x^2=7.19$
	고 졸	46.3	32.2	11.4	6.0	4.1	45.2(615)	$p=0.5153$
	대졸이상	38.4	36.4	11.6	8.9	4.7	18.9(258)	
인식정도	하	44.0	30.8	18.2	4.4	2.5	11.7(159)	$x^2=14.02$
	중	43.2	32.2	11.2	8.6	4.8	53.7(732)	$p=0.0810$
	상	45.9	33.8	9.8	6.4	4.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2.4	39.4	14.3	9.6	4.4	25.2(343)	$x^2=69.49$
	여 중	52.7	27.7	7.8	5.1	6.6	24.4(332)	$p=0.0000$
	남 고	35.6	37.8	14.9	8.7	3.1	23.7(323)	
	여 고	55.2	26.1	9.3	6.0	3.3	26.7(364)	
합 (실 수)	계	44.2	32.6	11.5	7.3	4.3	100	
		(602)	(444)	(157)	(100)	(59)	(1362)	

단위: % (명)

3.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닌가?

조사결과: 청소년의 자위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정상, 비정상 그리고 모르겠다고 삼분된다.



청소년의 성충동은 흔히 자위행위를 통하여 해소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위행위는 흔히 자신의 손으로 “씨다리”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것인데,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은 남자의 86.2%, 여자의 22.5%가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자위행위를 처음한 연령은 14세이전이 남자의 69.3%, 여자의 5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가 되면 남자의 80%이상, 여자의 20%정도가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성교육협회, 1975, p.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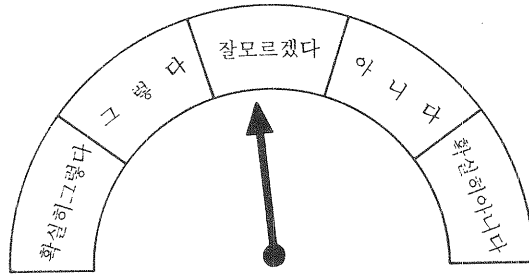
많은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한 적이 있고,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죄악시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죄의식에 빠지거나, 상식적인 방식으로 하지 못하고 노출증 등 병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 등에는 적절한 성교육과 성치료가 요구된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자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위행위로 인하여 “병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지나친 자위행위는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이른바 조루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자위행위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적당한 정도의 자위행위는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자위행위를 정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위행위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는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남의 눈이 띄지 않은 곳에서 하며 휴지 등을 사용해서 뒷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서는 자위행위 이외의 방식으로 성적 에너지를 승화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IV-29]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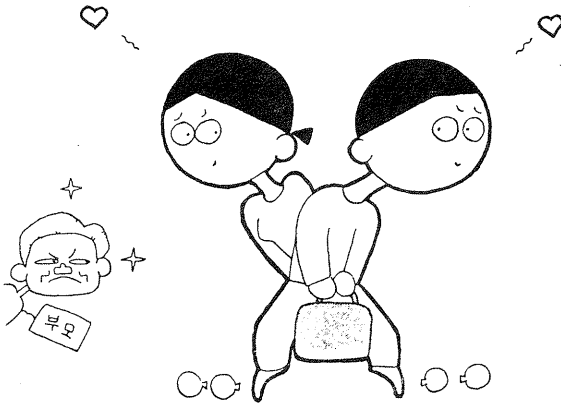
(평균:2.75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6.6	18.9	24.1	22.0	8.4	64.8(883)	$x^2=18.25$
	남 자	21.5	19.2	19.6	25.3	14.4	35.2(479)	$p=0.0011$
연 령	35-39	24.6	14.7	25.7	24.1	11.0	14.0(191)	$x^2=17.52$
	40-44	21.7	22.0	23.1	23.8	9.4	40.7(554)	$p=0.3526$
	45-49	28.1	15.8	21.6	22.6	11.8	29.2(398)	
	50-54	25.4	22.0	19.1	23.1	10.4	12.7(173)	
	55이상	32.6	17.4	23.9	15.2	10.9	3.4(46)	
학 력	중졸이하	30.5	19.4	23.9	18.0	8.2	35.9(489)	$x^2=39.51$
	고 졸	24.4	18.5	22.9	23.9	10.2	45.2(615)	$p=0.0000$
	대졸이상	15.1	19.4	19.0	31.0	15.5	18.9(258)	
인식정도	하	30.8	17.6	23.3	17.6	10.7	11.7(159)	$x^2=19.82$
	중	25.8	18.7	24.3	22.8	8.3	53.7(732)	$p=0.0110$
	상	21.2	20.0	19.5	25.5	13.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6.9	22.4	23.0	26.8	10.8	25.2(343)	$x^2=72.31$
	여 중	33.1	17.2	19.9	19.0	10.8	24.4(332)	$p=0.0000$
	남 고	15.5	14.2	29.4	27.9	13.0	23.7(323)	
	여 고	33.0	21.7	18.4	19.2	7.7	26.7(364)	
합	계	24.8	19.0	22.5	23.1	10.5	100	
(실	수)	(338)	(259)	(307)	(315)	(143)	(1362)	

단위: % (명)

4.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되는가?

조사결과: 이성교제가 청소년의 전유물은 아닐지라도 “이성교제”는 흔히 청소년과 관련시켜 거론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그 자체가 청소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된다.



많은 부모들은 이성교제는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자제하여줄 것을 희망한다. 어떤 부모들은 이성교제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학생은 당연히 공부만 해야하고 여자(남자)에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고집한다.

이처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키거나 규제하는 것은 이성교제가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자(남자)친구 사귀는 것은 대학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어머니의 말이나, “대학에서 만날 때까지 당분간 절교하자”는 청소년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적어도 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추세는 이성교제를 조장하는 남녀공학학교, 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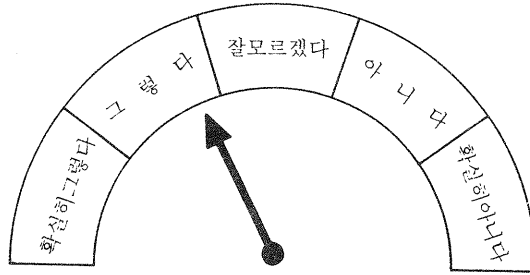
교제를 허용하는 사회분위기 등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십대들의 쪽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십대들의 고민중에서 가장 큰 고민사항이 이성문제(27.1%)인데 그 내용도 마음에 있는 이성과 사귀고 싶다,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좋아요, 순결을 잃었어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쪽에서 건전하게 지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런 삶의 일부이고, 이 시기의 동성간의 우정이 한 평생동안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청소년기의 이성친구도 역시 한 사람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길 기대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들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조장할만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 이성 친구의 인간됨이나 이성교제 중에 일어난 이야기거리를 연상하기에 앞서 이성교제로 인한 학업태만 또는 이성교제후 나타난 “성적 부진”만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부모세대의 책임이다. 또한 이성교제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사항은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의할 수 있느냐이다.



[표 IV-30]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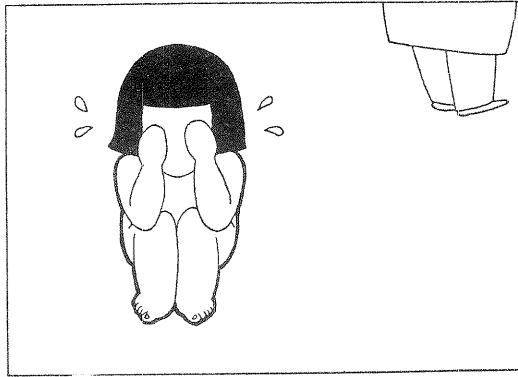
(평균:2.566)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8.4	32.8	8.5	20.7	9.5	64.8(883)	$x^2=5.94$
	남 자	24.2	31.3	8.6	23.4	12.5	35.2(479)	$p=0.2032$
연 령	35-39	23.0	30.4	7.9	27.2	11.5	14.0(191)	$x^2=16.51$
	40-44	26.7	32.5	8.1	21.7	11.0	40.7(554)	$p=0.4177$
	45-49	30.2	31.4	8.0	20.6	9.8	29.2(398)	
	50-54	24.3	34.7	11.0	17.3	12.7	12.7(173)	
	55이상	28.3	37.0	10.9	23.9		3.4(46)	
학 력	중졸이하	26.8	29.4	11.5	22.3	10.0	35.9(489)	$x^2=14.32$
	고 졸	26.5	35.0	7.6	21.0	9.9	45.2(615)	$p=0.0738$
	대졸이상	28.3	31.4	5.0	22.1	13.2	18.9(258)	
인식정도	하	25.8	30.2	9.4	22.0	12.6	11.7(159)	$x^2=6.77$
	중	25.0	33.5	9.3	22.1	10.1	53.7(732)	$p=0.5607$
	상	30.4	31.2	7.0	20.8	10.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6.2	30.0	8.2	26.8	8.7	25.2(343)	$x^2=36.77$
	여 중	30.1	31.0	9.0	18.7	11.1	24.4(332)	$p=0.0002$
	남 고	21.1	29.1	10.2	24.1	15.5	23.7(323)	
	여 고	29.9	38.5	6.9	17.3	7.4	26.7(364)	
합 (실 수)	계	26.9 (367)	32.3 (440)	8.5 (116)	21.7 (295)	10.6 (144)	100 (1362)	

단위: %(명)

5.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되는가?

조사결과:부모들은 여전히 청소년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아들 보다는 딸의 이성교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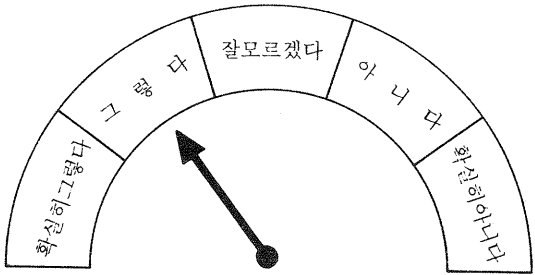
이성교제에 대한 반응의 성별차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한 상담기관에서 1년동안 전화상담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성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여중생 29.7%, 여고생 25.7%), 여기에 이성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합치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진다. 한편 남학생은 이성문제보다는 성호기심, 성충동(남중생 10.7%, 남고생 31.7%)과 자위행위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이를 정리하면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자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이성친구의 성적 요구 혹은 성관계로 인한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는 비단 한 상담기관의 추이만이 아니고, 대다수 상담기관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화상담의 익명성 때문에 성과 관련된 상담이 많기도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성 개방화 흐름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는 문제를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성의 개방화, 성의 상품화로 고통 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부모가 어

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이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이성친구에 대한 애정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 이성교제의 진행과 함께 신체적인 애정표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흔히 사후에 “당했다”(여자) “따 먹었다”(남자)고 한다.

이러한 이성교제의 풍토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우리 부모들이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표 IV-31]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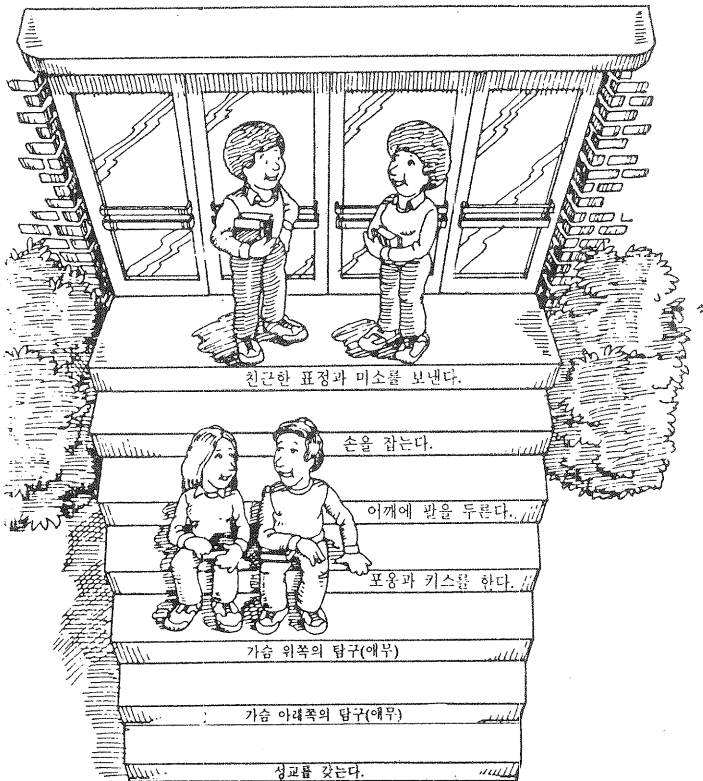
(평균:2.09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1.7	30.1	12.5	10.3	5.4	64.8(883)	$x^2=4.11$
	남 자	37.2	34.9	12.9	9.4	5.6	35.2(479)	$p=0.3910$
연 령	35-39	39.8	26.7	14.1	14.1	5.2	14.0(191)	$x^2=14.47$
	40-44	38.8	33.8	12.1	9.6	5.8	40.7(554)	$p=0.5633$
	45-49	42.5	31.9	11.8	8.8	5.0	29.2(398)	
	50-54	40.5	31.8	13.3	7.5	0.9	12.7(173)	
	55이상	34.8	28.3	17.4	17.4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41.9	29.0	14.5	9.6	4.9	35.9(489)	$x^2=18.15$
	고 졸	40.5	34.5	10.7	10.1	4.2	45.2(615)	$p=0.0201$
	대졸이상	35.7	30.6	13.6	10.5	9.7	18.9(258)	
인식정도	하	42.1	31.4	13.8	5.7	6.9	11.7(159)	$x^2=15.08$
	중	38.7	33.1	14.2	9.0	5.1	53.7(732)	$p=0.0574$
	상	41.6	29.9	9.8	13.0	5.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7.9	30.6	15.7	11.4	4.4	25.2(343)	$x^2=50.09$
	여 중	50.9	25.9	8.7	7.8	6.6	24.4(332)	$p=0.0000$
	남 고	31.3	32.2	18.0	11.8	6.8	23.7(323)	
	여 고	40.1	37.9	8.5	9.1	4.4	26.7(364)	
합 (실 수)	계	40.1	31.8	12.6	10.0	5.5	100	
		(546)	(433)	(172)	(136)	(75)	(1362)	

단위: %(명)

6.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가?

조사결과: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우려는 이성교제가 비록 전전할지라도 학업에 방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가 결국 성행위로 발전되어 “잘못”되어나 않을까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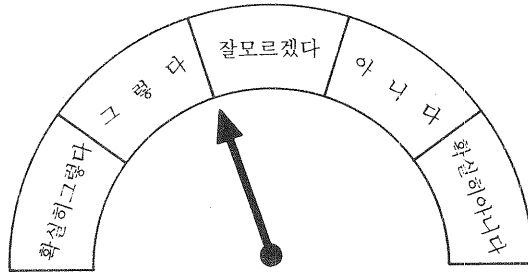


십대들의 이성문제 고민은 이성교제로 말미암아 “공부가 안된다”든지 “성적이 떨어졌다”등 성적과 관계된 걱정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절반정도가 헤어진 이성을 잊지못하거나, 순결을 잃었다는 등 이성교제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상담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부모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진술에 긍정과 부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서로 서로 좋은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고등학생의 11.6%가 키스나 포옹한 경험이 있고,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사람도 4.7%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정원식외, 1985, p. 121). 그리고 순결을 잃었다고 호소한 십대 소녀에게 그 상대를 물어본 결과 낯선사람은 2할에 불과하고 “친구나 아는 오빠”가 그 두 배인 4할이라는 것도 유의해야할 사실이다(김형모, 1989, p. 245).

청소년의 모든 이성교제가 결국 성행위로 발전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성교제는 성행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어머니들이 “남자는 모두 늑대다”라는 속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모두 늑대이니까 사귀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규제할 수 있었을지라도 오늘날에는 청소년 자녀를 집에 가두어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날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지도방안은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규제되었던 이성교제를 허용해야한다면, 그리고 허용하는 것이 청소년 자신의 보다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귄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컨대 이성교제시에 감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이성친구에 대한 성충동을 왜 억제해야 하는지, 여자에게는 남자친구가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표 IV-32]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평균:3.090)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2.9	25.7	14.5	29.7	17.2	64.8(883)	$\chi^2=2.52$
	남 자	14.8	27.1	15.2	26.3	16.5	35.2(479)	$p=0.6400$
연 령	35-39	12.0	23.6	13.6	30.9	19.9	14.0(191)	$\chi^2=12.61$
	40-44	14.6	27.4	13.7	27.6	16.6	40.7(554)	$p=0.7008$
	45-49	13.3	27.6	14.8	28.1	16.1	29.2(398)	
	50-54	13.9	23.7	15.6	28.9	17.9	12.7(173)	
	55이상	8.7	19.6	28.3	30.4	13.0	3.4(46)	
학 력	중졸이하	15.1	22.5	19.6	27.0	15.7	35.9(489)	$\chi^2=20.37$
	고 졸	13.2	27.6	12.7	29.3	17.2	45.2(615)	$p=0.0090$
	대졸이상	11.6	29.8	10.5	29.5	18.6	18.9(258)	
인식정도	하	14.5	24.5	17.6	27.0	16.4	11.7(159)	$\chi^2=12.61$
	중	13.0	25.7	17.1	27.3	16.9	53.7(732)	$p=0.1258$
	상	14.2	27.6	10.2	30.8	17.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1.1	31.2	13.4	31.2	13.1	25.2(343)	$\chi^2=39.31$
	여 중	21.1	23.2	15.7	20.8	19.3	24.4(332)	$p=0.0001$
	남 고	10.2	23.5	16.4	31.0	18.9	23.7(323)	
	여 고	12.1	26.6	13.7	30.8	16.8	26.7(364)	
합		13.6	26.2	14.8	28.5	17.0	100	
(실 수)		(185)	(357)	(201)	(388)	(231)	(1362)	

단위: %(명)

7.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 할 수 없는가?

조사결과:대부분의 부모들은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시대가 성개방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만은 성적인 문제가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길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일부 딸가진 부모들은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늑대”이니 항상 몸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10대들은 끊임없이 성충동을 자극받고 있으며, 일부 10대 청소년들은 때로는 타의에 의해,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

전화상담기관이나 편지에 의한 상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성상담의 양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성관계로 인한 심적 갈등, 성병, 원치않은 임신 등과 같이 성관계 후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여고 3년생이에요. 지지날달에 저는 아는 오빠와 같이 잠자리

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디스코장에서 합석하게된 대학생과 또 한번 성행위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순결을 잃고 여태껏 약 열번의 성경험이 있지만, 임신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임신이라는 사실도 걱정이지만 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아는 오빠일까요. 대학생일까요(김형모, 1989, p. 136).”

위의 사례와 같이 10대의 성관계는 주로 또래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남자는 상대가 연상의 여인인 경우도 적지 않고, 여자는 직장상사, 유부남도 상당히 있다.

한 상담기관이 한해동안에 십대가 보내온 고민편지 2,000통을 분석한 결과 그중 “순결을 잃었다”는 편지가 164통이었는데, 그 대상자는 멀리 있지 않고 당사자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친척(20.1%), 친구(29.9%), 아는 오빠(11%), 주위에 있는 유부남(12.8%)등이고 정작 낯선 사람은 극히 일부(19.5%)에 불과하다고 보고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함께 원치않은 사전에 대한 사후지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10대의 성관계를 용납하기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하여 10대의 성관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사랑하는 이성친구와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이성친구와 그 밖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사후지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성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원치않은 임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시 조급한 판단, 지나친 비난, 그리고 방치는 가출, 자포자기로 인한 윤락행위등 더 큰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표 IV-33]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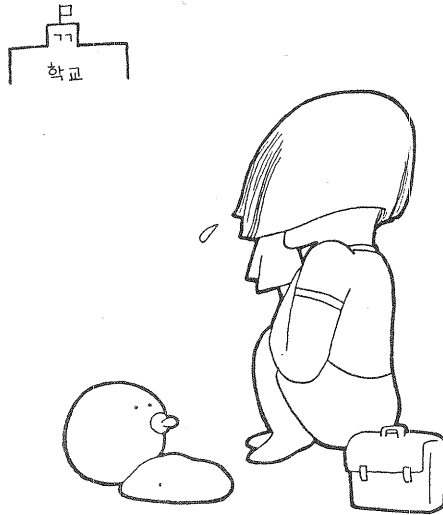
(평균:2.077)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6.1	23.2	17.7	7.7	5.3	64.8(883)	$\chi^2=8.26$
	남 자	41.1	25.3	15.9	11.5	6.3	35.2(479)	$p=0.0824$
연 령	35-39	41.9	21.5	20.9	8.9	6.8	14.0(191)	$\chi^2=9.97$
	40-44	45.7	23.1	16.4	9.6	5.2	40.7(554)	$p=0.8678$
	45-49	45.5	25.4	15.1	8.8	5.3	29.2(398)	
	50-54	38.7	26.6	20.2	8.7	5.8	12.7(173)	
	55이상	50.0	21.7	13.0	6.5	8.7	3.4(46)	
학 력	중졸이하	41.5	25.4	17.8	9.6	5.7	35.9(489)	$\chi^2=10.91$
	고 졸	47.2	22.8	17.7	7.8	4.6	45.2(615)	$p=0.2064$
	대졸이상	43.0	24.0	14.0	10.9	8.1	18.9(258)	
인식정도	하	43.4	22.0	18.9	11.3	4.4	11.7(159)	$\chi^2=6.57$
	중	42.9	23.8	18.4	9.0	5.9	53.7(732)	$p=0.5833$
	상	46.9	24.8	14.2	8.3	5.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8.5	25.7	18.4	11.7	5.8	25.2(343)	$\chi^2=23.21$
	여 중	49.7	22.0	15.4	7.2	5.7	24.4(332)	$p=0.0259$
	남 고	38.4	24.5	21.1	9.9	6.2	23.7(323)	
	여 고	50.3	23.6	13.7	7.4	4.9	26.7(364)	
합 (실 수)	계	44.3 (604)	23.9 (326)	17.0 (232)	9.0 (123)	5.7 (77)	100 (1362)	

단위: %(명)

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는가?

조사결과: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현대사회에서 성이 상품화되고, 성충동이 날로 부추겨진다면 비록 10대의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예컨대, “성폭행 당한 어린 내딸”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한 월간지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하고 정신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국교 6학년 어린이의 어머니 수기, 국민학생만 끌라 다섯차례 성폭행하다 구속된 18세 소년의 성장일기, 홀어머니의 외동아들로 죄의식없이 국민학생을 세차례 성폭행한 재수생의 자술서, 52세 가장이 열흘동안 국민학생 네 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사연을 실은 바 있다(주부생활, 1989. 7.).

한편 성폭행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임신이 아니고, “분위기”에 끌린 “사고”로 인한 임신등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크리스마스 베이비와 바캄스 베이비는 옛말이고 최근에는 젊은 남녀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러브호텔”이 전국도처에 있다.

아울러 10대 호스텔스와 10대 호스트의 급증은 “성”을 장사의 도구로 삼는 향락산업이 있고, 이른바 향락산업이 제조업등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현실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면 풀기 어려운 난제이고 이로인한 10대의 임신은 더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않은 임신을 한 10대들은 흔히 임신중절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한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60여만명인데, 해마다 그 수보다 2.5배나 되는 150만명 정도가 낙태 또는 임신중절되며, 그중 상당수의 임신부가 10대라는 것이다(주부생활, 1990. 9, pp. 379~387).

이처럼 10대의 임신은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의식은 혼전 성교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 이어서 “서로가 사랑한다면 거리끼지 않는다”는 반응(59.6%)이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반응(34.4%)보다 1.7배나 많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의식이 급속히 변하고, 주변환경이 날로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진전하게 지도하고, 청소년 자녀들이 “성폭행”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한 잡지가 권고한 바 있는 다음의 자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주부생활, 1989. 7.).

“성폭행 사고대비책”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호의에 대해 함부로 응하지 않도록 한다.

또래들과 집단으로 놀 수 있게끔 이웃 엄마들과 의논을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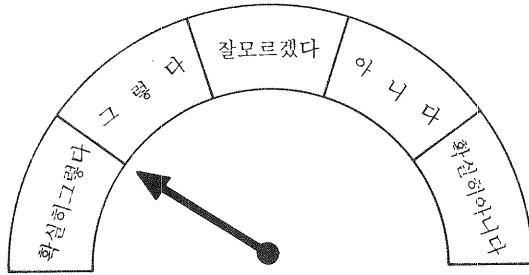
노는 장소와 시간을 그 때마다 정해둔다.

학생일 경우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밤늦게 외출하거나 혼자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유흥업소 출입을 금한다.

가정 내에서도 왜곡된 성문화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표 IV-34]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평균:1.58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75.2	10.2	4.6	2.9	7.0	64.8(883)	$\chi^2=1.69$
	남 자	72.2	12.1	5.0	3.3	7.3	35.2(479)	$p=0.7911$
연 령	35-39	73.3	11.0	4.2	2.1	9.4	14.0(191)	$\chi^2=16.39$
	40-44	72.0	10.1	5.4	4.0	8.5	40.7(554)	$p=0.4255$
	45-49	77.9	11.1	3.8	2.5	4.8	29.2(398)	
	50-54	74.0	12.7	6.4	2.3	4.6	12.7(173)	
	55이상	71.7	10.9	2.2	4.3	10.9	3.4(46)	
학 력	중졸이하	70.6	10.6	8.4	3.5	7.0	35.9(489)	$\chi^2=29.07$
	고 졸	76.1	12.0	2.9	2.1	6.8	45.2(615)	$p=0.0003$
	대졸이상	76.4	8.5	2.3	4.7	8.1	18.9(258)	
인식정도	하	72.3	10.7	8.8	1.9	6.3	11.7(159)	$\chi^2=14.83$
	중	71.9	11.5	5.2	3.6	7.9	53.7(732)	$p=0.0624$
	상	78.3	10.0	2.8	2.8	6.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72.9	10.8	4.4	4.1	7.9	25.2(343)	$\chi^2=30.65$
	여 중	77.7	9.0	4.2	1.5	7.5	24.4(332)	$p=0.0022$
	남 고	64.7	15.8	7.1	4.3	8.0	23.7(323)	
	여 고	80.5	8.2	3.6	2.5	5.2	26.7(364)	
합	계	74.2	10.9	4.8	3.1	7.1	100	
(실	수)	(1010)	(148)	(65)	(42)	(97)	(1362)	

단위: % (명)

9.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닌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녀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남녀가 칠세를 넘으면 한 자리에 앉지 않고, 불가피하게 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외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인 남녀교제를 상징해주는 어귀이다. 일부 사람은 이러한 방식의 남녀교제는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남녀 칠세 필동석”이란 대체어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생각할 때,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결을 잃었다고 호소한 여자 청소년들은 그 대상이 낯선사람 보다는 “친구와 아는 오빠”이었고, 심지어 아버지·할아버지, 친형제, 사촌오빠 삼촌 형부 등 “근친상간”이 2할이 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담기관에서 5년동안 상담된 근친상간만도 255건인데, 그 대부분이 남매간, 친척간, 모자·부녀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서울YMCA 청소년성교

육 상담센터, 1989, p. 28).

또한 한 성교육 교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근친상간은 생각보다 빈도는 높다. 공개되지 않는 근친상간은 형제자매간이 가장 많다. 부녀관계도 있지만 모자관계는 드문 편이다. 한 때는 변태성욕자로 진단 분류하여 병으로 취급된 적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의학적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도덕적 병이라면 모르지만(대한가족계획협회, 1988, p. 63).”

근친간의 성관계로 상담기관에 고민을 호소한 사례는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친간의 성관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성적으로 성숙한 남녀가 한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한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근친간에 성충동을 느끼는 사례는 매우 많은데, 이 경우에도 단칸방을 사용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잠옷 혹은 속옷)을 입었을 때 비록 근친간일지라도 “이성으로 느낀다”고 한다.

고3인 이종 사촌 여동생과 한방에서 하숙하게 되어 4개월간 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적, 남, 2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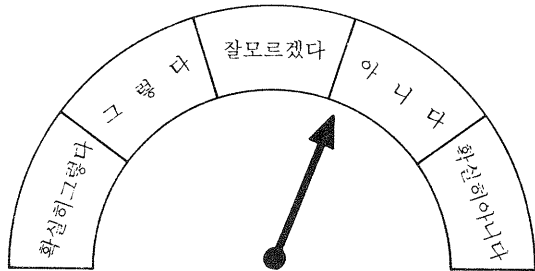
한달전 집에 놀러온 사촌 여동생과 비디오를 보다가 충동을 느껴 성관계를 가진후, 성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고3, 남, 19세)

여동생과 성관계를 갖다가 임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 남)
어머니와 한방을 쓰는데, 중3때부터 모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욱할텐데... (고1, 남, 17세)

이 점에서 우리의 주거환경은 오누이 사이에 근친관계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뜻한 온돌방의 한 이불속에서 자던 청소년 형제자매가 성적흥분을 일으켜 가선 안될 선까지 가게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대도시의 심각한 주거공간의 협소화, 특히 무주택자들의 가족구성에 맞는 침실 부족은 근친간의 성관계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남녀 칠세 부동석”은 그 의미가 다소 변했을지라도 “남녀 칠세

부동숙”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주거공간 확보는 인간이 최소한의 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여건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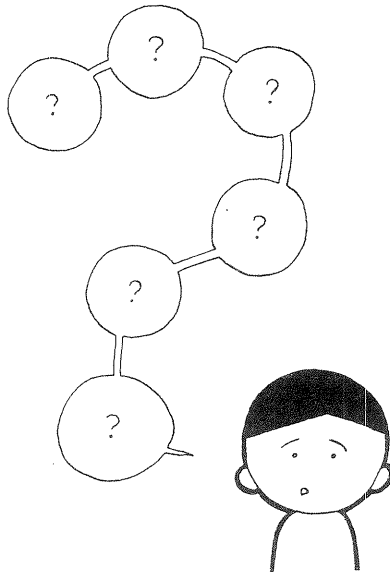
〔표 IV-35〕 남녀 칠세 부동산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니다 (평균:3.62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8.9	13.7	12.5	35.8	29.1	64.8(883)	$x^2=1.79$
	남 자	7.9	13.8	12.7	38.8	26.7	35.2(479)	$p=0.7732$
연 령	35-39	8.4	16.8	12.6	35.1	27.2	14.0(191)	$x^2=19.33$
	40-44	8.7	12.1	10.3	37.9	31.0	40.7(554)	$p=0.2515$
	45-49	8.0	14.3	12.1	38.7	26.9	29.2(398)	
	50-54	9.2	15.6	18.5	32.4	24.3	12.7(173)	
	55이상	10.9	8.7	21.7	32.6	26.1	3.4(46)	
학 력	중졸이하	9.4	14.3	16.0	31.7	28.6	35.9(489)	$x^2=14.93$
	고 졸	7.5	14.0	10.6	40.0	28.0	45.2(615)	$p=0.0604$
	대졸이상	9.7	12.0	10.9	39.1	28.3	18.9(258)	
인식정도	하	8.2	16.4	17.6	32.7	25.2	11.7(159)	$x^2=32.12$
	중	8.1	14.3	15.3	36.7	25.5	53.7(732)	$p=0.0001$
	상	9.6	11.9	6.6	38.4	33.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8.7	13.1	12.8	40.8	24.5	25.2(343)	$x^2=25.09$
	여 중	10.8	14.2	11.1	28.6	35.2	24.4(332)	$p=0.0144$
	남 고	5.6	16.1	13.3	39.0	26.0	23.7(323)	
	여 고	9.1	11.8	12.9	38.7	27.5	26.7(364)	
합 (실 수)	계	8.6	13.7	12.6	36.9	28.3	100 (1362)	

단위: %(명)

10.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러운가?

조사결과:상당수의 부모들은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럽다고 느낀다.



현대 생활속에서 성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 조사 연구는 부부간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성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들은 좁게는 가정 생활에서 넓게는 삶 전체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부모교육”자료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시기인데, 그중에서 “성적 발달”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가장 큰 관심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성생활은 삶의 중요한 일부이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에 대한 의문을 부모가 자연스런 대화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들은 공식교육을 통하여 받은 적이 거의 없고, 가정이나 생물시간에 배운 “생리”에 관한 지식이 고작이었다. 또한 비록 공식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결혼후 성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풀여지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은 날로 그 양이 많아 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부모들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한 전화상담기관의 경우, 3개월동안에 1,800여명이 상담을 하였는데 그중 32.7%가 성상담이고, 이밖에도 가정문제, 교우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에 포함된 성문제를 포함하면 전체 상담건수의 4할정도가 이른바 “성문제”에 속한다.

전화상담에 비추어진 성상담의 내용은 대상자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시작된 이성교제와 성호기심은 중학교에서 이성교제와 성충동으로 수렴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성교제, 성충동과 함께 성관계와 원치않은 임신으로 확대·심화된다.

성상담내용 중에서 대상별로 가장 전형적인 “성에 대한 질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관계로 친구와 사이가 벌어졌는데 다시 사귀고 싶습니다. (국민6, 여자)

길거리를 지날 때 사진이나 그림에서 성충동을 느끼고, 버스와 전철이 만
원일 때도 성충동을 느낍니다. 또한 자위행위는 나쁜가요? (중2, 남자)

친구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나도 좋아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2,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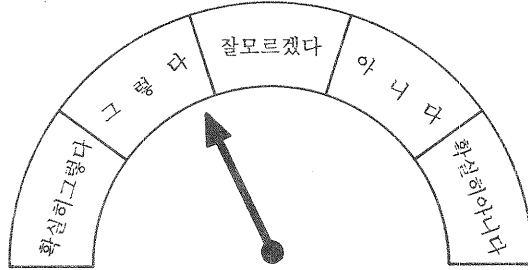
성호기심과 성충동 때문에 공부가 잘 안됩니다. 친구들이 비디오를 보거나
청계천, 미아리 등에 가자고 자주 유혹합니다.

(고2, 남자)

성관계를 가진후 두 달째 생리가 없습니다. 임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3, 여자)



[표 IV-36]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럽다

(평균:2.57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2.1	37.1	12.3	20.0	8.4	64.8(883)	$\chi^2=2.39$
	남 자	20.3	36.7	13.2	22.8	7.1	35.2(479)	$\chi^2=0.6642$
연 령	35-39	24.1	36.6	9.4	20.4	9.4	14.0(191)	$\chi^2=17.52$
	40-44	20.4	36.3	13.0	22.2	8.1	40.7(554)	$\chi^2=0.3526$
	45-49	22.1	37.2	11.1	22.6	7.0	29.2(398)	
	50-54	22.0	35.8	18.5	16.8	6.9	12.7(173)	
	55이상	15.2	50.0	13.0	10.9	10.9	3.4(46)	
학 력	중졸이하	27.4	38.7	12.5	15.5	5.9	35.9(489)	$\chi^2=40.26$
	고 졸	19.7	38.0	12.4	21.5	8.5	45.2(615)	$\chi^2=0.0000$
	대졸이상	14.3	31.4	13.6	30.2	10.5	18.9(258)	
인식정도	하	23.9	41.5	14.5	12.6	7.5	11.7(159)	$\chi^2=40.62$
	중	23.4	38.4	13.9	17.3	7.0	53.7(732)	$\chi^2=0.0000$
	상	17.6	33.3	10.0	29.5	9.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3.0	33.8	9.9	26.5	6.7	25.2(343)	$\chi^2=34.93$
	여 중	22.3	36.7	9.9	18.7	12.3	24.4(332)	$\chi^2=0.0005$
	남 고	22.3	39.9	16.7	15.8	5.3	23.7(323)	
	여 고	18.4	37.6	14.0	22.5	7.4	26.7(364)	
합	계	21.4	37.0	12.6	21.0	7.9	100	
(실	수)	(292)	(504)	(172)	(286)	(108)	(1362)	

단위: %(명)

11. 때가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조사결과: 자녀들의 조기성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과 관련지워 가장 조직적으로 성교육을 주장해온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성에 대해서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타부시하거나 죄악시 또는 부끄러워하여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에 대한 인식에 급속한 변화가 있었다. 성해방 풍조와 함께 피임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생식과 성행위의 분리, 여성의 사회진출,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등에 의해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으며, 결혼의 의의와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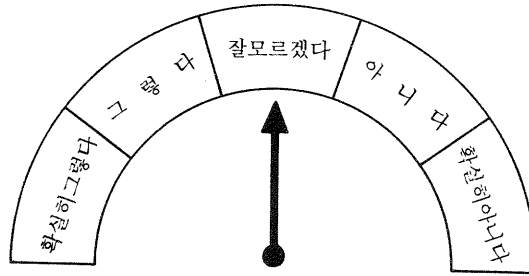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칫 그릇된 성정보나 가치관의 혼란과 방황에 휩싸이기 쉽다. 이들이 인간존중, 남녀평등에 근거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있는 성행동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8, p. 17)."

또한 가족계획협회는 청소년 성교육 지침서에서 지금까지 성교육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성기교육"은 유해하다는 관점,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만 성이 긍정된다는 생각, 바른 성규범의 강조 등이 어려운 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성교육계에서 논의되고 또 일치될 보이고 있는 성교육의 이념은 대체로 계율이나 타부에서 지식으로, 성의 부정에서 성의 긍정으로, 획일적 규범에서 다원적 선택으로라고 한다. 즉 현대의 성교육은 성기교육과 성규범 교육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는 집착만 할 것이 아니라 성적 인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견없이 성을 분석해가는 과학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이끌어주는 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84, pp. 18~20).

한편 오늘날 심각한 청소년의 성적 이탈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낸 저급의 퇴폐향락 문화때문이라고 진단한 학자는 성교육의 초점은 청소년의 성문제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받는 결과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 성인들의 퇴폐향락적 문화의 실상이 어떠하고, 그 해독이 얼마나 크며,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가를 폭로 해주어 경각심을 높이고 그 다음 성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육체를 지키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원석조, 1990. p. 40). 이러한 논지대로라면 귀여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성교육은 필수적이고, 마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운전교육과 같은 것이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성교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 그 내용도 가능한 정확히 전달 될 것을 주장한다. 문제는 성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인데 대체로 성의 생리적인 면을 넘어서서 성역할, 성불평등구조, 성의 상품화와 같은 사회적 접근이 요구된다.



[표 IV-37]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평균:3.040)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5.9	22.8	18.5	29.0	13.9	64.8(883)	$\chi^2=10.52$
	남 자	15.4	25.1	11.9	32.2	15.4	35.2(479)	$\chi^2=0.0325$
연 령	35-39	14.1	23.0	18.3	26.2	18.3	14.0(191)	$\chi^2=13.60$
	40-44	15.2	23.3	17.7	29.4	14.4	40.7(554)	$\chi^2=0.6280$
	45-49	16.3	22.9	14.6	34.4	11.8	29.2(398)	
	50-54	16.8	26.6	13.9	27.2	15.6	12.7(173)	
	55이상	19.6	23.9	10.9	28.3	17.4	3.4(46)	
학 력	중졸이하	16.2	23.9	20.4	28.2	11.2	35.9(489)	$\chi^2=27.51$
	고 졸	16.3	25.0	15.0	29.3	14.5	45.2(615)	$\chi^2=0.0006$
	대졸이상	13.6	19.4	10.9	35.7	20.5	18.9(258)	
인식정도	하	11.9	25.8	20.8	28.3	13.2	11.7(159)	$\chi^2=14.84$
	중	16.9	24.0	16.8	29.9	12.3	53.7(732)	$\chi^2=0.0622$
	상	15.1	22.1	13.6	31.0	18.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6.0	23.6	17.2	28.6	14.6	25.2(343)	$\chi^2=12.66$
	여 중	18.4	24.4	16.0	25.9	15.4	24.4(332)	$\chi^2=0.3936$
	남 고	11.8	24.8	17.0	31.0	15.5	23.7(323)	
	여 고	16.5	21.7	14.6	34.6	12.6	26.7(364)	
합	계	15.7	23.6	16.2	30.1	14.5	100	
(실	수)	(214)	(321)	(220)	(410)	(197)	(1362)	

단위: %(명)

12.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는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성의 개방화와 성의 상품화란 거대한 물결이 청소년들에게 닥쳐오는 데, 성교육은 누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고전적인 대답은 열일곱살 소년과 열 여섯살난 소녀의 진술에서 엿볼 수 있다.

“저는 성문제에 관해서 어머니에게 아무 것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성에 관해 어떤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왜 내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공포심부터 갖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싶어하니?’”

“우리 어머니는 성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무엇이든 질문하면 몹시 화를 내면서 야단만 치고, 대답이라고는 언제나 간단하죠. ‘앞으로 결혼하면 네 남편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걸 다 가르쳐 줄 거야’”(하임 기너트, 1987, p.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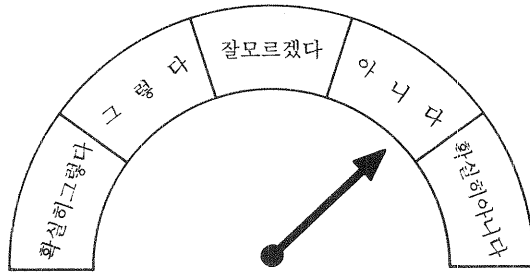
성인인 부모가 보기에는 매우 하찮은 성지식일지라도 월경, 몽정과 같이 자신이 처음 경험한 “성사전”은 전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대중매체와 음란 비디오, 만화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왜곡된 성지식은 올바른 성교육에 의해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초경과 몽정이 시작될 연령인 국민학교 5~6학년생이 알고 있는 성지식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다. 월경을 아는 여학생은 6할정도이지만, 몽정을 아는 남학생은 4할에 불과하고, 애기가 배꼽이나 항문에서 나온다는 사람도 4할이나 되었다(서울YMCA, 1986, pp. 17~18).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지식을 어디에서 얻는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민학교 5~6학년생조차도 부모보다는 선생님 또는 신문·잡지·TV 등 대중매체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부모나 교사보다는 친구와 대중매체에서 성지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서울YMCA, 1986, p. 116).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성교육을 자신이 해야한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교육을 교사, 친구, 대중매체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성교육지침서들은 청소년 자녀에게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성교육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부관계와 애정관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 모델이기도 하고, 어머니야말로 자녀에게 인생의 상담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비밀이나 성적 관심사를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이룩해 놓아야 할 것이다.



[표 IV-38]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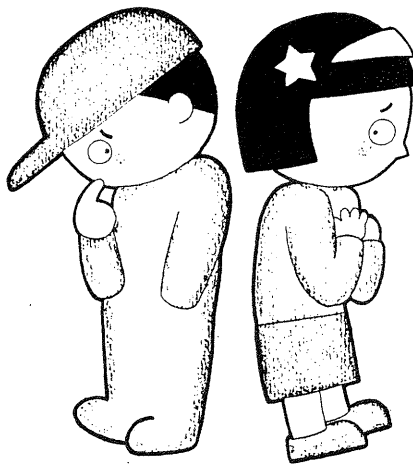
(평균:4.273)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5	4.3	6.6	35.6	52.1	64.8(883)	² =10.65
	남 자	3.3	7.1	6.3	35.1	48.2	35.2(479)	=0.0307
연 령	35-39	2.1	6.3	5.2	33.5	52.9	14.0(191)	² =12.80
	40-44	1.4	5.1	5.8	37.2	50.5	40.7(554)	=0.6867
	45-49	2.0	4.8	6.5	35.7	51.0	29.2(398)	
	50-54	4.6	6.4	9.2	32.4	47.4	12.7(173)	
	55이상	2.2	4.3	8.7	30.4	54.3	3.4(46)	
학 력	중졸이하	1.2	4.1	9.0	33.1	52.6	35.9(489)	² =27.59
	고 졸	1.6	5.7	4.9	38.9	48.9	45.2(615)	=0.0006
	대졸이상	5.0	6.6	5.4	31.4	51.6	18.9(258)	
인식정도	하	0.6	7.5	10.7	32.7	48.4	11.7(159)	² =15.31
	중	2.0	5.5	6.6	37.3	48.6	53.7(732)	=0.0533
	상	2.8	4.2	4.9	33.3	54.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6	3.2	7.0	34.4	52.8	25.2(343)	² =25.85
	여 중	1.2	6.9	5.1	28.9	57.8	24.4(332)	=0.0113
	남 고	3.1	6.8	6.5	40.6	43.0	23.7(323)	
	여 고	1.6	4.4	7.1	37.6	49.2	26.7(364)	
합	계	2.1	5.3	6.5	35.4	50.7	100	
(실	수)	(29)	(72)	(88)	(482)	(691)	(1362)	

단위: % (명)

13.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한가?

조사결과:절반정도의 부모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부모는 불필요하거나 잘모르겠다고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세대는 대부분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로 분리된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것이고, 소수만이 대학에서 “남녀공학”을 겪었을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학교는 남학교 중심이었고, 개화기 이후 여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자”학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자학교의 출현은 성별불평등을 극복하려는 교육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남녀 취학율이 평준화된 오늘날까지 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지워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시대착오이다. 일부는 여자만의 독특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자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여성문화의 많은 속성이 “남성의 지배, 여성의 복종”을 강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양성간에 구분시켜 발전시킬 것이 있다면 인위적으로 남학교와 여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남녀공학은 단순히 한울타리(교정)안에서 남·녀가 섞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공학은 교육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 교육내용이 성차별 혹은 성 역할 고정화를 탈피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가르치고 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가르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장차 여성의 역할을 전업주부로 상정해서 가르치므로, 이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교육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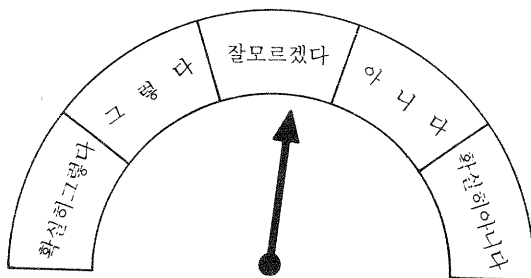
최근 여성학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천대받는 원인을 특정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그 사회적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서 양성간 교육 내용의 평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1989년도부터 중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을 혼합한 '기술·가정'의 교과가 새로이 생긴 것은 기술과 가정을 분리해서 가르쳐온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통합교과 교육은 아직은 몇 개의 시범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이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직접해보니 남자는 부엌에 출입하면 안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한 남자 중학생의 말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역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한 시범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통합교과에 대하여 남학생 74%, 여학생 52%, 교사 77%, 학부모 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 1990. 12. 7.).

사실 남녀공학에 대한 상당수 부모들의 의견(찬성이나 반대)은 과거 성차별 문화나, 성역할 분리교육의 폐해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특히 딸)을 순수하게 키우기 위해서, 혹은 세상의 나쁜 물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학교에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실례로 서울의 한 명문 여자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여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은 "여자는 하얀 앙고라 스웨터와 같아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사귀면 때가 탄다", "남학생이 너에게 말을 거는 것은 네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해피보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남·녀 분리교육은 여자교육이 경시된 시대에서는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에 남·녀 차이

가 사라졌고, 새로운 성역할이 요구되는 오늘날 남녀분리교육은 남녀통합교육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9]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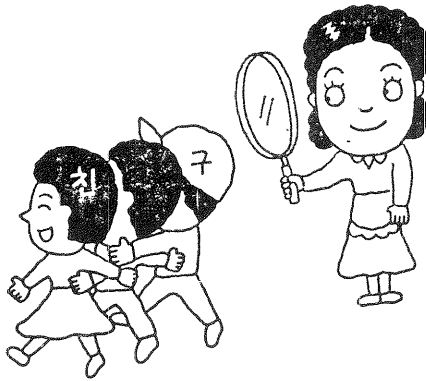
(평균:3.23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1.8	19.4	23.7	29.2	16.0	64.8(883)	$\chi^2=7.13$
	남 자	8.4	19.4	22.8	29.0	20.5	35.2(479)	$\chi^2=0.1289$
연 령	35-39	12.0	20.9	22.0	28.3	16.8	14.0(191)	$\chi^2=13.15$
	40-44	10.3	18.6	23.5	31.4	16.2	40.7(554)	$\chi^2=0.6610$
	45-49	9.5	20.1	23.1	29.4	17.8	29.2(398)	
	50-54	11.6	19.7	23.7	21.4	23.7	12.7(173)	
	55이상	13.0	15.2	28.3	32.6	10.9	3.4(46)	
학 력	중졸이하	12.9	19.2	28.6	23.1	16.2	35.9(489)	$\chi^2=31.84$
	고 졸	9.9	20.8	21.3	31.5	16.4	45.2(615)	$\chi^2=0.0001$
	대졸이상	7.8	16.3	18.2	34.9	22.9	18.9(258)	
인식정도	하	17.6	17.6	32.1	23.3	9.4	11.7(159)	$\chi^2=39.83$
	중	9.8	20.6	24.7	26.0	18.9	53.7(732)	$\chi^2=0.0000$
	상	9.3	18.0	18.3	36.1	18.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9.6	18.7	21.3	34.1	16.3	25.2(343)	$\chi^2=21.15$
	여 중	13.3	20.2	22.3	26.8	17.5	24.4(332)	$\chi^2=0.0482$
	남 고	8.0	18.9	24.8	25.1	23.2	23.7(323)	
	여 고	11.3	19.8	25.0	30.2	13.7	26.7(364)	
합 (실 수)	계	10.6	19.4	23.3	29.1	17.5	100	
		(144)	(264)	(318)	(397)	(239)	(1362)	

단위: %(명)

14.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3할정도의 부모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본다.



청소년 자녀가 이성교제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많은 부모들은 동의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자녀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자녀가 동의한다면 “자녀의 이성교제”로 인한 부모와 자녀관계에 별 손상이 없겠으나, 자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문제는 노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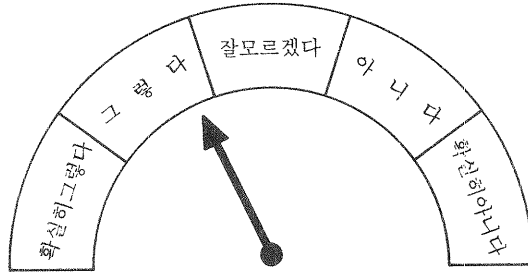
한 조사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 중에서 부모와의 의견 대립을 상당수(32.8%)가 경험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연령별, 성별로 달라진다. 18~19세에서는 공부와 진학이 주된 쟁점이지만 20세이후에는 취직, 이성친구 그리고 인생관으로 변화된다. 이성친구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대립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18~19세의 경우 이성친구로 인한 의견대립율이 8.7%에 불과하던 것이 23~24세에는 33.3%로 급증하게 된다.

물론 이성친구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의견대립은 미국·영국·서독·프랑스 등 유럽권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까운 일본에 비교해서도 크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라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5, pp. 282~291).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특히 아버지)는 가정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가정내의 일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경우보다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관계가 매우 권위주의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가 “엄격”하기 보다는 “친구처럼 자상하길” 기대하고 자식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부모보다 자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람직한 아버지상(37.9%)과 어머니상(40.6%)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자녀는 “불간섭”을 희망하고 부모는 “개입” 또는 “통제”를 시도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할 때까지 앞으로 상당기간 이성친구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대립은 증가될 것이고, 부모세대는 어떤 지도방법이 보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여야할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표 IV-40]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

(평균:2.644)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5.5	27.5	16.3	23.6	7.1	64.8(883)	$\chi^2=4.07$
	남 자	21.3	26.9	17.1	26.1	8.6	35.2(479)	$=0.3960$
연 령	35-39	27.2	28.3	15.7	23.6	5.2	14.0(191)	$\chi^2=16.09$
	40-44	22.0	27.1	16.2	25.8	8.8	40.7(554)	$=0.4461$
	45-49	25.1	25.9	17.3	24.9	6.8	29.2(398)	
	50-54	24.3	30.1	17.3	17.9	10.4	12.7(173)	
	55이상	23.9	28.3	15.2	32.6	.	3.4(46)	
학 력	중졸이하	27.8	26.8	17.2	21.7	6.5	35.9(489)	$\chi^2=16.96$
	고 졸	23.7	27.5	16.1	25.9	6.8	45.2(615)	$=0.0304$
	대졸이상	17.4	27.9	16.7	26.4	11.6	18.9(258)	
인식정도	하	25.2	20.8	20.1	25.2	8.8	11.7(159)	$\chi^2=13.08$
	중	23.5	28.0	18.4	23.4	6.7	53.7(732)	$=0.1089$
	상	24.4	28.5	12.5	25.9	8.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0.4	27.1	16.9	26.5	9.0	25.2(343)	$\chi^2=57.12$
	여 중	34.0	28.0	11.4	20.5	6.0	24.4(332)	$=0.0000$
	남 고	14.6	23.8	21.4	29.7	10.5	23.7(323)	
	여 고	26.6	29.9	16.8	21.4	5.2	26.7(364)	
합		24.0	27.3	16.6	24.4	7.6	100	
(실 수)		(327)	(372)	(226)	(333)	(104)	(1362)	

단위: %(명)

요 약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생활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 항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성생활의 초보적인 수준인 성호기심과 성충동은 자제되거나 억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성충동에 대한 가장 값싸고 편리하며 개별적인 해결책인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한다.

둘째,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건전한” 경우만을 학업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딸의 이성교제를 큰 문제로 인식한다. 이러한 성의식으로 말미암아 10대 자녀의 성관계는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임신까지 하면 “어떤 경우”라도 타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

셋째, 부모들은 10대 자녀의 성생활과 이성교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딸은 어머니가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남녀유별을 중요한 행동기준으로 삼고,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과 조기성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들 사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조금은 당혹스럽다고 하고,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본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생활과 이성교제에 대한 보다 진보적 시각과 성교육의 필요를 다소 수용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활동을 “건전한 이성교제”의 틀속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성생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성간의 적극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성개방화의 물결과 성산업의 발달로 청소년 성생활의 영역은 넓어지고 그 강도도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데도, 자녀의 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세대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는 가능한한 청소년 자녀가 건전한 성생활과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겠으나 어떤 것이 “건전하며”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떤 접근시각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성과 이성교제

	평 균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2.17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된다.	1.95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2.76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2.57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2.09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3.09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	2.0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1.58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시대착오가 아니다.	3.63
성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혹스럽다.	2.57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므로, 조기의 성교육은 공연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3.04
딸의 성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 없다.	4.27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은 불필요하다.	3.24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	2.64

4.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흔히 당사자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을 지켜보는 성인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이 저지른 나쁜 일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나쁜 환경도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임에도, 성인들은 흔히 청소년문제를 전자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본절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본다. 문제행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흡연, 디스코장 출입, 본드 흡입, 외박 등 보통의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혹은 우연히 한두 번씩은 경험할 수도 있는 일상적인 탈선행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다.

둘째, 최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문제를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라면 비행의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대중매체의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비행청소년의 격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자의 관심을 질문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각 질문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을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관심사와 관련지워, 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생활과 문제행동의 저변에 깔린 청소년의 욕구를 가능한 한 정확히 소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가?
2.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하는가?
3.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5.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6.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인가?

7.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는가?
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인가?
9.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가?
1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되는가?
1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가?

1.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조사결과: 거의 모든 부모들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친지들 중 흡연자가 있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흡연장면을 접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3/4이 가정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청소년 흡연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이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V에서 청소년의 우상이 되는 탈렌트들의 공공연한 흡연은 청소년 흡연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 지도자들의 공개적인 흡연태도나 학교 교원들의 공공연한 흡연도 청소년들의 흡연자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0, p. 3).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청소년흡연의 동기와 요인을 위와 같이 진단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담배연기 없이 기르자고 호소한다. 그러면 청소년 흡연의 실패는 어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17.3%, 2학년의 26.8%, 3학년의 50.5%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중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

은 72.4%에 이르는데, 이러한 흡연율은 급속히 증가되고 흡연 시작연령이 낮아진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0, b,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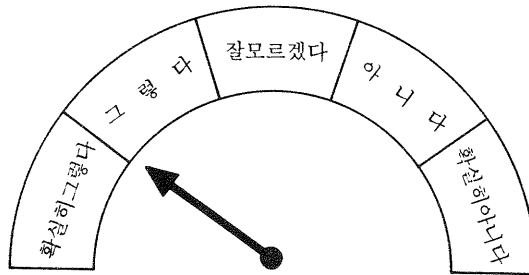
흡연은 성인에게도 나쁘지만, 특히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흡연이므로 질병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비행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성인 흡연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청소년 자신들도 담배의 폐해를 알고 있지만 호기심, 교우관계,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70여개국이 이미 제정하고 있는 금연법의 제정, 금연교육의 정규 과목으로의 채택, 담배갑의 경고문 강화, 담배광고의 금지, 양담배 판매규제 등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박명운, 1990, pp. 16~31).

청소년의 음주율은 흡연율보다 높아서 중학생은 남자의 35.3%, 여자의 11.7%가 술을 마신 적이 있고,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남자의 83.9%, 여자의 52.8%로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차이없이 상당수의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이, 1989, p. 20).

청소년의 음주는 그 자체로서 문제시되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흡연, 각성제·안정제·최면제 복용, 본드 흡입 등 다른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 음주는 약물 오남용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김성이, 1989, p. 20).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잠 안자기, 호기심으로, 황홀감, 신비감의 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주로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이는 술이 사회적·신체적 쾌락의 증가와 경험의 긍정적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술을 마신다는 대학생들의 반응과 비교된다(홍종필, 1989, p. 32).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비록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청소년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성인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일상생활로 이해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부모 중 아버지의 80%, 어머니의 24%가량이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73%, 어머니의 4%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기전에 부모가 금주와 금연을 실천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표 IV-41]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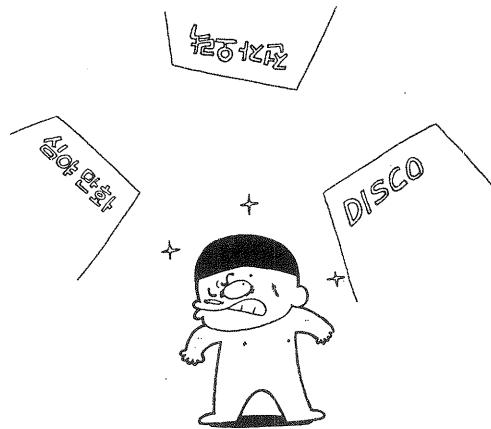
(평균:1.527)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73.7	15.4	3.1	3.5	4.3	64.8(883)	$\chi^2=4.69$
	남 자	69.1	18.4	2.5	4.4	5.6	35.2(479)	$\chi^2=0.3202$
연 령	35-39	68.6	17.3	4.2	4.7	5.2	14.0(191)	$\chi^2=19.03$
	40-44	73.5	15.2	1.3	4.7	5.4	40.7(554)	$\chi^2=0.2669$
	45-49	72.9	17.3	3.3	2.3	4.3	29.2(398)	
	50-54	69.4	19.1	4.6	3.5	3.5	12.7(173)	
	55이상	73.9	10.9	6.5	4.3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73.8	14.9	3.9	3.7	3.7	35.9(489)	$\chi^2=7.63$
	고 졸	72.0	17.2	2.1	3.6	5.0	45.2(615)	$\chi^2=0.4698$
	대졸이상	69.0	17.4	2.7	4.7	6.2	18.9(258)	
인식정도	하	71.7	12.6	4.4	5.0	6.3	11.7(159)	$\chi^2=9.13$
	중	71.2	16.9	3.4	4.0	4.5	53.7(732)	$\chi^2=0.3310$
	상	73.7	17.0	1.5	3.2	4.7	34.6(471)	
대상학교	남 중	70.6	17.8	2.3	2.6	6.7	25.2(343)	$\chi^2=36.68$
	여 중	78.9	11.1	2.7	3.6	3.6	24.4(332)	$\chi^2=0.0003$
	남 고	65.3	19.8	3.4	7.7	3.7	23.7(323)	
	여 고	73.4	17.0	3.0	1.6	4.9	26.7(364)	
합 (실 수)	계	72.1 (982)	16.4 (224)	2.9 (39)	3.8 (52)	4.8 (65)	100 (1362)	

단위: %(명)

2.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하는가?

조사결과: 거의 모든 부모는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은 내 아이들만은 유흥업소에 가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중고생들이 디스코텍과 카페를 상용하고 있다. YMCA가 대도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 남학생의 14.4%, 여학생의 5.2%가 디스코텍을 이용한 적이 있고, 전체 응답자의 38.6%가 카페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1990. 7. 19).

중고등학생의 디스코텍과 카페의 출입은 그 자체가 성인놀이문화에의 입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연되어야 하겠으나, 상습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곳에서 음주·흡연·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탈선의 길로 들어가기 쉽다는 점에서 더 문제시 된다.

유흥업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성교제는 중고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폰팅이나 펜팔이 아니고 헌팅, 즉석미팅이기가 쉽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돈암동 등 카페골목에서 상대를 선택한 10대 청소년들은 이태원이나 청량리의 디스코텍으로 자리를 옮겨 술과 춤을 즐긴후에 인근 간이식당에서 허기를 채우고 쌍쌍이 장급여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풀코스”이다(한국일보, 1990.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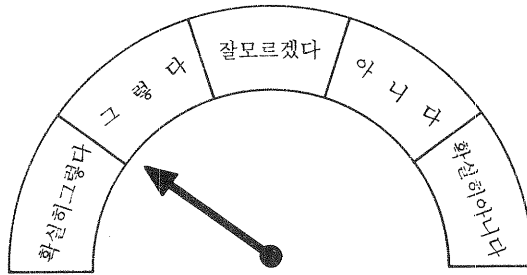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고, 이른바 전전한 놀이 공간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전용 디스코장을 운영하여 이용 청소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봉천동 놀이마당등 몇몇 놀이마당은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의 전전놀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전전한 놀이를 보급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놀이를 즐긴다는 것은 청소년의 스트레스해소와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시도되는 청소년 전전놀이마당 전립 운동이 방방곡곡에 확산되기에는 재정·인력·관심의 부족으로 아직은 시도단계에 불과한데 비하여 불법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 등이 주택과 학교주변 골목마다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은 불법유흥업소와 업태위반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서울시가 마련한 무허가 술집정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이태원 등 58개 지역에서 허가없이 카바레·디스코텍·룸살롱 영업을 해온 2천2백여 곳 가운데 10평이상 규모는 자진폐쇄를 종용하고, 10평미만의 영세업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알려진 디스코텍, 카페 등에 대한 철퇴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수없이 되풀이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주택가에 한집 건너 카페, 디스코텍, 안마시술소, 룸살롱, 장급여관 등이 성업하고 있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이러한 조치를 의심스런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부모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주거공간의 아파트화, 가사의 편리화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많아진 주부들이 모여 스스로 불전전한 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화투(고돌이)를 즐기거나 대낮에 카바레를 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업무상 또는 대인관계상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밤이면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성인남자도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주요 인자이다.

청소년들의 성인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하겠으나, 먼저 이들에게 놀만한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성인들이 가능한 한 현재보다 전전하게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청소년 탈선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표 IV-42]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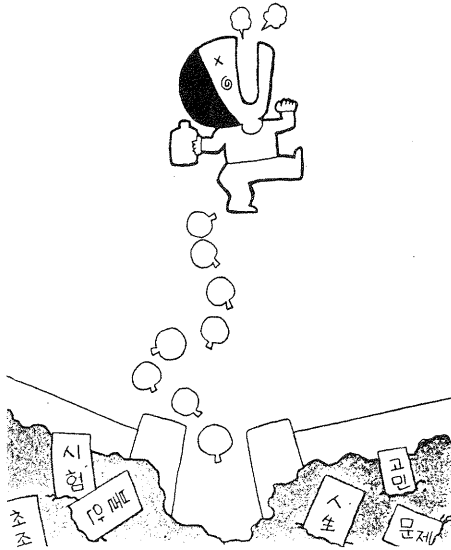
(평균:1.674)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62.7	23.9	4.9	5.7	2.8	64.8(883)	² =11.27
	남 자	57.4	24.4	4.6	10.4	3.1	35.2(479)	=0.236
연 령	35-39	61.3	23.6	4.2	6.8	4.2	14.0(191)	² =13.81
	40-44	58.7	26.0	5.6	6.5	3.2	40.7(554)	=0.6124
	45-49	64.3	21.6	4.3	7.0	2.8	29.2(398)	
	50-54	58.4	24.9	5.2	10.4	1.2	12.7(273)	
	55이상	65.2	21.7		10.9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62.0	23.3	3.9	8.0	2.9	35.9(489)	² =13.06
	고 졸	62.4	24.1	5.5	5.9	2.1	45.2(615)	=0.1096
	대졸이상	55.0	25.6	4.7	9.7	5.0	18.9(258)	
인식정도	하	57.2	22.6	6.9	11.9	1.3	11.7(159)	² =11.25
	중	61.9	23.6	4.8	7.0	2.7	53.7(732)	=0.1877
	상	60.5	25.3	4.0	6.4	3.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5.4	28.6	5.0	6.1	5.0	25.2(343)	² =40.73
	여 중	67.8	20.2	2.7	6.6	2.7	24.4(332)	=0.0001
	남 고	55.1	24.1	5.3	11.8	3.7	23.7(323)	
	여 고	64.8	23.4	6.0	5.2	0.5	26.7(364)	
합 (실 수)	계	60.9	24.1	4.8	7.3	2.9	100	
		(829)	(328)	(65)	(100)	(40)	(1362)	

단위: %(명)

3.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은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본드 흡입은 아직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성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남자의 1.7%, 여자의 0.9% 그리고 고등학교 남자의 11.1%, 여자의 0.8%만이 본드 흡입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은 남자의 46.2%, 여자의 61.5%가 본드 흡입을 한 적이 있어서, 본드 흡입이 아직은 비행청소년들의 문화이지만 일반 고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다음 사례는 한 중학생이 3학년때부터 본드 흡입을 하고 자퇴를 한 후에 본드 상용과 함께 비행 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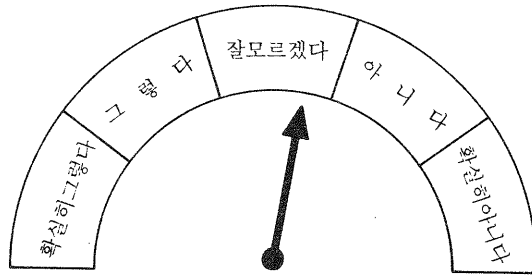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때부터 학교에 싫증을 느끼고 동네 불량친구들과 어울리다가 2학년이 되자 이내 문제 학생으로 주목되어 학교 내외의 문제 학생들과 친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빠져서 몰래 담배도 피우고, 약한 친구들에게

협박을 하여 돈도 뺏었다. 2학년 때부터 친구 3명과 어울려 다녔고 이 때부터 자퇴할 생각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소풍을 가서 친구의 권유로 처음 본드를 흡입했는데, 이들은 본드 흡입을 알고부터 심심하면 야산에 쫓아 올라가 본드를 불고 내려와 길을 가는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또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술집을 찾아가 술도 마시고, 본드를 다시 흡입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머리속에 떠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본드를 한꺼번에 수십개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본드는 주로 야산이나 개천가에 묻어 놓고 이용하며, 특히 야산에 방공호가 많아 이들은 주로 이곳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김성이, 1989, pp. 360~361).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본드 흡입은 학교주변의 “노는 애들”의 세계에서 시작되어(이혜정, 1989), 점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고, 환각상태에서는 성범죄 등을 일으킨다. 이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이유는 마약류의 사용 이유와 유사하여 황홀감·신비감의 추구, 호기심, 그리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가 그 주된 이유이다. 본드 사용의 첫번째 이유와 효과가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데, 이 때문에 본드 흡입은 대마초, 마약, 필로폰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본드 흡입은 마약류와 비슷한 효과를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중고생과 비행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약물에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을 사용하는 수가 있다. 본드 흡입은 부탄가스 흡입등과 같이 여러명이서 함께 이루어지고, 황홀상태에서 금품갈취, 윤간 등 제2의 비행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한겨레신문, 1990. 2. 22).

본드 흡입이 청소년의 가출과 범죄등을 유발시킨다면, 필로폰등 마약류의 사용은 성인탈선과 범죄의 온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약류 사용자의 처벌과 함께 제조, 반입, 판매 등 공급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상용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드의 경우에는 제조와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큰 한계이다.



[표 IV-43]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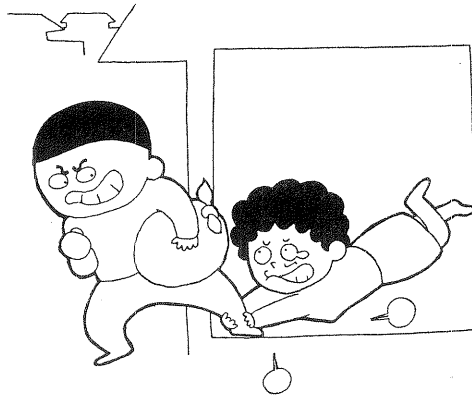
(평균:3.181)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7.8	18.5	13.1	29.6	21.1	64.8(883)	$^2=0.64$
	남 자	18.4	16.9	13.8	29.2	21.7	35.2(479)	$=0.9579$
연 령	35-39	19.4	14.1	13.1	31.9	21.5	14.0(191)	$^2=12.53$
	40-44	18.6	18.6	12.8	29.1	20.9	40.7(554)	$=0.7064$
	45-49	18.3	16.8	13.8	29.4	21.6	29.2(398)	
	50-54	17.3	20.2	14.5	28.9	19.1	12.7(173)	
	55이상	4.3	26.1	13.0	26.1	30.4	3.4(46)	
학 력	중졸이하	19.4	18.8	14.7	26.0	21.1	35.9(489)	$^2=6.56$
	고 졸	16.6	17.9	13.0	31.5	21.0	45.2(615)	$=0.5842$
	대졸이상	18.6	16.3	11.6	31.0	22.5	18.9(258)	
인식정도	하	18.2	14.5	11.3	30.2	25.8	11.7(159)	$^2=12.43$
	중	17.6	18.7	15.8	28.0	19.8	53.7(732)	$=0.1328$
	상	18.5	17.8	10.2	31.4	22.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6.6	22.2	14.0	28.9	18.4	25.2(343)	$^2=25.91$
	여 중	23.8	16.3	13.9	26.2	19.9	24.4(332)	$=0.0110$
	남 고	13.6	16.1	11.5	31.3	27.6	23.7(323)	
	여 고	17.9	17.0	14.0	31.3	19.8	26.7(364)	
합	계	18.0	17.9	13.4	29.4	21.3	100	
(실	수)	(245)	(244)	(182)	(401)	(290)	(1362)	

단위: %(명)

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상담기관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외박을 걱정하는 전화는 거의 없다. 가끔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오겠다”든지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집에 들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단외박보다는 무단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외박이나 무단가출에 대한 상담은 대부분 당사자의 부모나 형·누나등이 하는데 그들은 “성격이 온순하던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부터 “습관적으로 해서 부모가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람까지 여러 종류이다.

고3인 아들이 자주 친구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 있기 싫어하고 성적이 고1 때 2-3등이었는데 30등까지 떨어진다. (주 부)

중2인 딸이 지난 토요일 편지를 써놓고 가출하고 안 돌아온다.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이웃집 아들을 좋아했다. (40대 주부)

고2인 딸이 중학교 친구와 가출했다. 성격이 온순하고 부모말을 잘 들었었다. (40대 주부)

고3인 아들이 가출해서 친구에게만 연락하고 안들어온다. (40대 주부)

고1인 동생이 집을 나간지 2주만에 전화가 왔는데, 현재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누 나)

고1인 딸이 자주 가출하는데 수용해서 유료로라도 교화시키는 곳은 없는지요. (40대 남자)

가출한 청소년들은 흔히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고, 한번 가출한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하며, 카페, 레스토랑 등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인신 매매의 땅에 걸려 성인 디스코텍, 룸살롱, 사창가, 호스트바 등에서 몸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재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한 18세 여고생이 가출한 후(실종된후) 40일 동안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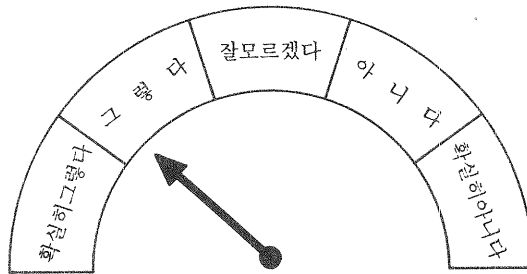
고3년생인 김양은 입시지옥의 와중에서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집을 나섰지만 그녀가 간 곳은 레스토랑의 카운터가 아닌 사창가였다. 생크림수술에 퍼머까지 강제로 해야만 했던 김양은 몇번이나 도망을 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붙잡혀 혼줄이 나기도 했다. 같이 있던 윤락녀들도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주부생활, 1990. 6.).

가출후의 생활은 여자나 남자가 크게 다를 바 없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유흥업소와 여관을 전전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금품갈취범으로 전락하거나 유흥接客업소에서 노동력을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만 탓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은 입시강박에서 탈피 또는 가정불화에서의 도피의 수단으로 가출을 택하게 된다. “문제아뒤에 문제가정있다”는 말은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귀절이다. 또한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는 것은 주택가와 학교 주변 골목골목에 있는 각종 유흥업소와 성산업체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출청소년은 유흥업소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성산업 노동자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무단 가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출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철이 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출만이 문제가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구집에

서 자거나 방학등에는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대한 산경험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출 예방책이 될 것이다.



[표 IV-4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균:1.72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66.1	16.6	4.0	9.7	3.5	64.8(883)	$\chi^2=10.28$
	남 자	58.2	22.5	4.0	10.4	4.8	35.2(479)	$\chi^2=0.0359$
연 령	35-39	65.4	14.1	5.2	9.9	5.2	14.0(191)	$\chi^2=28.95$
	40-44	67.1	19.0	3.2	7.9	2.7	40.7(554)	$\chi^2=0.0242$
	45-49	62.6	19.1	3.3	10.6	4.5	29.2(398)	
	50-54	53.2	22.0	6.9	12.1	5.8	12.7(173)	
	55이상	54.3	19.6	2.2	21.7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59.3	20.0	4.9	11.0	4.7	35.9(489)	$\chi^2=16.48$
	고 졸	66.3	18.4	2.8	10.1	2.4	45.2(615)	$\chi^2=0.0359$
	대졸이상	64.0	17.1	5.0	7.8	6.2	18.9(258)	
인식정도	하	52.2	25.2	5.7	10.7	6.3	11.7(159)	$\chi^2=29.04$
	중	60.7	19.5	4.9	11.2	3.7	53.7(732)	$\chi^2=0.0003$
	상	71.3	15.3	1.9	7.9	3.6	34.6(471)	
대상학교	남 중	66.2	19.8	2.3	6.7	5.0	25.2(343)	$\chi^2=48.52$
	여 중	68.4	13.6	4.5	9.6	3.9	24.4(332)	$\chi^2=0.0000$
	남 고	50.2	22.9	6.2	16.4	4.3	23.7(323)	
	여 고	67.9	18.7	3.0	7.7	2.7	26.7(364)	
합 (실 수)	계	63.4 (863)	18.7 (255)	4.0 (54)	10.0 (136)	4.0 (54)	100 (1362)	

단위: %(명)

5.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조사결과: 거의 모든 부모들은 최근의 청소년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범죄나 탈선에 국한되지 않겠으나, 청소년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탈선이나 범죄이고 대부분 부모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 세상에 이럴수가…」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하는 소식을 읽고 듣노라면 자연히 튀어나오는 개탄의 소리다. 여러가지 충격적인 사건중에 가장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아마도 증가일로에있는 10대들의 성폭행일 것이다. 그것도 어린 국민여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동아일보, 1989. 7. 19).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성폭행에 국한하겠는가? 치안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89년도 한해동안에 1백4만여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중 강도사건의 53%와 절도사건의 48.5%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자가 조직화되고, 그 질이 흉악해진다는 것이다. 범죄동기에 있어서도 생활비마련보다는 주로 유흥비마련 때문에 일어나고, 원한이나 분노 때문보다는 우연히 혹은 취중에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나 위의 자료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건만을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신고조차 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범죄”를 합치면 전체 청소년 범죄건수는 공식범죄 건수의 몇배이다.

이러한 범죄나 탈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은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청소년 범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도시가 온갖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며 그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에 취한 비정상적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탈선이나 생활환경에서 찾는 사람이 격언으로 삼는 것은 “문제 청소년뒤에 문제 부모가 있고, 청소년 문제뒤에 사회문제가 있다”이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은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문제가 있다면 청소년 문제를 우려하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비난하기 앞서 자기 성찰을 해야한다.

그렇다고 기성세대 모두가 똑같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사회가 익명화되면 될수록 도덕에 의한 사회통제능력이 약화되어 탈선은 증가된다. 이러한 탈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규범을 대체할만한 합리적인 규범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고, 이때 누구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를 심판해야 할 검사가 폭력배의 우두머리와 술자리를 같이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석방운동에 앞장서는 등 현 지도층의 단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최근의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우리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화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물질적 부의 획득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결여될 때 기존의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생긴 탈선은 새로운 적응양식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즉 가난한 청소년이 한탕하는 것은 큰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막혀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런 적응양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비행 청소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한탕주의는 그동안 합법적인 수단보다는

6.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인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문제는 무엇인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제인가? 혹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인가? 아니면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 개념인가?

먼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한해동안 소년범죄자는 10만명이 넘는 데 이들은 주로 폭력범(43.4%)과 재산범(27.5%)이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만도 4,771명이라고 한다. 이는 공식발표의 숫자이고 알려지지 않은 범죄와 비행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청소년육성위원회, 1989, p.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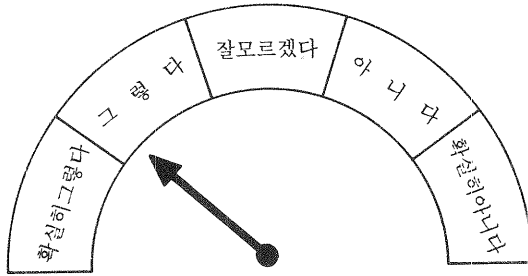
예컨대, 요즘 부모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강간·윤간·성폭행 등이 공식통계인 2,036명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강간의 경우 신고율이 5%이내인 점을 고려하면(이명선, 1989), 연간 4만명이상의 청소년 성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청소년의 성비행을 “남녀혼숙”까지 확대시키면 그 전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낯손님”을 받기 위한 러브호텔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성업중이나 남녀혼숙을 하다 “소년 풍기 사범”으로 단속된 경우는 5년 동안 2.6배가 줄어서 연간 43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청소년육성위원회, 1989, p. 360). 이처럼 청소년문제를 청소년에 의한 문제로 보면 청소년문제는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것이며 특히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우려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재수생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 상세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청소년들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들이 각자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적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대 소녀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성차별까지 중첩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상황에서 10대 매춘, 10대 근로청소년의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문제를 생각할 때, 청소년에 의한 비행과 범죄만을 우려하고,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 유형의 청소년문제를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후자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오히려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청소년과 부모간의 가치갈등에 기인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각에서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IV-46]

앞으로 청소년 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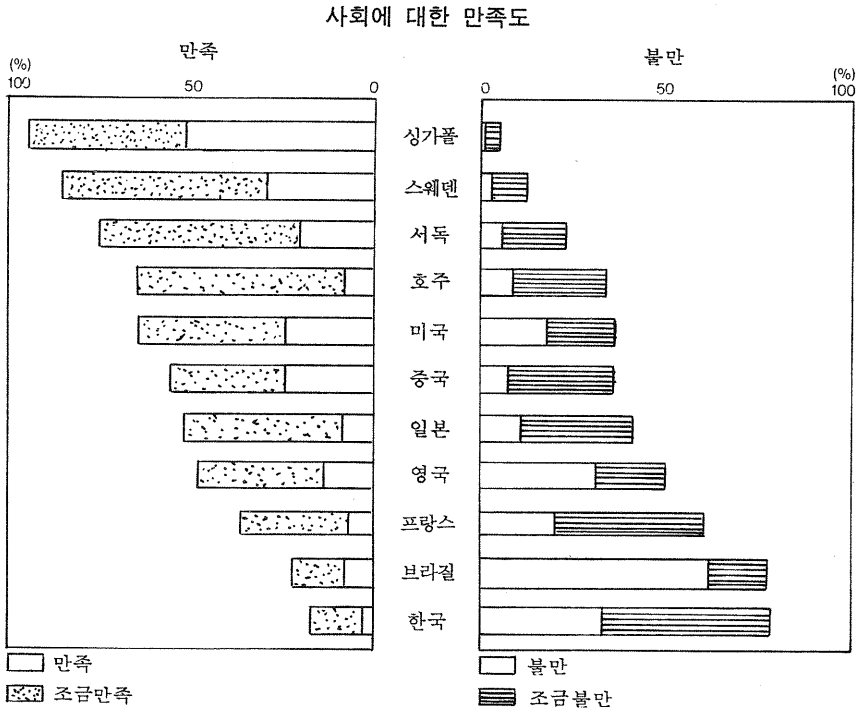
(평균:1.721)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9.9	33.9	10.3	3.7	2.2	64.8(883)	$\chi^2=4.77$
	남 자	54.7	31.1	8.6	2.7	2.9	35.2(479)	$=0.3108$
연 령	35-39	47.6	33.5	10.5	4.7	3.7	14.0(191)	$\chi^2=9.23$
	40-44	51.6	32.5	10.1	3.6	2.2	40.7(554)	$=0.9032$
	45-49	52.5	34.2	8.0	2.8	2.5	29.2(398)	
	50-54	51.4	32.9	11.0	2.3	2.3	12.7(173)	
	55이상	60.9	23.9	10.9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49.7	32.9	11.2	3.5	2.7	35.9(489)	$\chi^2=9.64$
	고 졸	50.9	33.8	9.8	3.7	1.8	45.2(615)	$=0.2911$
	대졸이상	57.0	30.6	6.6	2.3	3.5	18.9(258)	
인식정도	하	51.6	30.8	13.2	2.5	1.9	11.7(159)	$\chi^2=5.41$
	중	51.0	34.3	9.2	3.0	2.6	53.7(732)	$=0.7125$
	상	52.7	31.4	9.3	4.2	2.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1.9	31.2	11.1	3.5	2.3	25.2(343)	$\chi^2=12.43$
	여 중	56.0	31.3	7.8	2.4	2.4	24.4(332)	$=0.4113$
	남 고	49.2	31.9	11.1	4.0	3.7	23.7(323)	
	여 고	49.5	36.8	8.8	3.6	1.4	26.7(364)	
합	계	51.6	32.9	9.7	3.4	2.4	100	
(실	수)	(703)	(448)	(132)	(46)	(33)	(1362)	

단위: %(명)

7. 우리나라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는가?

조사결과: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모들은 청소년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점차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어떠한가?

먼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는 쉽지 않다. 부분적으로 청소년범죄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범죄인지 그리고 청소년이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통계수치의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와 문화나 법률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가 일본보다는 덜 심각한 편이다.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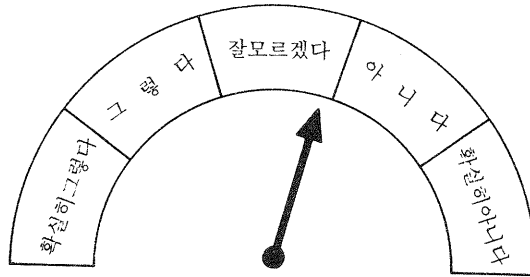
청소년(15~19세)은 1000명중 범죄자는 21명인데, 일본은 2배이고, 전체 범죄자중 청소년의 비중도 8.9%로 일본의 반정도 수준이다(청소년육성위원회, 1989;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1989).

범죄내용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절도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흉악범은 양국간에 별 차이가 없다.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학업으로 인한 고민이 심하고 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크다.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세계 청소년(18~24세)의식조사에서도 한국의 청소년은 가정, 학교, 일, 친구, 사회, 장래전망 등 각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일본, 미국, 영국 등 조사대상 11개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행복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17.2%로 만족도가 높은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5.5배나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대부분의 일들이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문이나 뒷배경이 너무 중시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하고,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인식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출세”하기 위하여 공부와 진학, 취직과 금전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1989. b, pp. 29-78).

한국 청소년문제를 외국과 비교하여 전망하면 어떠한가? 최근 일본은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수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 증가폭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 교내폭력과 가정폭력이 줄지 않고, 폭도족만도 4만여명이 되며 본드 남용은 증가하고 이다(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1989, a, pp. 12~30). 현재 왜색문화가 한국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빨리 유입되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당면과제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청소년 비행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소년이 당면하는 문제도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1985년 53%에서 3년후인 1988년에는 17.2%로 폭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여겨진다(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1989, b, p. 71). 특히 사회불만의 요인인 배경중시풍조,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는 청소년의 불만도 해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표 IV-47]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평균:3.443)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9	18.0	25.3	31.4	19.5	64.8(883)	$\chi^2=14.43$
	남 자	4.8	20.7	17.1	33.4	24.0	35.2(479)	$=0.0060$
연 령	35-39	6.3	19.4	21.5	31.4	21.5	14.0(191)	$\chi^2=8.61$
	40-44	5.2	20.0	23.3	30.7	20.8	40.7(554)	$=0.9286$
	45-49	5.0	15.8	21.9	35.4	21.9	29.2(398)	
	50-54	6.9	20.2	23.1	30.6	19.1	12.7(173)	
	55이상	4.3	26.1	17.4	28.3	23.9	3.4(46)	
학 력	중졸이하	5.5	17.0	27.4	29.4	20.7	35.9(489)	$\chi^2=19.60$
	고 졸	5.4	20.0	21.8	33.3	19.5	45.2(615)	$=0.0119$
	대졸이상	5.8	20.2	14.3	34.1	25.6	18.9(258)	
인식정도	하	4.4	16.4	25.8	28.9	24.5	11.7(159)	$\chi^2=14.06$
	중	5.5	18.0	24.7	32.8	19.0	53.7(732)	$=0.0802$
	상	5.9	21.2	17.6	32.1	23.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8	18.4	22.4	31.8	21.6	25.2(343)	$\chi^2=8.26$
	여 중	5.1	17.2	19.9	33.4	24.4	24.4(332)	$=0.7640$
	남 고	6.2	20.4	24.8	28.8	19.8	23.7(323)	
	여 고	4.9	19.8	22.5	34.1	18.7	26.7(364)	
합 (실 수)	계	5.5	18.9	22.4	32.1	21.1	100	
		(75)	(258)	(305)	(437)	(287)	(1362)	

단위: % (명)

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인가?

조사결과: 부모들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사회보다
가정에 더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은 누구의 책임인가? 청소년 자신인가, 그가 자란 가정(또는 부모)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 어느 누구도 “모든 청소년”의 비행 또는 청소년의 “모든 비행”을 청소년 자신, 가정, 사회중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의 책임이 얼마만큼인지를 사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밝히는데서 출발하여야 하는데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자신과 자란 가정에서 찾아져 왔다. 청소년의 성격결함 혹은 부도덕성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어떻게 사회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시각은 일차적 사회화의 기계인 가정, 특히 주요한 타자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아버지가 없는 편모가정, 빈곤한 가정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

정은 비행청소년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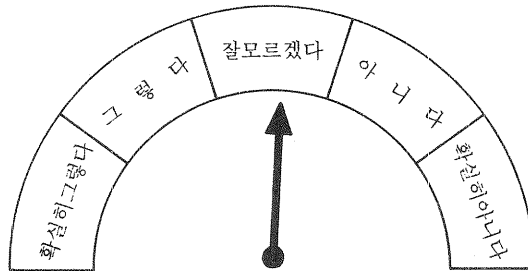
그러나 편모가정에서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소년비행이 많이 발생된다는 통계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비행소년이 많은 것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비행을 많이 행해서라기 보다는 비행의 통제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원인과 비행책임을 가정에서 찾는다면 가정의 정서적 유대 혹은 가정의 규범생활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하지 않는다거나 식구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서라는 반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수입이 적다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이는 가정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 시각은 최근 사회학의 발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특정 가정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만 설명할 수 없고, 그 사회의 전체 구조속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자본주의화 됨에 따라 행동기준으로서 돈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돈벌이”만 되면 누구나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손상하더라도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부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적응양식으로 비행을 행한다고 한다. 특히 성이 상품화되고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 비행문화가 대규모로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비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 보게”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청소년의 비행은 누구의 책임인가? 청소년 비행을 좀 더 세분해서 그 책임을 사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그리고 유흥장 출입이 비행이라면 그것은 성인문화의 산물이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기성세대의 기대보다 빠르게 성인문화만을 습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이 조직-범죄화된 것은 비행하위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는 단독적이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우발적이기 보다는 비행문화 습득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청소년이 성인문화만을 습득하느냐 성인문화와 함께 비행문화를 습득하느냐는 가정의 “이해와 사랑”이 큰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을 때 비행하위문화에 더 쉽게 물들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가설이다.



[표Ⅳ-4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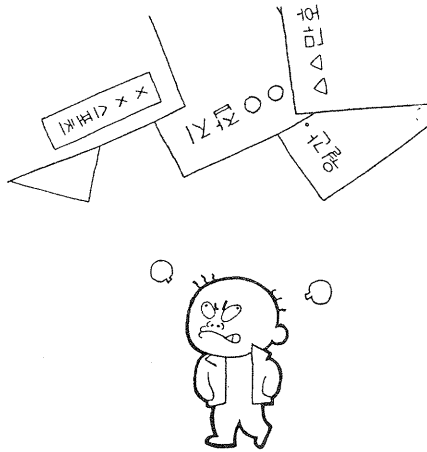
(평균:3.044)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15.7	23.1	13.5	33.1	14.6	64.8(883)	$\chi^2=5.70$
	남 자	17.1	26.5	12.5	28.8	14.8	35.2(479)	$\chi^2=0.3365$
연 령	35-39	16.2	23.0	12.6	31.9	16.2	14.0(191)	$\chi^2=13.32$
	40-44	15.2	25.1	13.5	30.1	15.9	40.7(554)	$\chi^2=0.8631$
	45-49	17.3	22.6	12.3	33.9	13.8	29.2(398)	
	50-54	18.5	28.3	12.7	30.6	9.8	12.7(173)	
	55이상	10.9	19.6	19.6	30.4	19.6	3.4(46)	
학 력	중졸이하	16.6	22.9	13.5	31.5	15.5	35.9(489)	$\chi^2=8.50$
	고 졸	16.4	26.5	12.8	30.4	13.8	45.2(615)	$\chi^2=0.5799$
	대졸이상	15.1	21.7	13.2	34.5	15.1	18.9(258)	
인식정도	하	15.7	20.8	19.5	31.4	12.6	11.7(159)	$\chi^2=21.06$
	중	16.7	24.9	13.9	32.1	12.3	53.7(732)	$\chi^2=0.0206$
	상	15.7	24.6	9.8	30.8	19.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17.2	28.9	8.5	28.6	16.9	25.2(343)	$\chi^2=33.55$
	여 중	19.9	22.3	13.3	28.3	16.0	24.4(332)	$\chi^2=0.0039$
	남 고	14.2	22.6	18.6	32.5	12.1	23.7(323)	
	여 고	13.7	23.4	12.6	36.5	13.7	26.7(364)	
합 (실 수)	계	16.2	24.3	13.1	31.6	14.7	100	
	(수)	(221)	(331)	(179)	(430)	(200)	(1,362)	

단위: %(명)

9.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가?

조사결과: 대다수의 부모는 TV, 잡지 등 대중매체가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오늘날 청소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청소년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은 문화정보원으로 TV에 의존하는율이 47.2%이고, 다음은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대중매체라고 한다. 10대 청소년들은 하루에 5시간이상을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소요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중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중매체와 항상 접촉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매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TV의 영화와 쇼, 신문의 사회면과 스포츠면, 연예·오락잡지, 라디오의 가요와 팝송 프로그램 등 대체로 오락 프로그램 일색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8)

이처럼 청소년들이 항상 대중매체와 접촉하고 있고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필연적

이지만 이러한 대중매체가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10대 청소년의 대중매체 이용

정 보 원	의존율(%)	접촉시간	좋아하는 프로그램
T V	47.2	2시간45분	영화(44.4%), 쇼, 연속극, 스포츠
신 문	24.8	정기구독 71.3%	사회면(22.6%), 스포츠면, 정치면
잡 지	9.2	정기구독 19.0%	연예·오락(32.5%), 취미잡지, 교양지
라 디 오	8.8	2시간 39분	국내대중가요(49.5%), 팝송, 클래식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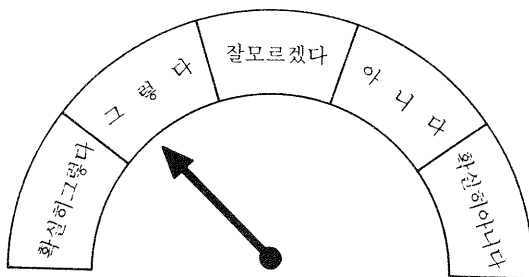
이 점에서 대중매체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폭력의 사용은 비록 가상의 이야기일지라고 보고, 듣고, 읽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TV속의 등장인물은 영화가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 불과 몇 분만에 성행위를 한다거나, 공상만화에 서는 무수한 인간을 살상하고도 “정의의 사자”라는 영웅칭호를 받는다.

라디오 프로그램 또한 예외가 아닌데, 방송위원회 심의국에 따르면 라디오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출연자가 연예인 위주이며, 대화 소재도 연애가 화제가 많고 선곡에서도 감상적인 대중가요에 치우치는 등 연예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0. 9.29).

대중매체중에는 비교적 “점잖다”고 알려진 신문조차도 스포츠신문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각종 만화로 면수를 채우고 있고, 청소년 잡지와 “로맨스”소설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스포츠서울, 1989.12. 2).

그러므로 청소년의 일상행동과 가치관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위력은 사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보다 먼저 대중매체를 경험한 미국에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960년에는 부모, 교사, 친구, 성직자, 청소년지도자, 대중스타, 친척 등의 순이었으나, 1980년에는 친구와 또래집단이 부모와 교사를 추월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부모 다음으로 TV, 라디오, 영화 등 대중매체가 차지하게 되었다(마리온 하워드, 1990.).

대부분의 부모가 우려한 대로 대중매체는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TV와 라디오를 도의시하고는 정보화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선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중매체의 이용방법을 가르쳐 주고, 다른 시청자들과 사회운동을 통하여 대중매체의 내용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표Ⅳ-49]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평균:1.834)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4.4	35.7	11.1	6.2	2.6	64.8(883)	$\chi^2=5.25$
	남 자	46.6	38.4	8.4	5.0	1.7	35.2(479)	$\chi^2=0.2618$
연 령	35-39	47.1	29.8	11.5	9.9	1.6	14.0(191)	$\chi^2=27.12$
	40-44	44.4	37.4	10.1	4.5	3.6	40.7(554)	$\chi^2=0.0402$
	45-49	43.2	38.4	9.8	7.0	1.5	29.2(398)	
	50-54	48.0	39.3	9.8	2.9		12.7(173)	
	55이상	52.2	30.4	8.7	4.3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42.9	34.8	15.7	5.7	0.8	35.9(489)	$\chi^2=38.76$
	고 졸	47.5	37.2	7.6	4.7	2.9	45.2(615)	$\chi^2=0.0000$
	대졸이상	43.8	38.8	5.4	8.5	3.5	18.9(258)	
인식정도	하	42.8	31.4	16.4	7.5	1.9	11.7(159)	$\chi^2=18.64$
	중	43.4	38.0	11.2	5.2	2.2	53.7(732)	$\chi^2=0.0169$
	상	48.6	36.3	6.4	6.2	2.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9.0	36.2	8.7	4.7	1.5	25.2(343)	$\chi^2=17.14$
	여 중	42.5	34.3	11.7	8.7	2.7	24.4(332)	$\chi^2=0.1443$
	남 고	40.6	40.6	9.9	6.2	2.8	23.7(323)	
	여 고	48.1	35.7	10.2	3.8	2.2	26.7(364)	
합 (실 수)	계	45.2 (615)	36.6 (499)	10.1 (138)	5.8 (79)	2.3 (31)	100 (1,362)	

단위: %(명)

1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도덕 시험에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표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표를 쳐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나이가 든 청소년일수록 심해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본다”거나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굳어져가고 있다.

야단맞을만한 일을 한 경우에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보다는 무조건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흔하다. 학교에서 결석한 이유와 조퇴하는 이유를 거짓으로 꾸미고, 성적표를 부모에게 주지 않고 가짜 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시험 치를 때는 컨닝을 하는 사례는 어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 부모에게도 보충수업비 불러서 떼어먹고, 학급비나 책값 핑계로 돈뜯기는 일상적인 유형이고, 독서실간다며 디스코텍에서 놀기등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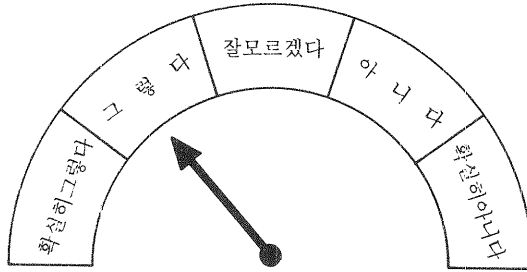
이러한 자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은 평소 “내 자식은 거짓말을 모른다”고 자녀를 믿고 있다가 일을 당한 후에야 “아니 그럴수가 있느냐”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현재의 부모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집에 있으면서도 자녀에게 “전화오면 없다고 하라” 학교에서 부모의 방문을 요청하면 “엄마가 바빠서 올 수 없다” 나중에 한번 찾아 뵈겠다”고 말하라는 내용들은 누구나 한두 번씩 경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모가 관용할 것인지 아니면 엄격히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거짓된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용돈이 더 필요해서 책값으로 둘러대고, 친구들과 디스코텍을 가기 위해서 독서실에 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성적만을 강요하지 않았나? 용돈을 불충분하게 주지 않았나? 등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거짓말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단순히 자녀와 부모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양심껏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보다 남을 속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한 때 청소년의 선망직종이었던 정치가, 판검사에 대한 인기가 최근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거짓말에 대해서 “항상” 관용해서는 안되겠으나, 때로는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모의 반성이 요구된다. 또한 거짓말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가정된 것이라면 그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본다”면 그 원인을 단순히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불신풍조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표 IV-5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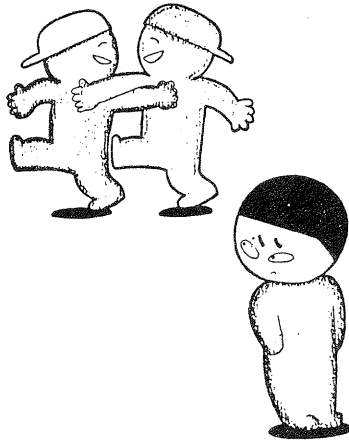
(평균: 1,92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9.8	29.7	7.9	8.8	3.7	64.8(883)	$\chi^2=10.45$
	남 자	43.4	32.4	6.5	13.2	4.6	35.2(479)	$\chi^2=0.0334$
연 령	35-39	44.5	31.9	9.4	9.4	4.7	14.0(191)	$\chi^2=22.74$
	40-44	51.4	30.5	6.3	7.9	3.8	40.7(554)	$\chi^2=0.1207$
	45-49	47.0	29.6	7.3	11.1	5.0	29.2(398)	
	50-54	43.4	30.6	7.5	15.6	2.9	12.7(173)	
	55이상	34.8	34.8	13.0	17.4		3.4(46)	
학 력	중졸이하	47.2	27.2	9.2	13.1	3.3	35.9(489)	$\chi^2=18.82$
	고 졸	46.7	33.2	7.3	9.1	3.7	45.2(615)	$\chi^2=0.0158$
	대졸이상	50.4	31.0	4.3	8.1	6.2	18.9(258)	
인식정도	하	39.0	30.2	10.7	17.0	3.1	11.7(159)	$\chi^2=23.48$
	중	46.2	30.7	8.5	10.5	4.1	53.7(732)	$\chi^2=0.0028$
	상	52.7	30.6	4.7	7.9	4.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3.1	32.4	5.5	5.2	3.8	25.2(343)	$\chi^2=27.78$
	여 중	47.3	28.3	9.6	10.2	4.5	24.4(332)	$\chi^2=0.0059$
	남 고	39.9	34.1	7.7	14.2	4.0	23.7(323)	
	여 고	49.5	28.0	6.9	11.8	3.8	26.7(364)	
합	계	47.6	30.6	7.4	10.4	4.0	100	
(실	수)	(648)	(417)	(101)	(141)	(551)	(1,362)	

단위: % (명)

1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가?

조사결과: 상당수의 부모는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동안 소년 범죄사건 (10만 4천여건)의 처리 내용을 보면 구공판 19.1%, 기소유예 30.5%, 소년부 송치 9.1% 등 전체 범죄의 처리내역에 비교할 때 선도·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루는 것은 비록 범죄는 별할지라도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시각에서 이다. 그런데 최근 비행청소년의 범죄가 흉폭화되고 특히 “가정파괴범”이라고 불리워지는 강간이 횡행하면서 처벌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다. 어른도 모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이들을 선량한 청소년과 격리시키지 않고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모들은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거세게 항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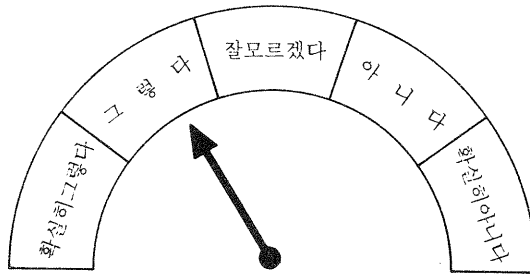
그러나 “비행청소년”을 “선량한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과 근로청소년에게 “잡했다면 처벌받았을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각각 23.3%, 30.8%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반하여 같은 해 범죄소년의 비율은 0.68%, 불량행위소년의 비율은 2.05%로 사법적 처벌율은 비행자들의 1/40이다. 다시 말해서 사법 당국이 찾아낸 “비행청소년”은 40명중에 1명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므로 39/40 비행청소년을 그대로 둔 채 통제된 1/40에게만 “일벌백계”식으로 다루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교정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피하게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비행청소년”을 격리할 경우에도 “격리”의 목적을 감옥에 가두어서 자유로운 삶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당국도 범죄소년들에게 교과교육을 시켜 검정고시를 보도록 하고, 직업훈련을시켜 자립하도록하며, 특별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고는 있지만, 소년원등 교정기관이 “범범학교”의 몫을 일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점에서 소년원이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비행청소년을 사랑으로 감싸 지난 13년 동안 1천2백여명을 키운 바 있는 연성원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청소년교호시설인 연성원은 법원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교화,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제아」를 보호하는 시설인데”, 비행청소년 처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선량한 학생”과 “비행청소년”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양 집단을 격리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경찰당국에 통제된 비행청소년은 죄질이 나쁘지 않은 한 가정으로 되돌려져지고,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등 교정시설로 격리되지만, 이러한 장기수용보호가 범죄학습과 범죄자간의 조직화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격리의 목적이 범죄의 재발방지에 있다면 현재의 교정보호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서 청소년 교호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표 IV-5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평균 2.193)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5.8	29.2	16.2	13.8	5.0	64.8(883)	$^2=14.38$
	남 자	40.3	31.7	9.2	12.7	6.1	35.2(479)	$=0.0062$
연 령	35-39	35.1	35.1	12.6	12.6	4.7	14.0(191)	$^2=22.49$
	40-44	40.6	31.0	13.7	10.6	4.0	40.7(554)	$=0.1279$
	45-49	35.2	28.4	14.1	16.8	5.5	29.2(398)	
	50-54	34.1	27.2	14.5	14.5	9.8	12.7(173)	
	55이상	39.1	23.9	13.0	17.4	6.5	3.4(46)	
학 력	중졸이하	35.4	28.4	17.4	13.5	5.3	35.9(489)	$^2=9.76$
	고 졸	37.9	31.1	12.2	13.7	5.2	45.2(615)	$=0.2817$
	대졸이상	39.9	31.0	10.5	12.8	5.8	18.9(258)	
인식정도	하	32.7	31.4	16.4	12.6	6.9	11.7(159)	$^2=8.24$
	중	37.0	29.6	14.9	13.9	4.5	53.7(732)	$=0.4100$
	상	39.5	30.4	11.0	13.0	6.2	34.6(471)	
대상학교	남 중	42.6	29.4	10.8	11.7	5.5	25.2(343)	$^2=22.37$
	여 중	42.5	28.0	14.2	10.8	4.5	24.4(332)	$=0.0335$
	남 고	28.8	32.8	16.1	16.7	5.6	23.7(323)	
	여 고	35.4	30.2	14.0	14.6	5.8	26.7(364)	
합 (실 수)	계	37.4 (509)	30.1 (410)	13.7 (187)	13.4 (183)	5.4 (73)	100 (1,362)	

단위: % (명)

요 약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항에서 청소년의 삶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흔히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주·흡연, 디스코장출입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거나 규제되어야 되고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아니라고 한다.

둘째, 부모들은 최근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믿으며 외국에 비해서도 큰 문제라고 본다.

셋째, 부모들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중에서 TV, 잡지 등 대중매체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청소년 비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거짓말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말고,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책임은 가정과 사회가 분담해야 하나 가정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목록중 대표적인 음주·흡연, 디스코장 출입은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문화이므로 “청소년”만은 안된다는 성인의 시각에 설득력이 적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이해해야하고 문제가 있다면 음주와 흡연을 하는 성인이 먼저 금주와 금연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중 청소년이 저지른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심판을 하는 검판사가 모범을 보이고 “법”이 옳다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지배층이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통제되어야겠지만 그 문제의 바탕에 깔린 청소년의 욕구를 사려깊게 충족시키지 않고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쥌 수 없을 것이다. 이점에서 부모와 기성세대는 자신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문제시”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

문 제 행 동

	평 균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53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1.67
본드 흡입은 대다수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18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1.73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49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1.72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3.44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3.04
T.V, 잡지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1.83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	1.93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2.19

5. 정신건강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 안에서 입시위주의 편협한 교육제도가 빚어내는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부모들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육방식은 산업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외래 문화와 대중매체가 가져다 준 새로운 진보적인 가치에 물든 청소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또 하나의 유해요소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고통과 고민을 가중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해 부모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녀양육 태도를 살펴보고 그것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여 좀 더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를 모색코저 한다.

1.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한가?
2.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체벌)의 사용은 필요한가?
3. 식사예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하는가?
4.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하는가?
5.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하는가?
6.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가?
7.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는가?
8. 시험기간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은가?

1. 부모로서 공부의 강요는 당연한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를 당연시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교육문제들이 분출됨을 TV나 신문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입시철을 전후해서 모든 부모들은 다시 한번 자녀학업지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부모들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가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자녀학습을 위한 최선의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자신들의 관심부족과 노력부족으로 자녀들이 성적부진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의 장래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부모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로서 최대의 의무이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학생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을 목적으로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본 조사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어김없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Ⅳ-52)에 제시된 결과가 보여주듯이 약 75%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

한 과열현상으로 변질될 경우 이의 수용이 힘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나 심각한 경우 청소년들에게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다양한 신문기사들은 중고교생들의 학업성적 고민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성적부진을 비판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강박관념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폐증, 노이로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빠진 학생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소위 8학군 지역인 서초·강남구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중고교생들의 대부분이 성적부진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한 예인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맞벌이 부부의 자매 중 맏딸로 서울 강북지역에서 중학교를 전교 30위 이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부모의 권유에 따라 강남지역 고교에 진학한 뒤 계속 성적이 뒤지자 이를 비판, 학교친구도 사귀지 않는 등 자폐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고2가 되면서 평소 15위 정도의 성적이 40위권으로 떨어져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나는 좋은 딸이 못되니 동생에 기대를 걸라’는 유서를 쓴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같이 자녀 자신들은 학업성적으로 인해 옆에서 보태주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칫 주위에서 잘못 밀어부치면 극단적인 자살행위로 나타나거나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공부의 강요를 부모의 권리나 의무로 당연시 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정신상태를 늘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파악하여 같은 ‘공부해라’라는 말이라도 ‘강요’가 아닌 ‘사랑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다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생의 90% 이상이 학교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10명 중 6명 정도는 자살충동을 느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고생의 90% 이상 즉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공부의 결과인 성적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부모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부만이 자녀의 행복을 얻게 해주는 행운의 열쇠라는 사고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로 머물어야 할 것이다.



[표Ⅳ-52]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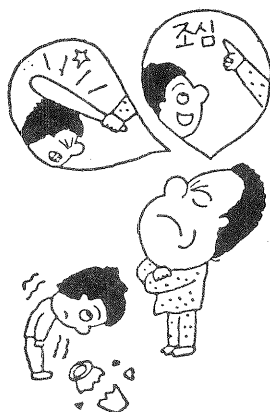
(평균:2.124)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 다	잘 모르 겠 다	아닌 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35.9	39.1	6.7	15.3	3.1	64.8(883)	$\chi^2=1.80$
	남 자	32.4	41.8	6.9	15.7	3.3	35.2(479)	$\chi^2=0.7710$
연 령	35-39	42.4	33.0	5.8	16.2	2.6	14.0(191)	$\chi^2=18.77$
	40-44	33.6	41.7	6.7	14.1	4.0	40.7(554)	$\chi^2=0.3136$
	45-49	34.7	38.9	6.5	17.8	2.0	29.2(398)	
	50-54	31.2	43.4	9.2	12.1	4.0	12.7(173)	
	55이상	28.3	45.7	4.3	19.6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38.9	32.5	7.6	18.4	2.7	35.9(489)	$\chi^2=27.97$
	고 졸	33.7	43.7	5.0	14.5	3.1	45.2(615)	$\chi^2=0.0005$
	대졸이상	29.1	45.3	9.3	12.0	4.3	18.9(258)	
인식정도	하	33.3	36.5	11.9	15.1	3.1	11.7(159)	$\chi^2=25.74$
	중	33.9	41.0	7.5	15.8	1.8	53.7(732)	$\chi^2=0.0012$
	상	36.3	39.7	3.8	14.9	5.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7.0	40.2	3.5	14.9	4.4	25.2(343)	$\chi^2=30.82$
	여 중	40.1	35.5	7.5	13.9	3.0	24.4(332)	$\chi^2=0.0021$
	남 고	26.0	41.5	9.9	19.2	3.4	23.7(323)	
	여 고	35.2	42.6	6.3	14.0	1.9	26.7(364)	
합	계	34.7	40.0	6.8	15.4	3.2	100	
(실	수)	(472)	(545)	(92)	(210)	(43)	(1,362)	

단위: %(명)

2.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의 사용이 필요한가?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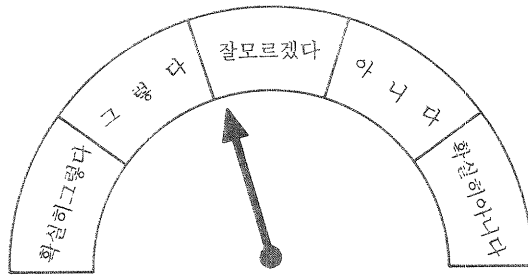
매를 드는 것이 올바른 교육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것이었다. 본 조사결과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의 사용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24.4%의 부모가 ‘확실히 그렇다’고 했으며 29.7%는 ‘그런 것 같다’ 10.7%는 ‘잘 모르겠다’ 25.3%는 ‘아닌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9.8%의 부모만이 ‘확실히 아니다’라고 매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러한 매에 대한 찬반론은 체벌을 가하는 부모 쪽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체벌을 받는 자녀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선생님은 말로 해야지 때려서는 안된다’라는 질문에 101명 중 27명이 강한 찬성을 했고 27명이 약한 찬성을 했으며 잘모르겠다가 12명 그리고 약한 반대가 26명 강한 반대가 9명의 비율로 응답을 했다. 즉 101명 중 54명 꼴로 과반수 이

상의 청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매맞기를 원치 않고 있는 반면 54%의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부모 자녀간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부모가 매를 잘못 사용하였을 경우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며 이중적인 성격과 공포심, 죄의식, 열등감을 갖게되고 창의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매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을 주어도 예기치 못할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부모가 이성과 참을성을 갖고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폭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매를 사용하면서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소극적인 성격의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공격심과 반항심 등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는 일은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와 같은 억압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다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힘들고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일이 되겠지만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시인할 수 있도록 조심스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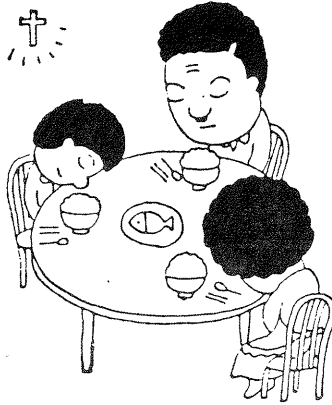
(표Ⅳ-53)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의 사용은 필요하다
(평균:2.66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4.3	30.4	10.6	24.8	9.9	64.8(883)	$\chi^2=0.63$
	남 자	24.6	28.6	10.9	26.3	9.6	35.2(479)	$\chi^2=0.9586$
연 령	35-39	24.6	34.6	9.9	19.4	11.5	14.0(191)	$\chi^2=31.00$
	40-44	28.0	31.0	9.6	22.9	8.5	40.7(554)	$\chi^2=0.0135$
	45-49	21.9	29.6	11.3	26.4	10.8	29.2(398)	
	50-54	21.4	24.3	12.1	33.5	8.7	12.7(173)	
	55이상	15.2	15.2	17.4	39.1	13.0	3.4(46)	
학 력	중졸이하	25.8	25.8	13.1	24.3	11.0	35.9(489)	$\chi^2=12.69$
	고 졸	24.9	31.9	9.1	25.9	8.3	45.2(615)	$\chi^2=0.1228$
	대졸이상	20.9	32.2	10.1	26.0	10.9	18.9(258)	
인식정도	하	24.5	18.2	14.5	31.4	11.3	11.7(159)	$\chi^2=20.30$
	중	24.9	30.1	11.6	25.0	8.5	53.7(732)	$\chi^2=0.0092$
	상	23.8	33.1	8.1	23.8	11.3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3.6	32.4	9.3	24.8	9.9	25.2(343)	$\chi^2=18.54$
	여 중	28.6	28.6	12.0	18.7	12.0	24.4(332)	$\chi^2=0.1000$
	남 고	21.4	29.4	10.8	28.8	9.6	23.7(323)	
	여 고	24.2	28.6	10.7	28.8	7.7	26.7(364)	
합 계		24.4	29.7	10.7	25.3	9.8	100	
(실 수)		(333)	(405)	(146)	(345)	(133)	(1,362)	

단위: %(명)

3. 식사에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하는가?

조사결과: 식사에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사에절의 중요성은 반드시 먹는 질서에서만 의미를 찾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식사시간이면 서로 모이는 생활구조를 지녀왔다. 따라서 가족끼리 또는 친족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은 서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 왔다(우리집 가정교육, 조선일보 사회부,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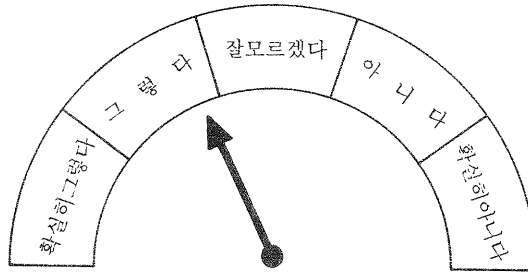
이와같이 가족에게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고 자녀들에게는 기본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식사시간의 예절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식사에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29.5%의 부모는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33.2%는 ‘그런 것 같다’ 10.6%는 ‘잘 모르겠다’ 22.8%는 ‘아닌 것 같다’ 3.8%는 ‘확실히 아니다’로 반응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나라 부모들은 과거와 변함없이 엄격한 식사에절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부모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엄격한 식사에절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사에절은 어른은 어른끼

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부녀자들은 다시 밥상을 차렸으며 밥상에서의 법도도 까다로웠다.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어야 하며 손윗사람이 수저를 들기를 기다려 아랫사람이 차례로 수저를 잡아야 하고 반찬도 윗사람이 손을 대기 전에는 먼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등으로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애정과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식사시간에 엄격한 절도와 형식을 너무 증시한 나머지 물론 단편적인 예절교육은 되겠지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성차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의 한 영역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조사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젊은 부모보다는 나이든 부모가 식사예절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인식 정도가 낮은 부모일수록 엄격함을 더 주장하는 편이었다. 이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권위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젊은 부모보다는 나이든 부모가 더욱 더 전통적인 가치에 매여 있고 자녀에 대해 관심이 적은 부모일수록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식사예법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야만 반드시 훌륭한 식사습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예절을 습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들은 서양의 식탁문화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므로 그들의 자유롭고 명랑한 식사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식사예절을 자녀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생활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명령-복종의 뉘앙스를 풍기는 엄격함 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오갈 수 있는 식탁문화를 도입하여 식사시간이 부모 자녀간의 진정한 교류가 오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표Ⅳ-54]

식사예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

(평균:2.383)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9.4	31.8	10.8	24.1	3.9	64.8(883)	$^2=3.27$
	남 자	29.6	35.7	10.4	20.5	3.8	35.2(479)	$=0.5134$
연 령	35-39	31.9	29.8	10.5	22.5	5.2	14.0(191)	$^2=24.26$
	40-44	28.0	32.1	11.4	24.4	4.2	40.7(554)	$=0.0840$
	45-49	28.6	37.9	8.3	22.1	3.0	29.2(398)	
	50-54	30.1	28.3	16.2	22.5	2.9	12.7(173)	
	55이상	43.5	37.0	2.2	13.0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33.1	31.5	12.7	19.4	3.3	35.9(489)	$^2=18.20$
	고 졸	27.5	32.8	9.8	26.5	3.4	45.2(615)	$=0.0198$
	대졸이상	27.5	37.2	8.9	20.5	5.8	18.9(258)	
인식정도	하	23.3	34.0	15.1	22.6	5.0	11.7(159)	$^2=12.90$
	중	28.8	32.4	11.5	23.9	3.4	53.7(732)	$=0.1152$
	상	32.7	34.2	7.9	21.2	4.0	34.6(471)	
대상학교	남 중	30.0	36.4	7.6	21.9	4.1	25.2(343)	$^2=15.94$
	여 중	32.5	29.5	10.2	22.9	4.8	24.4(332)	$=0.1939$
	남 고	26.3	31.0	14.2	24.5	4.0	23.7(323)	
	여 고	29.1	35.4	10.7	22.3	2.5	26.7(364)	
합	계	29.5	33.2	10.6	22.8	3.8	100	
(실	수)	(402)	(452)	(145)	(311)	(52)	(1,362)	

단위:%(명)

4.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하는가?

조사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 자녀들이 따라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앞의 문항에서 나타났듯이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74%가 주장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두 개의 설문 문항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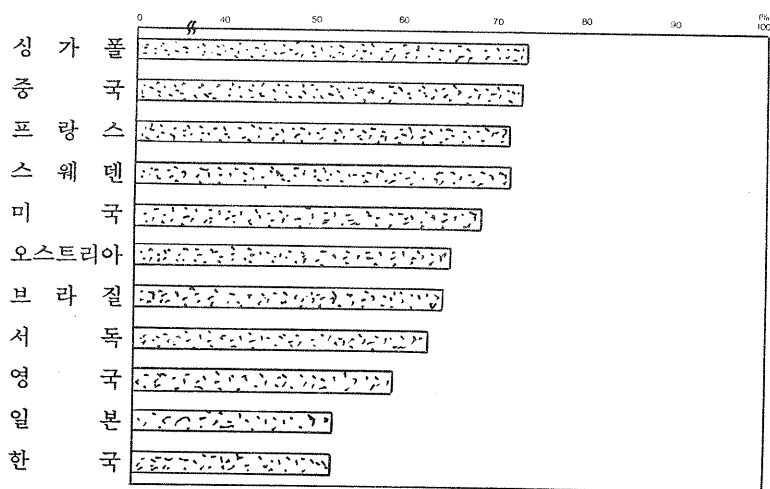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43.7%	30.7%	8.4%	14.0%	3.3%
2.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22.8%	36.9%	12.8%	23.1%	4.3%

그러나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는 흡족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묻거나 존중하는 일에 관한 한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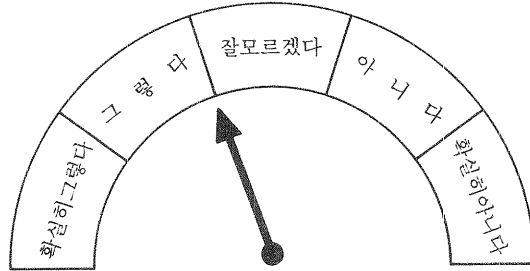
부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85년 우리나라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2%이고 42%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불만족 현상은 세계각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교된 11개 국가 중에서 40%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견대립을 겪고 있는 서독에 뒤이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35% 정도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일본 총무청 발행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 표를 통해 한국이 부모 자녀간의 대화가 가장 부족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 만족도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 자녀들이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여 불만을 계속 누적시킴으로써 부모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를 잃어 자녀와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대화시간의 연장과 대화기술의 터득을 통해 자녀들이 민주적으로 부모와 의견을 교환하여 불만을 해소시켜 가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표Ⅳ-55]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평균:2.492)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1.6	37.3	13.3	23.4	4.4	64.8(883)	$\chi^2=2.25$
	남 자	25.1	36.3	11.9	22.5	4.2	35.2(479)	$\chi^2=0.6884$
연 령	35-39	23.6	32.5	13.6	24.1	6.3	14.0(191)	$\chi^2=10.15$
	40-44	20.9	37.7	13.9	22.7	4.7	40.7(554)	$\chi^2=0.8582$
	45-49	24.9	39.2	10.3	22.4	3.3	29.2(398)	
	50-54	23.1	35.3	13.3	24.9	3.5	12.7(173)	
	55이상	23.9	32.6	15.2	23.9	4.3	3.4(46)	
학 력	중졸이하	25.2	30.9	16.2	24.5	3.3	35.9(489)	$\chi^2=23.68$
	고 졸	22.4	38.5	11.9	22.6	4.6	45.2(615)	$\chi^2=0.0026$
	대졸이상	19.4	44.6	8.5	21.7	5.8	18.9(258)	
인식경도	하	22.6	31.4	18.2	22.0	5.7	11.7(159)	$\chi^2=15.43$
	중	21.0	38.3	13.8	23.4	3.6	53.7(732)	$\chi^2=0.0512$
	상	25.7	36.7	9.3	23.1	5.1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5.7	36.2	12.5	21.9	3.8	25.2(343)	$\chi^2=24.48$
	여 중	23.5	34.9	12.3	21.1	8.1	24.4(332)	$\chi^2=0.0175$
	남 고	19.8	36.2	13.0	26.9	4.0	23.7(323)	
	여 고	22.3	40.1	13.2	22.8	1.6	26.7(364)	
합	계	22.8	36.9	12.8	23.1	4.3	100	
(실	수)	(311)	(503)	(174)	(315)	(59)	(1,362)	

단위: %(명)

5.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갖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본의 아닌 또는 의도적인 거짓말에 한두 번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처음 한두 번은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하고 거짓말의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지능화되어 생활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짓말이 발전되면 준법정신이 손상을 입게되고 비행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조사 결과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는 문항에 81%의 부모들이 동의하여 자녀들이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인식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직’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에 나타난 오늘날 청소년들의 ‘정직’에 관한 가치규범에 따르면 68%의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오히려 살

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인사회가 설혹 문제가 있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현실을 모르고 곱게 자라 줄 것을 어른들은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사회의 비리와 무규범을 보며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정직’을 강요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있다. 거짓말하는 버릇을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도 대부분은 위와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이러한 사회가치규범과의 갈등에 빠지기 전에 확고한 생활습관을 익혀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미 성장한 후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쳐준다고 위협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청소년의 반발만 일으킬 뿐일 것이므로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쳐주는 것은 어릴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 청소년이 된 후엔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언행을 선택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서울여대 강문희 교수는 거짓말하는 자녀의 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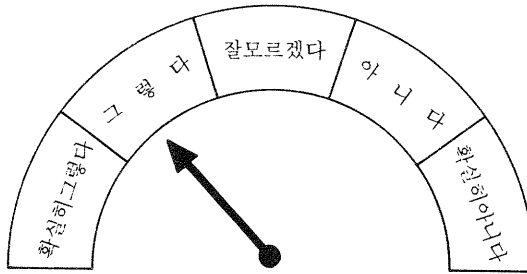
첫째, 거짓말의 내용자체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겁을 주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설사 거짓말을 했다해도 거짓말장이라고 놀리거나 비난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

셋째,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나 과보호는 하지 말아야 하며 잔소리가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좋은 행동의 표본을 보여준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적당히 편의에 따라 거짓말하는 것을 자주 보여주게되면 자녀들은 이를 모방하기 쉽기 때문이다.



[표 IV-56]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험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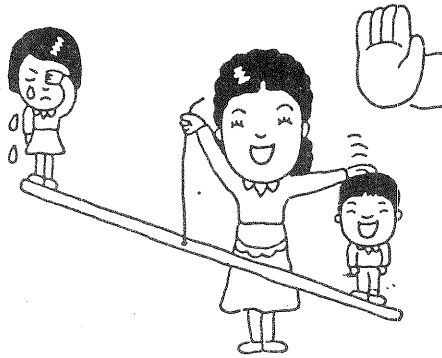
(평균: 1.82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51.1	29.4	7.7	8.6	3.2	64.8(883)	² =2.18
	남 자	50.9	30.9	6.7	9.4	2.1	35.2(479)	=0.7021
연 령	35-39	48.2	27.7	7.9	12.0	4.2	14.0(191)	² =14.82
	40-44	52.0	32.3	6.0	7.4	2.3	40.7(554)	=0.5376
	45-49	53.0	27.6	8.5	8.0	2.8	29.2(398)	
	50-54	46.8	29.5	8.1	12.7	2.9	12.7(173)	
	55이상	50.0	32.6	8.7	6.5	2.2	3.4(46)	
학 력	중졸이하	53.0	27.2	8.4	8.2	3.3	35.9(489)	² =5.26
	고 졸	49.9	31.4	7.2	9.1	2.4	45.2(615)	=0.7293
	대졸이상	50.0	31.8	5.8	9.7	2.7	18.9(258)	
인식정도	하	40.3	32.1	14.5	10.1	3.1	11.7(159)	² =22.21
	중	50.8	30.1	7.7	8.7	2.7	53.7(732)	=0.0045
	상	55.0	29.1	4.5	8.7	2.8	34.6(471)	
대상학교	남 중	54.8	30.0	5.5	6.4	3.2	25.2(343)	² =22.41
	여 중	52.7	27.1	6.6	9.3	4.2	24.4(332)	=0.0331
	남 고	44.3	33.1	8.7	10.5	3.4	23.7(323)	
	여 고	51.9	29.7	8.5	9.3	0.5	26.7(364)	
합	계	51.0	30.0	7.3	8.9	2.8	100	
(실	수)	(695)	(408)	(100)	(121)	(38)	(1,362)	

단위: %(명)

6.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들이 개입해야 하는가?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 형제간의 싸움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싸움은 하면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인 경우 혼자 자라게 되어 성격이나 행동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같은 또래와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을 수가 없어 사회성 발달이 늦고 비사회적일 경향이 짙은 반면 형제 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형제간의 갈등을 통해 여러가지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상대의 기분이나 요구를 이해하고 자기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제싸움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직접 개입해서 빨리 시끄럽고 귀찮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조사의 설문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31.3%가 '확실히 그렇다' 38%가 '그런 것 같다' 11.6%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으며 14.9%가 '아닌 것 같다' 4.2%가 '확실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

니보다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으며 자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높은 비율로 부모의 개입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자녀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과잉친절을 베풀거나 권위로 억압하여 단시일에 해결하려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스스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체득하여야 할 삶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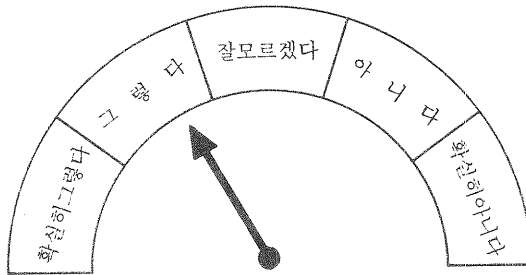
유대인들은 형제 싸움에 관여할 때, 자녀들 사이에는 부모가 참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도리가 있고 묵약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림으로 일어나는 싸움에는 부모가 개입할 것이 못 된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보통 부모들은 그 싸움이 일어난 경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리기 좋게 「나이가 위이니까」라든가 「나이가 아래이니까」하는 의례적인 이유를 세우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본의아닌 일이 없다.

싸움을 하는 한,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형제간의 입장을 떠나서 1대 1의 인격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형제간이란 싸우면 싸울수록 정이 깊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형제 사이의 좋은 점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평생 얼굴도 보기 싫게 되는데, 태풍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때가 지나면 서로 계면쩍어서 묘한 일로 화해되어 전과 같은 사이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의 문제인 것이며,, 부모가 쓸데없이 말렸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간의 그러한 미묘한 사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1990, 범림 출판사, 자식은 유대인 처럼 키워라, P.301)

따라서 부모는 형제 자매간의 싸움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가능한 한 저희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반드시 개입하여야 할 때에는 개입의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싸운 당사자들과 함께 밟아가며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여 줌으로써 양자녀 모두에게 불만의 요소를 제거해 주어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



[표 IV-57]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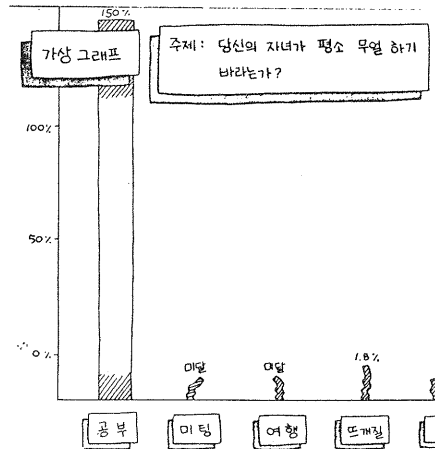
(평균: 2.227)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9.8	35.8	12.2	17.1	5.1	64.8(883)	$\chi^2=19.08$
	남 자	34.0	42.2	10.4	10.9	2.5	35.2(479)	$\chi^2=0.0008$
연 령	35-39	26.2	38.7	12.6	17.8	4.7	14.0(191)	$\chi^2=15.83$
	40-44	30.7	35.7	12.1	16.4	5.1	40.7(554)	$\chi^2=0.4646$
	45-49	32.4	42.2	9.8	12.6	3.0	29.2(398)	
	50-54	35.3	36.4	12.1	13.3	2.9	12.7(173)	
	55이상	34.8	32.6	15.2	10.9	6.5	3.4(46)	
학 력	중졸이하	32.3	33.9	14.3	16.0	3.5	35.9(489)	$\chi^2=14.47$
	고 졸	30.9	38.7	11.4	14.5	4.6	45.2(615)	$\chi^2=0.0703$
	대졸이상	30.2	44.2	7.0	14.0	4.7	18.9(258)	
인식정도	하	25.8	39.0	18.2	12.6	4.4	11.7(159)	$\chi^2=14.75$
	중	30.9	38.1	12.3	14.5	4.2	53.7(732)	$\chi^2=0.0641$
	상	33.8	37.6	8.3	16.3	4.0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8.6	42.9	10.5	14.6	3.5	25.2(343)	$\chi^2=18.33$
	여 중	34.9	34.0	10.2	15.1	5.7	24.4(332)	$\chi^2=0.1058$
	남 고	26.9	39.0	15.8	14.9	3.4	23.7(323)	
	여 고	34.3	36.3	10.2	15.1	4.1	26.7(364)	
합 (실 수)	계	31.3	38.0	11.6	14.9	4.2	100	
	(실 수)	(426)	(518)	(158)	(203)	(57)	(1,362)	

단위: % (명)

7.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는가?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문항에 60%의 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더 강력히 여가생활 보다 우선한 공부의 필요성을 찬성하고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여가생활보다는 공부를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자신들도 부모의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YMCA 연합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신이 여가생활을 갖는 것에 대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란 질문에 ‘알아서 공부하면서 여가도 즐기라고 하신다’가 67%이고 ‘여가는 이 다음에 즐기라고 하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2%였다. 집단별로는 공부하면서 즐기라는 응답에서 중학생의 73%, 고등학생의 65%, 재수생의 50%가 해당되는 반면, 이 다음에 즐기라는 쪽은 중학생의 18.3%, 고등학생의 25.9%, 재수생의 35%에 해당되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이 억제되고 있음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청소년은 거의 대부분 여가활동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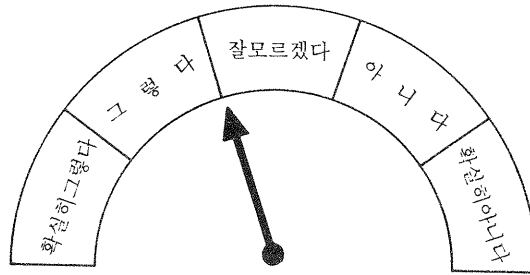
해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공부와 여가를 스스로 잘 조절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소년들은 부모와 공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서, 심신의 휴식을 위해서, 공부나 일의 능력을 위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위해서 여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부와 시간과 돈이 방해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공부나 일, 경제적 부담만 없다면, 방학이나 휴가때 여행이나 캠핑 등으로 여가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의 생활은 공부(학생과 재수생)와 일(근로청소년)로 지나친 부담을 안고 있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은 공부나 일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라디오와 TV를 시청하는 일로만 소일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만을 중요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은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몰이해 등 다방면에 걸쳐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부모인 기성세대의 여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부모들이 자녀들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면서 여가도 즐기기'를 바라거나 '이 다음에 즐기기'를 강요하면서 공부와 일로 인해 쌓인 긴장이나 피로를 풀어주는 전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등한시 한다면 청소년들은 스스로 바람직하지 못한 불건전한 해소책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내의 여가 활동을 찾게 되므로 오락실 만화방 비디오가게 등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생활의 활력소, 심신의 휴식, 공부나 일의 능력, 삶의 의미추구를 위한 여가활동의 욕구를 건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표 IV-58]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다

(평균:2.515)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26.6	36.1	10.4	20.7	6.1	64.8(883)	$\chi^2=12.28$
	남 자	22.3	33.6	10.6	22.5	10.9	35.2(479)	$\chi^2=0.0154$
연 령	35-39	18.8	30.4	12.0	29.3	9.4	14.0(191)	$\chi^2=23.99$
	40-44	27.3	35.4	10.1	20.8	6.5	40.7(554)	$\chi^2=0.0897$
	45-49	25.6	36.2	9.8	20.9	7.5	29.2(398)	
	50-54	26.0	38.7	11.6	15.6	8.1	12.7(173)	
	55이상	17.4	32.6	10.9	21.7	17.4	3.4(46)	
학 력	중졸이하	26.8	32.1	12.3	21.7	7.2	35.9(489)	$\chi^2=21.48$
	고 졸	25.4	35.6	9.9	22.9	6.2	45.2(615)	$\chi^2=0.0060$
	대졸이상	21.3	40.3	8.5	17.1	12.8	18.9(258)	
인식정도	하	24.5	32.1	9.4	25.2	8.8	11.7(159)	$\chi^2=10.83$
	중	23.1	35.9	12.3	20.6	8.1	53.7(732)	$\chi^2=0.2109$
	상	28.5	35.2	8.1	21.2	7.0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2.7	38.2	9.0	22.2	7.9	25.2(343)	$\chi^2=22.96$
	여 중	25.9	31.0	10.8	23.5	8.7	24.4(332)	$\chi^2=0.0280$
	남 고	19.2	37.2	11.8	23.8	8.0	23.7(323)	
	여 고	31.9	34.6	10.4	16.5	6.6	26.7(364)	
합	계	25.1	35.2	10.5	21.4	7.8	100	
(실	수)	(342)	(480)	(143)	(291)	(106)	(1,362)	

단위: %(명)

8. 시험기간 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은가?

조사결과: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시험기간 중이라도 각성제 복용은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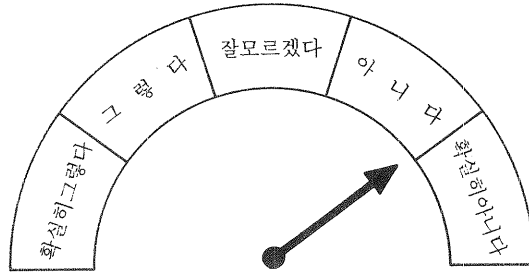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중 각성제는 본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져있다. 각성제라함은 의학적으로 히로뽕을 포함하는 강력 흥분제까지도 포함되나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이 잠을 쫓기 위하여 사용하는 카페인 등 약물을 말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각성제 사용 경험자의 경우 학교청소년이 29.7%, 근로청소년 37.7%, 비행청소년 34.8%로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근로청소년들이 근로와 관련하여 많은 각성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성제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가 2%를 나타내며, 고등학생은 남자가 약 33%, 여자가 3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남·녀에 따른 사용정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각성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남자가 44%, 여자가 35%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가 9%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남자가 34%, 여자가 4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1989, p.12,2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각성제 사용실태에 대한 위와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청소년 자녀들의 각성제 사용실태가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될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청소년이 각성제를 사용하는 첫번째 이유가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73.5%)임을 볼 때 학교공부를 하기위해서 특히 시험기간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학생들이 각성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된 보고서는 학교성적과 각성제 사용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이 낮은 편인 경우 학생들의 26.3%가 각성제 사용 경험이 있었고 중간성적의 학생은 28.4% 그리고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40.3%가 각성제를 사용하고 있어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각성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적에 대한 성취욕구가 큰 경우, 밤을 새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성제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시험기간 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부모들은 '확실이 아니다'가 69%로 매우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6%의 부모들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나타내어 전체의 약90%가 자녀들의 각성제 복용을 부모들의 첫번째 관심사인 학교성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기간 중이라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의 부모들이 약물남용과 그 부작용에 대해 단호하게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약물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청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약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약물거부의 의미를 갖게함은 물론 약물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어른들은 사용하면 왜 안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사용하면 안 된다고만 해요.’



[표 IV-59]

시험기간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

(평균: 4,488)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합계(실수)	통계값
성 별	여 자	4.0	2.7	4.4	19.7	69.2	64.8(883)	$^2=6.48$
	남 자	2.3	3.8	2.9	22.3	68.7	35.2(479)	$=0.1660$
연 령	35-39	3.7	5.8	4.7	20.9	64.9	14.0(191)	$^2=14.62$
	40-44	4.3	2.3	3.4	19.9	70.0	40.7(554)	$=0.5525$
	45-49	1.8	2.8	3.8	20.4	71.4	29.2(398)	
	50-54	4.0	3.5	5.2	22.5	64.7	12.7(173)	
	55이상	2.2	2.2	2.2	23.9	69.8	3.4(46)	
학 력	중졸이하	3.9	3.5	4.5	22.1	66.1	35.9(489)	$^2=6.93$
	고 졸	3.1	2.3	3.9	20.5	70.2	45.2(615)	$=0.5431$
	대졸이상	3.1	4.3	2.7	18.2	71.7	18.9(258)	
인식정도	하	2.5	6.3	6.9	17.6	66.7	11.7(159)	$^2=18.18$
	중	3.8	3.0	3.6	23.0	66.7	53.7(732)	$=0.0199$
	상	3.0	2.1	3.4	18.0	73.5	34.6(471)	
대상학교	남 중	2.3	2.6	3.5	23.6	67.9	25.2(343)	$^2=19.38$
	여 중	5.7	2.7	3.3	19.3	69.0	24.4(332)	$=0.0797$
	남 고	2.2	4.3	5.9	22.0	65.6	23.7(323)	
	여 고	3.3	2.7	3.0	17.9	73.1	26.7(364)	
합	계	3.4	3.1	3.9	20.6	69.0	100	
(실	수)	(46)	(42)	(53)	(281)	(940)	(1,362)	

단위: % (명)

요 약

각 질문 문항에 대한 부모들의 응답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육관을 갖고 자녀를 권위로 억압하거나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전근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모가 옳다고 판단하는 가치를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내적 성숙도나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감행해야 하고, 자녀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도 부모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복종하며 따라야 하고 자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결정해야 할 일들도 부모가 개입하여 간단하게 해결해 주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공부를 무조건 중시하여 이를 위한 강요를 당연시 하는 반면 공부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인 여가생활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이중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바람직한 교육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부모는 그들이 자신의 일 (공부)을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강요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인내하며 기다려 주고 공부나 일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안에서 쌓인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가문화나 놀이문화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기꺼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시 부모의 사랑에 도움이 될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항상 대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 신 건 강

	평 균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	2.12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체벌)의 사용은 필요하다.	2.66
식사에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	2.38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2.49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	1.83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2.23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 할 수 없다.	2.52
시험기간 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	4.49

V. 어른들이 풀어야 할 청소년 문제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 및 태도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는데 있어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관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이 연구에서의 기본적 인식론을 세우는 것으로서 제2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타당화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문제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적절한 방법론을 동원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논의와 함께 제3장 및 제4장에서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이 연구를 총결산하는 요약 및 결론으로서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관해)

청소년들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의 시각은 어른들이 자기정당화를 위해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진단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패러다임이다. 이 입장에서는 흔히 세대차의 관점에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독립적이고 이분적인 관계로서 두 집단간의 갈등을 설명하려 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청소년들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의 시각은 전자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어른의 문제로 환원하여 소위 「문제청소년 뒤에는 문제가정이나 문제사회가 있다」라고

하며 어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 입장에서는 성인의 문제가 기묘한 과정(성인의 자기정당화)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그들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그가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를 통해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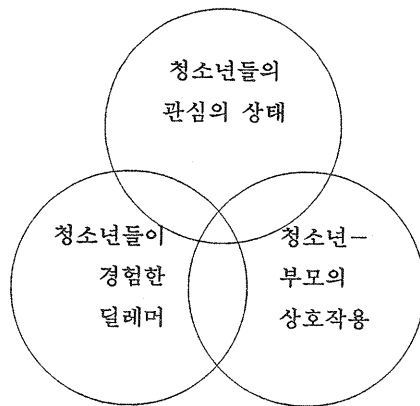
세번째의 시각은 청소년 자신이 보는 그들의 입장으로 자신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그들 자신의 예리한 눈으로 성인 사회의 위선, 기만, 허위 등을 지금까지 어른들이 찾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의 원인들을 지적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은 성인들에게 「자신들의 목줄기를 쥐고 있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호소한다.

청소년 문제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앞의 세 접근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 입장」이다. 여기에서 총체적 접근이란,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사용해 온 「원인-결과」의 시각을 부정하면서, 인간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context), 특이성(idiosyncracies), 복잡성(complexitie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등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화된 「사실」들 보다 「의미」들을 추구하는데 더 큰 비중을 갖는다. 예컨대, 실증주의적 접근이 탐구의 대상으로부터 「연역」이나 「귀납」을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총체적 접근은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이나 맥락에 독특한 것으로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이를 청소년 문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성인-청소년」간의 상호작용 또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이해를 위해 탐구될 문제는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이 경험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부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더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이 세 영역으로 구성된 위의 개념모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탐구될 구체적인 문제영역은 「가족문제」 「이성 및 성문제」 「학습 및 진로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그리고 「정신건강문제」의 5가지로 추출하였다.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 대해)

전체 부모의 1/3 정도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관심)의 정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362명의 부모 중 471명만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이 중 약 70%가 여자로서 이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보다 많은 시간과 대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모든 학부모(96.1%)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으나 자녀들의 교과지도나 자녀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이 자녀의 학업성취 그것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아닌 상호경쟁관계의 지수인 「식자」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의 현재 교육실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바로 부모들이 우리의 교육실태를 통렬히 지적하는 소위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지적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하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에서 우리의 부모들은 보다 많은 「매」와 보다 적은 「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을 수록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미나 오락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오락을 즐기는지 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는 무심하며 오직 학습과 관련된 것에만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예컨대 자녀가 읽는 잡지책 보다는 참고서의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으며, 취미나 오락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도 단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좋은지 나쁜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점에서 좋고 나쁜지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녀들의 취미나 특기 등은 적성의 일부로서 부모들이 잘 알고 함께 도와줄 때 보다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부모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미덕일 수도 있으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나 분신으로 여길 경우 이는 한 인격체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자녀간의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구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립·독립심을 중시하는데 비해 우리는 부모들은 부모에 대한 복종 및 순응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태도는 본 조사에서의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앞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부모들은 부부간의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 같다. 즉, 자식의 교육이나 관심에서 어머니가 더욱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해야 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의 자녀의 교육 및 진로문제는 확실히 어머니의 큰 영향권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자녀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효도 및 복종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케한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부모의 이러한 생각은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의 한 단면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및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반면 청소년들은 이를 벗어나려 하는 것과 같이 어느 세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일 것이나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의 과정속에 있는 요즈음의 부모세대들은 그 갈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대말을 쓰기를 강요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존대말을 습득하였으나 점차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들이 존대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반말 사용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아름다우며 형식에 억매이지 않아 자유스럽고 친근감을 준다면 이를 용납하는 경향도 보인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의 부모들(90%)은 자녀의 존대말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다.

어른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청소년들은 쉽게 짐작하듯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염려하고 있는 만큼 성인들 자신도 가치의 혼란을 느낀다. 이는 요즈음의 기성세대가 문화적으로 상반된 두개의 가치체계(전통사회와 현대사회)속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가치혼란을 겪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현재의 그들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부분의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불유예로서 사실상 청소년과 성인간의 갈등의 근본원인이 된다. 어쨌든 우리의 부모들은 청

소년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도덕성에 관해 자신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약 1/3 정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본보기로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조사의 결과 약 1/3 정도의 부모들만이 도덕적으로 자신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만일 「문제청소년 뒤에 문제부모가 있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라면 위의 결과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이다. 부모들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많은 부모들(40.9%)이 교육상 자녀의 일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일상생활과 생각을 담아놓은 일기는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부모들이 보아야 하는가는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니다. 본 조사에서 자녀의 일기를 보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44.5%나 되었지만, 그들의 사생활이 적힌 일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부모 위주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타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우리 부모들의 생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외공부에 대해 부모들은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외는 부모와 자녀들이 현실에서 직접 부딪히게 되는 당면문제이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본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과외의 여러가지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과외는 바람직 하지 않지만 치열한 입시경쟁에서의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선택시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려 한다.

일생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진로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결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부모의 태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다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8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들중 66.3%가 자신의 결정으로 학과선택을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들은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이 결과는 우리의 현재 교육상황에서 재수의 필요성은 당연히 되고 있고 또 입시에 탈락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수이외의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본 조사의 응답자가 자녀의 입시문제가 급박하지 않은 학부모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수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의 가치를 수단보다는 목적에 두는 이상적인 태도 성향을 보인다.

많은 부모들이 교육은 생존경쟁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밝혀진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부모들은 과외, 재수 등과 같은 현실적인 맥락에서는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과 같은 추상적 맥락에서는 목적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성공을 상급학교의 진학 즉, 입시경쟁에서의 합격에 두려고 하며 그때까지 그들의 자유와 의사를 제한시키려 한다. 즉, 대학에 입학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설득하면서 심지어는 체벌까지 당연히 동원하려 한다. 부모들의 이런 시각은 학습·진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모든 관심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예컨대 이성교제도 대학입학후로 유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태도에서도 보여진다. 어쨌든 이 또한 성인위주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부를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성호기심과 성충동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관한 한 우리 부모들은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다.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소년과 소녀)들의 가슴속에 싹튼 사랑의 씨앗은 일종의 탈선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금지당하였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극단적으로 금지시킨 사회적 상황이 최근에 와서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성충동 및 성호기심과 같은 일차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부모들에게 찬·반이 갈리는 쟁점의 문제로 나타난다

자위행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충동이 해소된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거의 보편화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적당한 정도의 자위행위는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위행위를 금지해야 할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자위행위를 자연적인 현상인 정상으로 보는가 또는 비정상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러 성행동이 정상·비정상적으로 규정되어 문제행동 또는 비행이라는 틀에 갖히게 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학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성교제가 그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이성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 이성 친구의 인간됨이나 이성교제 중에 일어나는 대화 등을 연상하기에 앞서 이성교제로 인한 학업태만이나 성적부진만을 염려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결국은 성행위로 발전되어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문제를 비행으로 보려는 문제위주로 청소년을 보려는 태도를 나타내준다. 이와함께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성도덕규준의 이중성」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기에 무척 당혹스런 문제로 생각한다.

성에 관한 관심은 성인은 물론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많은 부모들은 성의 문제를 터부시 하거나 점잖치 못한 일로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들이 성의 질문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른들의 이중적인 성도덕 규준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은 때가 되면 성에 대해서는 자연히 알게 되므로 조기에 성교육을 할 경우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많은 부모들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성도덕 규준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에 대해서 남녀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남성우위 라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본 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보이는데 예컨대 남

너절세 부동석이란 말이 시대착오가 아닌 우리사회가 남녀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준으로 본다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딸의 이성교제를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또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남녀공학을 많은 부모들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는 것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결국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이런 성인 위주의 시각은 청소년들과 불가피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위의 결과로서 단적으로 표현된다. 즉,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재량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부모의 권리로 생각하는 주요한 근거는 「그들의 장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성인 위주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만일 「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청소년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들의 행복」간에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 보다 타당할 것인가의 아주 미묘한 문제에 부딪힌다. 이는 어른과 청소년들이 참답게 대화하고 논쟁하여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성과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부모-자녀간의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디스코장 출입, 외박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란 성인들의 시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작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그들을 지켜보는 성인들은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디스코장 출입, 외박 등은 보통의 청소년들이 습관적 또는 우연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탈선행위로 볼

수 있는바 우리의 부모들은 이에 관대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최근의 청소년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우리의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의 사회면에 커다란 활자로 자극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기사는 부모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외국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보여진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이 나라마다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사실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에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덜 심각한 편인데도 많은 부모들은 우리의 경우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정보화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성인들과는 매스컴을 보는 눈이 크게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1960년대 이전에는 부모, 교사, 친구...등의 순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모와 교사보다 영향력을 더 주고 있으며 TV, Radio, 영화 등 대중매체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한다.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중매체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도외시 하고는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부모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매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발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행 청소년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태도는 현재 우리 기성 세대들이 청소년들을 문제의 관점으로 보아 그 원인이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의 명백한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결함이 많다. 청소년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들과 성인 또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에게만 두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청소년들을 격리해야 한다면 그 책임이 있는 부모도 격리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부모들의 태도는 문제행동을 관대하게 보려는 허용적인 태도라기 보다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강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많은 부분이 부모의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치열한 입시 경쟁에 당면한 그들에게 부모의 공부강요는 커다란 심적부담을 주게 된다.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를 당연히 생각하는 부모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과열현상」으로 변화되며 이의 수용이 힘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되거나 심각한 경우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 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벌자체 또는 체벌사용의 효과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일고 있으나,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체벌 즉, 매의 사용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체벌의 경우 역시 부모들은 마지못해 사용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식사예절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사에절에 대한 엄격성을 강조하는 부모의 태도는 전통적인 가치지향성을 보여준다. 전통을 위해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들간의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자녀들에 대한 엄격한 태도 역시 그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허용적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결정에 자녀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결정에 자녀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당연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부모는 독립적인 자녀보다는 의존적일지라도 순종적인 자녀를 더 바라고 있는 태도를 흔히 나타낸다. 부모의 결정에 논쟁을 시작하려는 자녀보다 순종적으로 따라주는 자녀로 키우려는 것은 전통적으로 「효」로 강조하는 우리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녀가 거짓말을 할 경우 위협적으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일지모르나,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고치려는 방법에서 별만을 사용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이 문제해결에는 별이 일차적인 수단인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에도 보다 설득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별과 같은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청소년의 성장발달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보다 인내가 필요한 대화의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간의 갈등에 부모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형제간의 싸움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사회성을 기른다거나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고치는데 형제들간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제간의 싸움을 부정적으로만 취급하고 부모들이 직접 개입하여 빨리 시끄럽고 귀찮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는 자

너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갈등문제에는 허용적이기 보다는 억압적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제영역:가정문제, 학습·진로, 성과 이성문제, 문제행동,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앞에서 계속 지적해 온 것이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과 어른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하여 청소년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어른들의 자기정당화의 논리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으며, 그들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게 된다.

이 조사의 주요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위주의 태도」를 학습과 진로에서는 교육의 수단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성과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보려하지 않는 「폐쇄적 태도」를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억압적 태도」의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성인들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 성인들의 왜곡된 시각의 실재를 나타내 준다고 볼 때, 앞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점에서 잘못 보고있고 편견과 왜곡을 가지고 있는지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바로 청소년 문제를 풀기위한 어른들의 할 일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한 편만의 시각(성인위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른의 시각과 청소년의 시각이 상호 교차하는 상호작용의 시각 즉, 총체적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바로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이해」 및 「통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해야 될 어른들의 구체적인 기준은 본 연구가 밝힌 각각의 조사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밝힌 조사 결과들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앞서 밝혀진 결과들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에 구체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주장하려는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청소년 문제가 어른만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어른-청소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겼다고 볼 때, 오직 어른만이 전적으로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그것을 풀어야 할 책임은 우선 어른 자신에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당연히 행하는 사람들, 술취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하면서 술주정 하고 무절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성은 신성하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각종 퇴폐 업소에서 성을 팔고 사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새치기, 끼어들기, 차밖으로 쓰레기 버리기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제일이라고 삶을 통해 가르치는 어른들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쥐고 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한 연구소의 보고서 결과만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결과들은 정책 입안자 및 대중매체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시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 자신이므로 이들에게 직접 제언코자 한다.

부모제위

분명히 당신은 자신이 자녀의 일차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이며 자녀의 삶에 대한 이상과 중요성은 당신과 함께 시작함을 알고 있다.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몇가지 중요한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당신은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자녀의 삶을 당신의 편견이나 소망만으로 결정지을 권리는 없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에 앞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이나 딜레마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 애착을 가지고 깊숙히 참여하여야 한다.

당신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 당신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권리는 당신의 자녀가 존경하며 닮기를 바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어야 함으로써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인 당신을 덕목의 사표로서 존중할 것이다.

언젠가 미국의 한 저널에 「부모의 선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게재된 적이 있다. 이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부모의 선서〉

1. 나는 내자식이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교육시설들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2.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듭니다.
3. 나는 아이들이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가정문고를 만드는 것을 돕겠습니다.
4. 나는 매일 저녁 학교에서 받은 숙제들을 모두 착실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나는 저녁식사때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6. 나는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속에 어린이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책을 넣습니다.
7. 나는 신문의 기사나 텔레비전의 뉴스를 어린이와 함께 보고 그 뉴스가 우리네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8. 나는 어린이의 선생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9. 나는 어린이에게 교실에서의 기율, 특히 자기의 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 나는 어린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참 고 문 헌

- 강지원,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서울보호관찰소, 1990.
- 권이중, 자녀지도 어떻게 해야하나, 계몽사, 1989.
- 김남선, 갈 곳 없는 우리들, 사계절 출판사, 1988.
- 김성이 외,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체육부, 1989.
- 김형모, 자녀문제 부모고민, 십대들의 쪽지, 1989.
- 대한가족계획협회, 근로청소년 성교육지침서(지도자용), 1984.
- 대한가족계획협회, 꿈나무들 이야기, 1988
- 대한YMCA연맹,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1979.
- 대한YWCA연합회,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조사, 1987.
- 박덕규,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배영사, 1985.
- 박아청, 청년과 아이덴티티, 배영사, 1988.
- 서울YMCA, 성교육을 위한 후기학동의 성실태조사 보고서, 1986.
- 서울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 5주년 보고서, 1989.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일방적 고찰, 1988.
- 심영희,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 한국사회학회, 1981.
- 십대들의 쪽지 편집부, 십대들의 쪽지 모음집 2, 소망사, 1990.
- 이원영, 부모교육론, 교문사, 1989.
-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전라북도, 청소년의 성문제와 대책, 1990.
- 정원식,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집현전, 1984.

- 정원식 외,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 주왕기, 약물남용, 세계사, 1989.
- 차원재,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 청소년 교육선교회, 청소년 기사자료집 I - IV, 1989.
- 청소년육성국민회의, 청소년과 유해환경, 동경, 1975.
-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백서 1989, 1990.
- 푸른나무이야기 모임, 푸른나무 I, II, 도서출판 푸른나무, 1988.
- 한국겔렐조사연구소,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198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건강, 1990.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우리의 자녀들을 담배연기 없이 기릅니다, 1990.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199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 1988.
- 한국여성개발원, 현대가정과 자녀교육, 1984.
-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6.
- 김인희, 장인협,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한국아동의 권리”,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국대회, 1989.
- 박명운,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원, 금연교육에 관한 세미나, 1990.
-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이혜정, “노는 애들”의 세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홍종필,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G.M.블레이, R.S.존스 지음 김인식 옮김, 청년심리학, 배영사, 1988.
- 하임 G.기너트 지음 이유경 옮김, 부모와 청소년, 범우사, 1984.
- 하임 G.기너트 지음 김순희 옮김, 부모와 십대의 사이, 종로서적, 1987.
- 하인레터 지음 김현수 옮김, 텔레비전 없는 가정의 어린이 교육, 홍익제, 1987.

- 마리온 하워드 지음 바다 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성
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한겨레, 1990.
- 토마스 고오든 지음 이태영·황영자 옮김, 아동·청소년 그들의 세계, 홍익재,
1987.
- W.휴 머실다인 지음 이종범·이석규 옮김, 몸에 밴 어린시절, 카톨릭교리 신학
원, 1989.
- Deutscher, I., Words and Deeds: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In W.J.
Filstead (Ed.), *Qualitative Methodology*, Chicago: Markham, 1970.
- Eri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Freud, A.,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36.
- Strike, K.,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cience on Our
Concept of Man. In L.G. Thomas (Ed.), *Philosophical Redirection of
Educational Research*. The Seven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青少年 問題の 現状と対策, 東京, 1989
-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目で見る世界青年意識調査, 東京, 1989.

그림의 출처

1. II장 2절

- [자료 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4]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5]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2. II장 3절

- [자료 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3. III장

- [자료 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4]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4. IV장 1절

- [자료 1] 차원재,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p123.
- [자료 2]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9, p7.
- [자료 3] 서울보호관찰소,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1990, p41.
- [자료 4]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206.
- [자료 5]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6]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35.
- [자료 7]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8] 서울보호관찰소,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1990, p79.
- [자료 9] 정원식,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집현전, 1984, p166.
- [자료 10] 차원재,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p149
- [자료 11] 서울보호관찰소,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1990, p57.
- [자료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13] 서울보호관찰소,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1990, p25.
- [자료 14]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109.

5. IV장 2절

- [자료 1]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155.
- [자료 2]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p.97.
- [자료 3] 십대들의 쪽지 편집부, 십대들의 쪽지 모음집2, 소망사, 1990, p. 49.
- [자료 4]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p.15.

- [자료 5] 차원재,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p.185.
- [자료 6]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191.
- [자료 7] 정원식,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집현전, 1984, p.171.
- [자료 8]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p.111.
- [자료 9] 정원식,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집현전, 1984, p.115.
- [자료 10]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p.27.
- [자료 11]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7, p.67.
- [자료 12] 김남선, 갈곳없는 우리들, 사계절 출판사, 1988, p.139.

6. IV장 3절

- [자료 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4]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5]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6]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실 역,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성적인 고민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 한겨레, 1990, p.135.
- [자료 7]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8]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9]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10]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11] 대한가족계획협회, 그건 비밀이야, 1989, p.19.
- [자료 12]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9, p.94.
- [자료 1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14]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9, p.138.

7. IV장 4절

- [자료 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2]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3]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4]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5]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6]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7] 총무성 청소년대책본부(일본), 눈으로 본 세계청소년 의식조사, 1989(b), p.29.
- [자료 8]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9]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10] 차원재, 부모의 마음에 따라 자녀는 자란다, 웅진, 1989, p.162.
- [자료 11]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8. IV장 5절

- [자료 1] 김남선, 갈 곳 없는 우리들, 사계절 출판사, 1988, p.126.
- [자료 2]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196.
- [자료 3]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196.
- [자료 4] 서울보호관찰소, 부모의 실천이 자녀의 비행을 막는다, 1990, p.51.
- [자료 5] 조선일보 사회부, 우리집 가정교육, 도서출판 우석, 1987, p.52.
- [자료 6] 한국여성개발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1989, p.48.
- [자료 7] 한국청소년연구원, 지금 댁의 아이는, 1990.
- [자료 8] 인간발달 복지연구소, 마음의 교육시대, 1988, p.31.

[부록1]

부모의 청소년 인식조사 설문지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원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 개인의 신상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지의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7월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산218

전화 695-3856~7

I.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백분율	빈 도
1.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 특별시	13.9	189
② 직할시	37.5	511
③ 기타시	48.6	662
2. 응답자의 성별		
① 여자	64.8	883
② 남자	35.2	479
3. 응답자의 연령		
① 35-39세	14.0	191
② 40-44세	40.7	554
③ 45-49세	29.2	398
④ 50-54세	12.7	173
⑤ 55세이상	3.4	46
4. 응답자의 최종학력(단, 중퇴자는 하위학교의 졸업으로 표시바랍니다)		
① 국·중졸	35.9	489
② 고졸	45.2	615
③ 대졸(이상)	18.9	258
5. 응답자의 직업		
① 사업(상업)	12.2	166
② 교사(교수)	9.5	129
③ 주부	45.8	624
④ 회사원	15.4	209
⑤ 공무원	11.2	152
⑥ 농업	1.9	26
⑦ 기타	4.1	56

6. 응답자의 가족구조	백분율	빈 도
① 부부+미혼자녀	55.0	748
② 편부+미혼자녀	8.8	120
③ 편모+미혼자녀	6.0	82
④ 부모+부부(본인)+자녀	21.5	293
⑤ 기타()	8.7	119
7. 응답자의 자녀	—	—
8. 이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		
(1) 성별:① 여	51.1	696
② 남	48.9	666
(2) 나이:만()세	—	—
(3) 재학학교:① 중학교	49.6	675
② 고등학교	50.4	687

※ 다음의 질문에서 “자녀”란 여러 자녀중에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다음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부모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녀와 함께 전자오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백분율	빈 도
① 있다	18.3	249
② 없다	81.7	1113
2. 자녀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82.6	1125
② 잘 모르겠다	17.4	237
3.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74.4	1014
② 잘 모르겠다	25.6	348

4. 자녀의 담임선생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백분율	빈 도
① 알고 있다	66.0	899
② 잘 모르겠다	34.0	463
5. 자녀의 학급 석차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96.1	1309
② 잘 모르겠다	3.9	53
6. 자녀문제에 관해 교사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44.8	610
② 없다	55.2	752
7. 자녀의 교과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40.7	555
② 없다	59.3	807
8. 자녀의 특기나 취미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73.1	996
② 잘 모르겠다	26.9	366
9. 자녀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시 대화로 해결해 본 일이 있습니까?		
① 있다	55.1	750
② 없다	44.9	612
10. 자녀가 사용하는 참고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56.5	770
② 잘 모르겠다	43.5	592
11. 자녀가 즐겨보는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34.7	473
② 잘 모르겠다	65.3	889
12. 자녀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듣는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63.4	863
② 잘 모르겠다	36.3	499
13. 자녀의 생일은 꼭 차려주는 편입니까?		
① 그렇다	76.1	1037
② 그렇지 못하다	23.9	325

14. 자녀를 위한 책(명작, 잡지, 만화 등)을 사다준 일이 있습니까?	백분율	빈 도
① 있다	55.4	754
② 별로 없다	44.6	608
15.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72.5	987
② 없다	27.5	375

Ⅲ. 다음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응답지의 번호에 〈보기〉와 같이 그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응 답 지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확실 그런 잘못 아닌 확실
는 문항에 대하여	히그 것 르 것 히아
	렇다 같다 겠다 같다 니다
1. <u>‘확실히 그렇다’</u> 고 생각하면	① 2 3 4 5
2. <u>‘그런 것 같다’</u> 고 생각하면	1 ② 3 4 5
3. <u>‘잘 모르겠다’</u> 고 생각하면	1 2 ③ 4 5
4. <u>‘아닌 것 같다’</u> 고 생각하면	1 2 3 ④ 5
5. <u>‘확실히 아니다’</u> 고 생각하면	1 2 3 4 ⑤

자녀지도

1.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할 필요가 있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33.2	452
② 그런 것 같다	25.9	353
③ 잘 모르겠다	6.5	89
④ 아닌 것 같다	18.2	248
⑤ 확실히 아니다	16.2	220

2. 자녀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46.2	629
② 그런 것 같다	34.1	464
③ 잘 모르겠다	6.0	82
④ 아닌 것 같다	9.9	135
⑤ 확실히 아니다	3.8	52
3.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확실히 그렇다	59.8	814
② 그런 것 같다	30.0	409
③ 잘 모르겠다	5.6	76
④ 아닌 것 같다	3.5	48
⑤ 확실히 아니다	1.1	15
4.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43.7	595
② 그런 것 같다	30.7	418
③ 잘 모르겠다	8.4	114
④ 아닌 것 같다	14.0	190
⑤ 확실히 아니다	3.3	45
5. 자식기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① 확실히 그렇다	58.5	797
② 그런 것 같다	31.5	429
③ 잘 모르겠다	3.5	47
④ 아닌 것 같다	4.2	57
⑤ 확실히 아니다	2.3	32
6. 자식은 부모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61.5	838
② 그런 것 같다	23.3	318
③ 잘 모르겠다	6.5	88
④ 아닌 것 같다	7.9	107
⑤ 확실히 아니다	0.8	11

7.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3.9	326
② 그런 것 같다	48.9	666
③ 잘 모르겠다	11.5	156
④ 아닌 것 같다	11.7	160
⑤ 확실히 아니다	4.0	54
8. 아동의 권리는 책임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37.4	509
② 그런 것 같다	32.7	445
③ 잘 모르겠다	9.2	125
④ 아닌 것 같다	16.2	220
⑤ 확실히 아니다	4.6	63
9. 자식간의 편애는 어쩔 수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7.6	103
② 그런 것 같다	18.9	257
③ 잘 모르겠다	15.4	210
④ 아닌 것 같다	26.1	356
⑤ 확실히 아니다	32.0	436
10.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① 확실히 그렇다	29.7	405
② 그런 것 같다	33.8	461
③ 잘 모르겠다	9.1	124
④ 아닌 것 같다	21.5	293
⑤ 확실히 아니다	5.8	79
11. 부모에 대한 효도는 중요한 가치로 고수되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54.8	746
② 그런 것 같다	31.6	431
③ 잘 모르겠다	8.4	114
④ 아닌 것 같다	3.6	49
⑤ 확실히 아니다	1.6	22

12.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한다.

	백분율	빈도
① 확실히 그렇다	39.1	533
② 그런 것 같다	39.3	535
③ 잘 모르겠다	10.4	141
④ 아닌 것 같다	7.6	104
⑤ 확실히 아니다	3.6	49

13. 도덕성에 관해 자녀들에게 자신이 있다.

① 확실히 그렇다	32.5	442
② 그런 것 같다	27.9	380
③ 잘 모르겠다	27.8	379
④ 아닌 것 같다	9.7	132
⑤ 확실히 아니다	2.1	29

14. 아들(또는 딸)의 일기는 교육상 보아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14.0	190
② 그런 것 같다	26.9	367
③ 잘 모르겠다	14.5	198
④ 아닌 것 같다	26.1	356
⑤ 확실히 아니다	18.4	251

학습과 진로

1.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이기기위해 과외공부는 당연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13.0	177
② 그런 것 같다	27.1	369
③ 잘 모르겠다	16.7	227
④ 아닌 것 같다	27.1	369
⑤ 확실히 아니다	16.2	220

2. 자녀의 진로선택을 그들에게 맡길 수 만은 없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4.4	60
② 그런 것 같다	15.5	211
③ 잘 모르겠다	6.4	87
④ 아닌 것 같다	37.7	513
⑤ 확실히 아니다	36.0	491
3.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재수는 필요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11.3	154
② 그런 것 같다	23.6	322
③ 잘 모르겠다	19.8	269
④ 아닌 것 같다	27.4	373
⑤ 확실히 아니다	17.9	244
4. 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보다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13.8	188
② 그런 것 같다	19.2	262
③ 잘 모르겠다	10.9	149
④ 아닌 것 같다	27.4	373
⑤ 확실히 아니다	28.6	390
5.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23.7	323
② 그런 것 같다	38.3	522
③ 잘 모르겠다	11.5	157
④ 아닌 것 같다	19.1	260
⑤ 확실히 아니다	7.3	100
6. 자녀교육을 위해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33.6	458
② 그런 것 같다	34.1	464
③ 잘 모르겠다	8.3	113
④ 아닌 것 같다	17.3	235
⑤ 확실히 아니다	6.8	92

7. TV의 지나친 시청이 자녀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62.2	847
② 그런 것 같다	23.7	323
③ 잘 모르겠다	3.9	53
④ 아닌 것 같다	5.2	71
⑤ 확실히 아니다	5.0	68
8. 학교의 숙제는 많을수록 좋다.		
① 확실히 그렇다	11.6	158
② 그런 것 같다	19.8	269
③ 잘 모르겠다	13.1	178
④ 아닌 것 같다	40.9	557
⑤ 확실히 아니다	14.7	200
9. 자녀의 특기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① 확실히 그렇다	49.0	667
② 그런 것 같다	35.6	485
③ 잘 모르겠다	8.5	116
④ 아닌 것 같다	5.5	75
⑤ 확실히 아니다	1.4	19
10. 자녀교육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7.9	108
② 그런 것 같다	20.8	283
③ 잘 모르겠다	13.5	184
④ 아닌 것 같다	36.2	493
⑤ 확실히 아니다	21.6	294
11.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5.6	76
② 그런 것 같다	8.1	110
③ 잘 모르겠다	7.0	96
④ 아닌 것 같다	33.8	461
⑤ 확실히 아니다	45.4	619

12.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9.8	406
② 그런 것 같다	36.9	502
③ 잘 모르겠다	10.2	139
④ 아닌 것 같다	16.2	220
⑤ 확실히 아니다	7.0	95

성과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32.7	445
② 그런 것 같다	40.0	545
③ 잘 모르겠다	10.6	144
④ 아닌 것 같다	11.6	158
⑤ 확실히 아니다	5.1	70
2.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해야 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4.2	602
② 그런 것 같다	32.6	444
③ 잘 모르겠다	11.5	157
④ 아닌 것 같다	7.3	100
⑤ 확실히 아니다	4.3	59
3.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① 확실히 그렇다	24.8	338
② 그런 것 같다	19.0	259
③ 잘 모르겠다	22.5	307
④ 아닌 것 같다	23.1	315
⑤ 확실히 아니다	10.5	143

4. 건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6.9	367
② 그런 것 같다	32.3	440
③ 잘 모르겠다	8.5	116
④ 아닌 것 같다	21.7	295
⑤ 확실히 아니다	10.6	144
5.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0.1	546
② 그런 것 같다	31.8	433
③ 잘 모르겠다	12.6	172
④ 아닌 것 같다	10.0	136
⑤ 확실히 아니다	5.5	75
6.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① 확실히 그렇다	13.6	185
② 그런 것 같다	26.2	357
③ 잘 모르겠다	14.8	201
④ 아닌 것 같다	28.5	388
⑤ 확실히 아니다	17.0	231
7.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44.3	604
② 그런 것 같다	23.9	326
③ 잘 모르겠다	17.0	232
④ 아닌 것 같다	9.0	123
⑤ 확실히 아니다	5.7	77
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74.2	1010
② 그런 것 같다	10.9	148
③ 잘 모르겠다	4.8	65
④ 아닌 것 같다	3.1	42
⑤ 확실히 아니다	7.1	97

12.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9.8	406
② 그런 것 같다	36.9	502
③ 잘 모르겠다	10.2	139
④ 아닌 것 같다	16.2	220
⑤ 확실히 아니다	7.0	95

성과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제되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32.7	445
② 그런 것 같다	40.0	545
③ 잘 모르겠다	10.6	144
④ 아닌 것 같다	11.6	158
⑤ 확실히 아니다	5.1	70

2. 청소년의 성충동은 억제해야 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4.2	602
② 그런 것 같다	32.6	444
③ 잘 모르겠다	11.5	157
④ 아닌 것 같다	7.3	100
⑤ 확실히 아니다	4.3	59

3.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정상이 아니다.

① 확실히 그렇다	24.8	338
② 그런 것 같다	19.0	259
③ 잘 모르겠다	22.5	307
④ 아닌 것 같다	23.1	315
⑤ 확실히 아니다	10.5	143

4. 전전한 이성교제라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된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6.9	367
② 그런 것 같다	32.3	440
③ 잘 모르겠다	8.5	116
④ 아닌 것 같다	21.7	295
⑤ 확실히 아니다	10.6	144
5. 딸의 이성교제가 아들의 이성교제보다 큰 문제가 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0.1	546
② 그런 것 같다	31.8	433
③ 잘 모르겠다	12.6	172
④ 아닌 것 같다	10.0	136
⑤ 확실히 아니다	5.5	75
6.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결국 성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		
① 확실히 그렇다	13.6	185
② 그런 것 같다	26.2	357
③ 잘 모르겠다	14.8	201
④ 아닌 것 같다	28.5	388
⑤ 확실히 아니다	17.0	231
7. 10대 자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44.3	604
② 그런 것 같다	23.9	326
③ 잘 모르겠다	17.0	232
④ 아닌 것 같다	9.0	123
⑤ 확실히 아니다	5.7	77
8. 어떤 경우에도 10대의 임신은 타당화 될 수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74.2	1010
② 그런 것 같다	10.9	148
③ 잘 모르겠다	4.8	65
④ 아닌 것 같다	3.1	42
⑤ 확실히 아니다	7.1	97

4.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외박은 바람직하지 않다.	백분율	빈도
① 확실히 그렇다	63.4	863
② 그런 것 같다	18.7	255
③ 잘 모르겠다	4.0	54
④ 아닌 것 같다	10.0	136
⑤ 확실히 아니다	4.0	54
5.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63.1	860
② 그런 것 같다	29.4	400
③ 잘 모르겠다	3.9	53
④ 아닌 것 같다	2.3	31
⑤ 확실히 아니다	1.3	18
6.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점차 심각해 질 것이다.		
① 확실히 그렇다	51.6	703
② 그런 것 같다	32.9	448
③ 잘 모르겠다	9.7	132
④ 아닌 것 같다	3.4	46
⑤ 확실히 아니다	2.4	33
7.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외국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① 확실히 그렇다	5.5	75
② 그런 것 같다	18.9	258
③ 잘 모르겠다	22.4	305
④ 아닌 것 같다	32.1	437
⑤ 확실히 아니다	21.1	287
8.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보다 사회의 책임이다.		
① 확실히 그렇다	16.2	221
② 그런 것 같다	24.3	331
③ 잘 모르겠다	13.1	179
④ 아닌 것 같다	31.6	430
⑤ 확실히 아니다	14.7	200

9. TV, 잡지 등의 매스컴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백분율	빈도
원인을 제공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5.2	615
② 그런 것 같다		36.6	499
③ 잘 모르겠다		10.1	138
④ 아닌 것 같다		5.8	79
⑤ 확실히 아니다		2.3	31
10. 청소년의 거짓말에 관용해서는 안된다.			
① 확실히 그렇다		47.6	648
② 그런 것 같다		30.6	417
③ 잘 모르겠다		7.4	101
④ 아닌 것 같다		10.4	141
⑤ 확실히 아니다		4.0	55
11. 선량한 학생의 보호를 위해 비행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37.4	509
② 그런 것 같다		30.1	410
③ 잘 모르겠다		13.7	187
④ 아닌 것 같다		13.4	183
⑤ 확실히 아니다		5.4	73

정신건강

1. 자녀에 대한 공부의 강요는 부모로서 당연하다.				
① 확실히 그렇다		34.7		472
② 그런 것 같다		40.0		545
③ 잘 모르겠다		6.8		92
④ 아닌 것 같다		15.4		210
⑤ 확실히 아니다		3.2		43

2. 자녀에게 설득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매(체벌)의 사용은 필요하다.	백분율	빈 도
① 확실히 그렇다	24.4	333
② 그런 것 같다	29.7	405
③ 잘 모르겠다	10.7	146
④ 아닌 것 같다	25.3	345
⑤ 확실히 아니다	9.8	133
3. 식사예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엄격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29.5	402
② 그런 것 같다	33.2	452
③ 잘 모르겠다	10.6	145
④ 아닌 것 같다	22.8	311
⑤ 확실히 아니다	3.8	52
4. 자녀는 부모의 중요한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22.8	311
② 그런 것 같다	36.9	503
③ 잘 모르겠다	12.8	174
④ 아닌 것 같다	23.1	315
⑤ 확실히 아니다	4.3	59
5. 거짓말하는 버릇은 위협적인 수단으로라도 고쳐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51.0	695
② 그런 것 같다	30.0	408
③ 잘 모르겠다	7.3	100
④ 아닌 것 같다	8.9	121
⑤ 확실히 아니다	2.8	38
6. 자녀들간의 갈등문제에는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① 확실히 그렇다	31.3	426
② 그런 것 같다	38.0	518
③ 잘 모르겠다	11.6	158
④ 아닌 것 같다	14.9	203
⑤ 확실히 아니다	4.2	57

7.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공부보다 우선할 수 없다.

	백분율	빈도
① 확실히 그렇다	25.1	342
② 그런 것 같다	35.2	480
③ 잘 모르겠다	10.5	143
④ 아닌 것 같다	21.4	291
⑤ 확실히 아니다	7.8	106

8. 시험기간중의 각성제 복용은 허용되어도 좋다.

① 확실히 그렇다	3.4	46
② 그런 것 같다	3.1	42
③ 잘 모르겠다	3.9	53
④ 아닌 것 같다	20.6	281
⑤ 확실히 아니다	69.0	940